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학술회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전승 가치와 무형유산 지정의 필요성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 13:00~16:30

장소 영남대학교 박물관 1층 대강당

주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Yeungnam University

주최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후원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달성군  부산시
 정읍시  장성군  영주시  안동시  Golden City 경주시  함양군

개회사

환영사

기조발표

세계유산‘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이해준_공주대학교

/ 01

발표 01.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김무진_성천역사문화연구소

/ 43

0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재훈_성공회대학교

/ 113

0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이광우_영남대학교

/ 149

토론 01.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석대권_(사)대구경북향토문화연구소

/ 183

02.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채광수_영남대학교

/ 187

0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이병훈_한국국학진흥원

/ 191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수환입니다.

푸른 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가을에 우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2023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기록 및 무형유산 지정 가치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서원 제향 의례 전승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록화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찾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이해준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세 분의 연구자들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전승 가치와 무형유산 지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원은 인재 양성과 교화를 위해 설립된 사립 교육 기관입니다. 유학의 발전과 함께 중국에서 전파되었으나, 한국의 서원은 중국 서원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독자적인 서원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한국 서원 문화의 독자성은 제향 의례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선조들은 서원에서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존현’을 위한 각종 제례도 거행하였습니다. 제례를 통해 선조들이 남긴 정신을 이어받고, 그것을 체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원 제향 의례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도 유효합니다.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서원 제례를 통해 더 큰 위기를 극복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술회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서원 제향 의례의 가치가 한 번 더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의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학술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배용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회의 개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문화재청과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그리고 9곳 서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 통해 제향 의례로 대표되는 서원 문화가 인류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수환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서원세계유산센터)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오늘 오랜 역사와 빛나는 학풍이 깃든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되는 ‘2023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이끌어 주신 이수환 교수님과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해준 교수님, 9개 서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들께서 한 자리에 계시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던 영광의 순간이 떠오르며, 이와 더불어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집니다.

한국의 서원은 2019년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건축 유산에 근거한 유형적 가치는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적 가치를 전파하고 전승에 영향을 미친 무형유산인 제향 의식은 오늘날 제례 비용, 제례 참가자 및 전승 체계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서원세계유산센터는 9개 서원과 지자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전승 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용 목적으로 진행하는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

굴욕성사업'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를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단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2023년도 사업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와 함께 문헌조사, 기록화 사업, 학술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술회의 발표가 학술용역의 최종 결과가 아니지만, 민족문화연구소의 역량과 학술회의 토론,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제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학술회의를 준비하신 민족문화연구소와 서원세계유산센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 10.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장 이배용

기조발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이해준_공주대학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이 해 준¹

-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II.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 전통
- III. ‘한국의 서원’ 서원별 제향의례와 자료
- IV. 제향의례 가치와 지속·발전 제안

오늘의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를 주된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국가 무형유산 지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본 발제자는 한국의 서원이 지닌 4-500년 전통의 서원 제향의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제안해 보는 발제를 하게 되었다.

서원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과 한국의 서원을 비교하면, 중국의 서원이 講學 위주인데 반하여,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별로 추앙하는 상징적인 선현을 선정하여 사상적 멘토를 삼고 그를 추송하고 제향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제향과 함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 공간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교육, 강학 기능과 함께 서원의 창건과 운영, 제향인물의 위상이 주목·강조되면서 제향의 기능과 의미도 강해졌다. 특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前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히 서원이 지역별, 학맥별 지성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상징적 인물제향의 의미와 기능도 점차 증대된 것이다.²

특히 한국 서원의 제향 기능은 교육·강학의 기능과 함께 서원의 양대 기능을 형성하며,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또한 서원의 제향의례가 온전하게 남은 경우는 한국뿐으로,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는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유교식 제향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서원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서 9개 서원의 제향의례는 조선의 패망이나 일본의 조선 합병 등 국난과 관계없이 서원이 건립된 후로 한번도 끊이지 않고 후학들이나 후손, 지방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³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는 무형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소화되고 변형되면서 그 원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간략화 된 제례가 지속될 경우 그 가치와 위상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가치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9개 서원의 제향의례 원형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 전승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를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

2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 -제향의례-』, 2014;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2021.

3 최순권, 이명진, 『한국의 서원 - 제향의례 -』, 한국의 서원 등재추진단, 2013.

차 세계유산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⁴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할 OUV III에 해당되는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즉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로 한국의 서원이 그러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 장소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과 학문연구, 선현 제향의 기능을 지니면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구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으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의 연속유산으로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을 비롯하여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이다.

이들 9개 조선시대의 서원은 한국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40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고,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으로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한

4 ‘한국의 서원’은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3년에는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6년 4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반려(Defer)’ 의견에 따라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이후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을 지속하여, 2018년 1월 최종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코모스의 현지 실사가 2018년 9월 이뤄지는 등 1년 6개월간의 심사가 진행됐으며, 2019년 7월 최종적으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지성사와 인문학의 전당”이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 9개 서원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지금까지 400여 년 전 승되어 온 제향의례, 서원이 자리 잡은 위치와 배치 공간의 탁월함, 유산 보존의 온전함, 각 서원이 행하는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 역할,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의 소장 전수, 서원 건물의 성격과 이해를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현판과 기문 등은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존속케 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서원의 주요 기능은 첫째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이상적 지식인을 양성하였다는 점, 둘째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를 사표로 삼아 제향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인물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건립되었으며, 지역의 성리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제향함으로써 후속 세대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고 강학을 통해 학문을 계승함으로써 학맥을 형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서원을 사회 교화와 정치 활동 등 각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하면서 성리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지역의 성리학자들은 강학을 통해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였고, 정기적인 제향을 통해 학과의 결집을 도모하였으며, 교류를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활동을 주도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강학, 제향, 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대표 문화유산으로 다른 나라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9개 서원은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을 지닌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특히 본 학술회의에서 주목하는 한국 서원의 ‘제향(祭享)’ 가치와 의미, 특징은 이러한 탁월하고 특별한 사례로서 주목된다.⁵

서원은 강학과 함께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5 정승모, 이해준, 최순권,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최순권, 이명진,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선현 제향(先賢 祭享)’과 ‘사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진정성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주목할 특징이다. 한국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제의(祭儀)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서원과는 달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제례가 한국 서원처럼 강조되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 서원의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을 서로 비교하면, 중국의 서원은 제향 공간의 규모는 크지만 제향보다는 강학을 중요시하였고, 한국의 서원은 강학 공간의 규모는 제향 공간보다 규모가 크지만 제향을 더 중시한 측면이 있다.⁶

그리고 한국의 서원건축은 건축배치와 공간 형성에서 탁월한 사례를 보여주는 데, 바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지 위에 세워지는 전저후고(前底後高), 강당을 앞에 두고 사묘를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취하였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당과 재사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두었고, 지대가 높은 곳에는 사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었다. 제향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독립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위치하는 곳임을 표현한 것이다.

II.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 전통

1.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

6 또한 중국의 대표적 서원인 악록서원에는 문창각(文昌閣), 괴성각(魁星閣) 등의 건물이 있어 토속 신앙에 속하는 문창(文昌), 괴성(魁星) 등을 제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서원에서는 풍수탑을 건립하기도 하고, 산신(山神), 보살(菩薩) 등도 제사지냄으로써 서원에 유·석·도(儒·釋·道)가 공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서원에서는 토속 신앙적 요소 등, 성리학과 관계가 없는 시설이나 신앙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창건 후 400여 년 동안 특이한 제향 기능을 독보적으로 전승하고 존속하여 왔다. 즉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제향은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함께 계승하는 고귀한 의식으로 창건 이후 서원별로 독특한 제향 의례를 지속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예를 중요시하는 유학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도 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된 곳이다. 서원은 교육의 강학기능과 함께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先賢)의 학덕(學德)과 행의(行誼)를 추앙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서원 유생들은 평소에는 강당에 모여 글공부를 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 등 삭망(朔望)에 분향을 하는 알묘(謁廟)를 하고, 봄과 가을 두 차례 사당에서 향사를 지내어 서원을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특히 향교나 중국, 일본의 유학시설들과는 달리, 공자를 제향하지 않고 서원 설립자의 스승을 향사하는 것은 한국 서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하고 주목되는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스스로 지식인의 계보를 정립하고 이를 롤-모델로서 계승함으로써 학문과 지식인에 대한 존숭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9개 서원에 제향되고 있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사 및 지성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서, 이들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와 발전을 상징한다. 지역의 사림들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대표·상징적인 학맥과, 그들의 거점과 근거지를 확보하여 지역과 학파에 따른 전통과 독특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상으로 삼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며 발전해갔다.

그리고 본 발제에서 발제자가 강조하고 주목하듯이 한국의 서원은 제향 인물과 제향 의례전통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다른 유교문화 유산과의 차별성, 특이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역별 서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

서 지역의 대표, 상징적인 인물을 제향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서원 창건을 그 지역의 대표 인물과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사림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향 인물이 지역과 학파에 따라 독특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서원의 제향 의례는 각 지역별로 학맥별로 독특한 제의 방식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과 독자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서원 제례는 정기적인 춘추제향(春秋祭享)과 매월 삭망,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하여 분향하는 삭망례(朔望禮),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등도 있었다.⁷ 제향 의례는 서원마다 독자적인 의례를 지니었으며, 관련 자료들이 홀기(笏記) 및 춘추향사축문(春秋享祀祝文), 봉안축문(奉安祭文), 그리고 참제록(參祭錄) 등으로 남아 전한다. 그리고 제향 이외의 기타 의례로 향음주례(鄉飲酒禮)와 사상견례(士相見禮), 양로연(養老宴), 기로연(耆老宴), 백일장(白日場) 등의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강학 의례나 재회(齋會)의 의례 등도 유념할 유형 유산이다.

특히 제향 의례와 함께 유념할 것이 강학례(講學禮)로 이는 서원의 교육과 의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원 교육 강학 기능의 본체인 강학례는 매우 귀하고 엄격하게 실행되어왔고 서원마다 특성이 있는 의례였다. 학규와 함께 강서(講書)의 순서, 강안(講案)의 마련과 거재의절(居齋儀節), 상읍례(相揖禮), 상벌(賞罰) 등등 관련 자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제향(형태)	주향, 병향, 종향, 열향, 배향, 독향, 주향
의례(형태)	춘추 향사, 삭망례, 정알례, 봉안례, 환안례, 사액례, 치제, 강습례

7 물론 서원건물을 수리하거나 이건할 때 거행하는 移安祭, 還安祭가 있고 불의의 재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 올리는 慰安祭, 그리고 위패를 새로 제작하여 봉안할 때 올리는 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宣額祭 등도 있었다.(윤희면, 2000, 「조선시대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제90집, 진단학회)

	도동곡, 분향례, 전폐례, 삼헌례, 음복수조례, 철변두, 망료례, 희생례, 야하, 상읍례 등
제기	簋, 簋, 簋, 豆, 생, 축판, 坩, 罍, 어숙
제수	희생, 제주, 육곡, 해, 저, 과, 포
기타 기록	참제록, 도동곡, 홀기, 진설도, 제수단자, 봉안문, 제문, 분향록, 알묘록, 준분록, 집사기, 축문, 고유문, 계생비 등

2. 서원 제향의례의 전통

서원 제향은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에 안향을 모시는 서원을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례를 위해 제식(祭式)과 홀기(笏記)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주세붕은 향교 석전(釋奠)과 『가례(家禮)』 등을 참고하여 향사 홀기와 진설도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예전인 『국조오례의』에도 서원 제향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과 향사홀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황도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개정하였다.

참고로 널리 알려진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제향 의례 모습을 먼저 간략하게 인용하여 본다. 특히 9개 서원 중에서도 도산서원은 오랜 전통과 규범이 잘 전승된 곳으로 유명하다. 도산서원의 제향은 향례 3일전에 유사들이 전교당(典教堂) 아래 동서 재실(弘毅齋, 博約齋)에 입재(入齋)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읍례(相揖禮)를 한 뒤 제관과 집사들을 선정 망보(望報)하며 2일전에는 모두 입재하여 축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일 전에는 정성을 다하여 알묘례(謁廟禮) → 척기(滌器) → 간품례(看品禮) → 봉존(奉尊) → 석미(浙米) → 진설(陳設)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향례일에 일반적인 행사(行祀) 절차가 치러진다. 제향을 마친 후에는 종헌관이 음복을 한 후 제물을 모두 치우고 헌관과 집사들이 함께 재배함으로써 행사를 마친다. 이어 제공사를 한 뒤 파좌하여 음복례를 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도산서원에

서는 음복례를 위해 전교당에 향례 참여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재유사가 향약의 약문을 읽는다.

제향의례가 끝난 후 참여한 유생들이 음복하는 복주(福酒)나, 서원의 중대 사안과 고을의유림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그리고 강상윤리와 관련한 포상과 처벌 등등을 논의하는 유회(儒會)도 함께 주목대상이다.

1) 춘추향사(春秋享祀) 제향 의례

정기 춘추향사 제향 절차는 주로 주세붕의 소수서원 홀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황 역시 향교 석전을 참조하여 개정하였듯이, 주로 향교의 석전 내용을 참조하거나, 또는 주자(朱子)의 창주정사(滄洲精舍) 석채의(釋菜儀)를 참조하였다.

정기적인 서원의 향사(享祀), 제향에는 매년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삭망,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하여 분향하는 삭망례(朔望禮),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등도 있었다.

서원 제향에는 매년 봄·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 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있다. 춘추 향사는 처음에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냈다. 그러다가 향교 석전이 치뤄지는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춘추 향사와 중복되고 어려워 대부분 3월과 9월에 지냈다.

그리하여 서원별로 서원의 주향인이나 배향인, 종향인, 또는 그 문하생들의 학규나 제향 해석에 따라 향사홀기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향사 절차와 행례 내용을 보여준다. 이에 서원마다 절차에 따라 행례를 하면서 여러 절차가 합쳐지거나, 행례 내용이 아예 다른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각 서원마다 각기 다른 향사 절차와 고유한 전통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소수서원의 춘추 향사 시기는 주세붕과 이황의 소수서원 홀기에는 계춘(季春 : 음력 3월)과 계추(季秋 : 음력 9월)로 되어 있다. 이황이 정한 백운동 소수서원원규에 “춘추의 두 번 향사는 계절의 상정에 지내고, 상정이 유고이면 중정으

로 바꾼다.”고 하여, 소수서원에서는 현재에도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낸다. 다른 서원들도 대개 소수서원의 규약을 따라 향교 석전제와 중복되지 않게 음력 3월과 9월에 향사를 행하였다. 서원마다 제향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향사는 기본적으로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망료례(望燎禮)로 이루어진다.

서원의 제구(祭具)·제기(祭器)의 종류나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제구들은 서원마다 다소 차이도 있다. 곡식을 담는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簋)와 궤(簠)이다. 보에는 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을 담는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궤를 놓는다. 반찬인 제물은 변(簋)과 두(豆)에 담는데 과(果), 포(脯) 등 마른 제물은 변에, 해(醢), 저(菹) 등 젖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그리고 서원 향사에서는 희생⁸을 담는 제기로 적대라고 흔히 부르는 조(俎)가 있고, 작(爵)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으로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 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玷)에는 축점(祝玷)과 작점(爵玷)이 있어 그 위에 축관이나 술잔을 올려놓는다.

제주(祭酒)는 용수로 거른 맑은 술로 준(樽)에 담아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樽), 또는 봉준(封尊)이라고 한다. 준(樽)에는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 준은 소 모양의 희준(犧樽), 아헌에 올리는 양제(盎齊)를 담는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樽), 종헌에 올리는 청주(淸酒)를 담는 준은 산 문양을 새긴 산뢰(山罍)라 한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로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된 작은 용작(龍勺), 먹(羃)은 술항아리를 덮는 덮개다.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 대신하기도 한다. 그밖의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 등이 있고, 제수로는 그밖에도 향나무, 향촉, 필묵,

8 성균관 석전에는 소·양·돼지 三牲을, 향교 석전에는 양과 돼지 二牲을 올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서원 초창기인 소수서원의 주세붕과 이황의 진설도에는 雉脰, 즉 꿩을 올리거나, 도산서원의 祝辭에도 ‘翰音淸酌’이라 하여 닭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초, 축지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흰 종이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근봉(謹封)한다.

한편 서원 향사에 입는 제복(祭服)은 많이 변형되어 현재는 대개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헌관 및 집례, 축은 관복, 집사는 도포를 입거나, 아니면 제관 모두 도포를 입되 헌관만 검정 또는 남색 등 색을 달리하거나, 모두 향교 석전과 같이 제복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서원이 사적인 교육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은 경우 토지 및 노비 등을 지원 받기 때문에 향사에는 지역 수령이나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에 의해 향사가 치러졌다. 이에 헌관의 경우 흉배를 단 단령에 복두를 착용하고 홀을 쥐는 관복을 입었다. 관직이 없는 경우는 자신들이 준비한 유건, 치포관, 갓에 도포를 입었는데 헌관만 색을 달리하였다.⁹

○ 향사(享祀) 준비

향사의 준비와 시작은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원에 따라서는 이를 초집(招集, 抄執)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초집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獻官) 3명과 대축(大祝) 1명, 그리고 집례(執禮) 1명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하여 보낸다.

· **제물(祭物) 준비** : 서원 고직사(庫直舍)에서는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제물을 장만한다.

·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이는데 이를 입재(入齋)라 한다. 제관으로서 마음을 경건하게 보존하는 재계(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본래 향례는 축시(丑時), 즉 새벽

9 대부분 최근에는 향교 석전과 같이 금관에 후수와 패옥을 착용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서원에서 마련한 옥색 도포를 입고 향사를 지내기도 한다.

한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들은 하루 전날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그리고 강당에 모여 개좌읍례(開坐揖禮)로써 서로 인사를 나누어 입재의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제향 시각이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겨진 서원에서는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 **성생례(省牲禮)** : 성생례는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라고도 하는데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다. 서원 정문 밖에서 예를 치르는데 삼헌관은 북향하고, 희생의 머리는 사당으로 향하게 한다.

· **집사 분정(執事 分定)** : 분정은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시도록을 가지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찬자)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 분정을 하고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에 적고, 분방(分榜) 또는 창방(唱榜)이라 하여 분정된 집사들에게 각기 역할을 알리고 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¹⁰

· **사축(寫祝)** : 분정을 마치면 대축은 사당에 가서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하고 초헌관에게 축문을 확인 받은 뒤, 축관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제상 아래 향탁의 좌측에 둔다.

· **제수 근봉(祭需 謹封)** :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궤, 변과 두 등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수를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수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 **진설(陳設)** : 교의(交椅)의 신위 앞 좌측에 보, 우측에 궤를 놓으며, 보 좌측에 변 4기, 궤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보와 궤의 앞 중앙에 조를 두고 그 앞에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보에는 멍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쌀을 담으며, 변에는 마른 대추, 사슴포, 밤, 생선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부추, 생무 등 젖은 제수를 놓고, 조에는 생(牲)을 얹는다.

10 분정된 집사명과 인원수는 대개 獻官 3인(초헌·아헌·종헌관), 大祝 1인, 贊者 1인, 謁者 1인, 陳設 6인, 司罇 1인, 奉香 2인, 奉鑪 3인, 奉爵 3인, 奠爵 3인, 掌饌 1인, 掌牲 1인, 盥洗位 1인, 學生 1인, 直日 1인이다.

○ 제향 절차(祭享 節次), 향사 의례(享祀 儀禮)

향사 절차도 많은 경우 주세붕의 소수서원 홀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황이 향교 석전을 참조하여 개정하였듯이, 주로 향교의 석전 내용을 따르거나, 또는 주자(朱子)가 정한 창주서원(滄洲書院) 석채의(釋菜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서원 별로 상황에 맞게 절차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서원마다 각기 다른 향사 절차와 고유한 전통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제향의 모든 절차는 예에 어긋남이 없이 엄격히 거행되었다. 의례 집행자가 제향 절차가 기록된 홀기를 낭독하면 그에 따라 제관들이 질서 있고 경건하게 움직이며 진행되었다. 서원마다 제향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제향은 기본적으로 사당앞 취위(就位),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철변두(撤籩豆), 망예(望瘞, 望療禮)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서원 향사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 각 지역의 사족들이 홀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서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향사는 요즘에는 오전에 제향을 갖는 곳도 많지만 원래는 새벽 1시에 향사를 지냈다. 향사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제상 좌우에 놓인 축대에 불을 밝힌다.

향례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은 강당에 모여 상읍례(相揖禮)를 행한다. 향사는 집례 또는 찬자가 향례 진행순서인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것(唱笏)으로 시작한다. 제관들은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이어 대축이 위패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櫝)을 행한다.

· 취위(就位) : 초헌관은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대축은 위관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櫝)을 한다. 그리고 향사를 안내할 집례와 찬인, 알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제 자리로 나간다. 집례의 본격적인 창홀에 따라, 제관들은 배

위에 나가 재배를 하고 각자 위치에 나아가며, 삼헌관은 사당으로 들어와 재배를 한다.

·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謁者)의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다.

·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준소(罇所)로 올라와 동쪽편에서 서쪽을 향해 선 다음 작주(酌酒)를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작을 받아 헌작을 하고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작을 다시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 **독축(讀祝)** :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데, 모든 서원에서는 이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을 한다.

·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 앞에 세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아헌례와 같다. 다만 일부 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라고 하여, 종헌례가 끝나면 삼헌관이 함께 재배를 하기도 한다.

· **음복수조례(飲福受祚禮)** : 초헌관이 대표로 신에게 복을 받는 절차이다. 초헌관이 음복 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것이다. 대개의 서원에서는 음복수조례 후에 헌관 이하 또는 헌관만 재배를 한다.

· **철변두(撤籩豆)** :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대축이 변과 두를 조금 움직여 예를 표한다. 사신(辭神)의 의미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철변두 후에 헌관 이하 재배를 하는데, 도동서원과 같이 헌관만 재배를 하기도 한다.

· **망료례(望燎禮)** : 망료례는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우는 예다. 축문을 폐백과 함께 묻는다고 하여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영조대 이후로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망료례를 마치면 향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

필禮畢’이라고 고하고 3헌관과 참사자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그런 다음에 알자는 다시 돌아와 대축 및 집사들과 함께 재배를 하며, 대축은 합독(閤櫛), 즉 위패의 뚜껑을 닫고 재배를 한다.

향사가 끝나면 향사가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강당에 모여 향약문(鄉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거나 음복(飮福) 식사를 한다. 그리고 행사에 쓴 제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의식으로 ‘봉송’을 주고 파좌(罷坐)한다.

2) 정알례와 삭망례

· **정알례(正謁禮)** : 매년 정초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정월 초4일 원장과 재유사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입원하여 초5일 새벽 5시 경에 행한다. 원장은 당상에서 남향하여 서고, 재유사와 참례자들은 북쪽을 향하여 묘정의 동서에 나이순으로 선 뒤 읍례(揖禮)를 하는데, 이를 정읍례(庭揖禮)라 한다.

이어 조사(曹司)가 재유사 앞에 나아가 읍하면, 재유사가 집례를 추천한다. 다시 조사는 알자 앞에 나아가 서로 상읍례를 한 뒤 제자리에 돌아가면 집례가 묘우로 가서 홀기를 창한다. 위차에 따라 예를 마치고 모두가 강당에 돌아와 원장과 연장자들이 동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집례 이하는 동쪽을 향하여 상하로 서서 읍례를 한 뒤 물러난다.

· **삭망례(朔望禮)** :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焚香禮)로 향알례(香謁禮),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매월 삭망일 하루 전날 재유사(齋有司)가 입재하여 삭망 당일 새벽 6시 경에 의관(유건과 도포)을 정제하고 봉향, 봉로 한 사람씩을 앞세워 묘정에 나아가 관세위에 손을 씻고 계단 사이에 마련한 향로에 세 번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묘우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비정기적인 제향 의례도 있었다. 비정기적 제향에는 위패를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모실 때 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올리는 위안제(慰安祭),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사액례(賜額禮),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내는 치제(致祭) 등도 있었다.

3. 서원별 고유·특이 의례관행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는 획일화가 아닌 지역적 특색에 따라 서로 특이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다.¹¹ 소수서원의 경우, 제향인가 생전에 자주 들었던 「道東曲」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도동서원의 경우는 서원 바로 뒤편에 있는 제향자의 무덤에 묘제를 함께 지낸다든가, 무성서원의 사례처럼 마을공동체 신앙의례와 연계된 듯 제향 전 황토를 뿌리는 사례 등등도 있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동곡을 부르는 소수서원** : 소수서원 춘추 향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명의 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 것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지은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도동곡은 삼헌관이 각각 문성공 신위 앞에 잔을 올린 뒤에 부르며, 도동곡에 익숙한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항상 묘정에 마주 서서 같이 부르게 한다. 이는 도동곡의 전승을 위한 것이다. 종묘와 문묘를 제외하고 악장을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 **예를 갖추어 쌀을 아홉 번 씻는(漸米) 도산서원** : 도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제관을 선정한 뒤에 축문을 써서 함에 넣고 다시 사묘인 상덕사의 축상(祝

11 9개 서원의 祠宇 명칭 : 소수서원(文成公廟), 남계서원(사우), 옥산서원(體仁廟), 도산서원(尙德祠), 필암서원(佑東祠), 도동서원(사우), 병산서원(尊德祠), 무성서원(泰山祠), 돈암서원(崇禮祠)

床)에 봉치하는 ‘축문 봉치(奉置)’ 의식과 제물을 준비할 때 ‘열정(冽井)’이라는 이름의 우물에서 큰 소리로 회수를 세며 쌀을 아홉 차례 씻는 ‘석미(淅米)’ 의식을 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 **묘제도 지내는 도동서원** : 도동서원은 일반 서원과 구별되는 춘추 향사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향인 김광필에 대한 묘제를, 후손이 아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한강 정구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춘추 향사 외에도 매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서원 뒤에 있는 김광필 묘소의 춘추묘제를 서원에서 지내고 있다.

· **제향 전 간식으로 야하(夜下)를 제공하는 옥산서원** : 옥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새벽 1시경에 시작된다. 그 전에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 뒤 강당이나 서재에서 야하(夜下)를 제공받는다. ‘야하’란 ‘밤에 내린다’는 뜻인데,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제관들에게 제공하는 미음 간식을 일컫는 말이다. 미음 죽을 제공하는 이유는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제사는 첫째가 엄숙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야하를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다른 서원과 달리, 희생을 운반할 때 누각인 무변루와 강당, 사묘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 가자(架子)에 실어 중문을 통해 옮기는 것도 특이하다.

· **제향 공간과 제물준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병산서원** : 병산서원에서는 서원재단에서 설립한 풍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향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에 춘추 향사를 지낸다. 사묘인 존덕사(尊德祠) 오른쪽에는 제사에 쓸 제수를 준비하는 건물인 전사청이 있다. 대개 전사청은 사묘와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병산서원의 사묘와 전사청은 담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는 사묘를 좀 더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하려는 건축적인 배려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예례를 행할 때 축문만 묻지 않고, 축관이 돼지 귀를 축문에 싸서 감(坎)에다 묻고 뚜껑을 덮는 것도 특이하다.

· **계생비(繫牲碑)가 있는 필암서원** :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의 특징은 희생에 쓸 가축이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지를 살피는 ‘생간례’를 성생단이 아닌 다른 곳

에서 행한다는 점이다. 사묘인 우동사(祐東祠) 앞에는 계생비(繫牲碑)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는 춘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는 비석이다. 향사일 하루 전에 제관들은 계생비에 묶인 가축의 주위를 세바퀴 돌면서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 서원에서는 주향에만 독축을 하는데 필암서원에서는 배향위에도 별도의 독축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 **황토를 깔아 신도(神道)를 만드는 무성서원** : 무성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지내다가 봄 향사 1회로 축소되었다. 춘추 향사가 시작되면 준비한 제물을 가자(架子)에 담아 현가루부터 사묘까지 중앙의 문을 통과하여 운반한다. 제수가 통과하는 길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이 때 다른 서원과 달리 신도 양쪽으로 드문드문 황토를 깐다. 이는 황토를 깐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원회(院會)에서 제관을 결정하는 남계서원** : 남계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 새벽 5시 경에 지낸다. 미리 입재한 헌관 이하 제관들이 의관을 갖춘 후 흰죽으로 허기를 달랠 겸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제향에 임한다. 남계서원에서는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회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의 선비 30여 명이 모여 제관을 선정하고, 마치면 바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또한 쌀과 기장을 익혀 고두밥을 만들어 제물로 올리며, 제향이 끝난 후 별도의 음복례가 없는 대신 자유롭게 아침식사를 하는 것도 특징이다.

· **장의 회의(掌議 會議)에 제관 결정을 위임하는 돈암서원** : 돈암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앞두고 장의회의를 여는데, 이때 임원진 10여 명이 모여 향사를 진행할 제관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망기에 해당하는 천장(薦狀)을 만들어 각 제관의 집으로 발송한다. 돈암서원의 향사 절차는 여느 서원과 같으나, 진설도가 조금 특이하다. 또한 향사를 시작하기 전 사묘의 신위 앞에서 고종 임금이 하사한 벼루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쓰고 옥 등잔에 불을 밝힌 채 제향을 봉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Ⅲ. ‘한국의 서원’ 서원별 제향 의례와 자료

1. 9개 서원 제향의례 [자료]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

우리나라 서원 제향 의례의 전례를 마련한 것이 소수서원이라 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춘추 향례 절차는 서원을 창설한 주세붕이 처음 정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서원 제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을 만들었다. 향사는 춘추 3월과 9월 첫 정일(丁日) 자시에 올리고, 성생(腥牲)으로 꿩을 썼는데, 현재에도 계절(季月)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지낸다.

이황도 주세붕이 만든 제식에다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작성하였다. 즉 진설도에서 제수 중 밀과(密果)는 설미(蓂味)이므로 학(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과(果)를 두(豆)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여 녹해(鹿醢)로 대체하였으며, 우사두(右四豆)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사변(左四簋)에 황율(黃栗)을 어숙(魚鱸)으로 대체하여 진설 위치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향례 절차에는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구분하였고, 음복(飮福) 후 수조를 하고 배례(拜禮)하게 하였다.

소수서원 춘추 향사의 가장 큰 특징은 3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 것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1541년(중종 31)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향사 의례에서 도동곡이 불리는 절차는 주세붕과 이황이 작성한 흥기에는 나오지 않고, 『죽계지』 「행록후」의 제사 법식에 등장한다. 도동곡은 초헌, 아헌, 종헌관이 문성공 신위 앞에 헌작(獻爵)한 후에 부르며, 도동곡에 익숙한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항상 묘정에 마주 서서 같이 부르게 한다. 이는 도동곡의 전승을 위한 것이다. 젊은 유생은 초헌, 아헌,

종헌 때마다 교체하며, 장로 1인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부른다. 다른 서원의 향사에는 원래 제례악이 없으며, 현재 한국의 제례에서 종묘(宗廟)와 문묘(文廟)를 제외하고 악장을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일반적인 서원 출입은 동계로 올라 동계로 내려오며, 사당의 출입은 보통 중문은 신도(神道)로 여겨 출입을 금하고,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오거나, 동문으로 들어갔다 동문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동계로 올라 가운데 기둥을 돌아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온 뒤 다시 가운데 기둥을 돌아 동계로 내려오며, 서문은 헌관과 대축이 망료례 때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

남계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 새벽 5시 경에 지내며, 미리 입제한 헌관 이하 제관들이 의관을 갖춘 후 흰죽으로 허기를 달랠 겸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 제향에 임한다. 남계서원에서는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 유림 30여 명이 모인다. 3헌관과 기타 제관에 대한 선정을 마치면 바로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제수는 제향 이틀 전에 함양읍내의 재래시장에서 준비한다. 생으로는 검은 색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와 묘정의 성생단에서 성생례를 한 후 고직사로 가져가 잡는다. 돼지의 머리와 앞 두 다리는 주벽에 올리고, 뒷다리는 하나씩 배위에 올린다. 그러나 다른 제수는 주벽과 차이가 없다. 쌀과 기장을 익혀 고두밥을 만들어 제물로 올리는 것이 또한 이 서원의 제례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향이 끝난 후 별도의 음복례가 없는 대신 자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흘기첩(笏記帖)에는 향사일과 재계일(齋戒日)을 앞에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고 건너 뛰어서도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향사 3일 전에 참례자가 모두 모여 산재(散齋) 2일간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냄

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더럽고 험한 일은 같이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일 전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향사 절차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도동서원과 같이 삼상향과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으나, 각 신위마다 전폐(奠幣) 다음에 재배를 하며, 헌작은 창주서원 석채의와 같이 각 신위마다 헌관이 삼재주(三祭酒)하여 올리며 헌작 다음에 재배를 한다. 이때까지 재배는 사당 내 신위 앞에서 한다. 또 초헌관이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하며, 수조 후에 또 재배를 하고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오면 재위자가 모두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철변두 후에는 헌관 및 학생이 모두 재배를 한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례 절차도 다른 서원과 차이가 있다. 우선 사당 중문은 열어놓고 신위마다 분향을 하며, 이어 행하는 부복례(俯伏禮)나 배례(拜禮)를 각 신위 앞에서 하지 않고 사당을 나와 중문 밖에서 제관들이 일동 재배한다.

□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옥산서원 제향은 새벽 1시경에 시작된다. 이보다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한 뒤 제관들은 강당 대청, 또는 서재에서 야하(夜下)를 받는다. ‘야하’란 글자 그대로 밤에 내린다는 뜻인데,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제공하는 미음 간식을 일컫는 말이다. 미음 죽을 제공하는 이유는 구감(口瘡), 즉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뼀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제사는 첫째가 엄숙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야하를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제향의례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화되면서 진화(進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14년 2월에 작성된 홀기와 현재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변화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옛 홀기의 진설도를 보면 2보 2궤에 4번 4두이며 치성(雉脰)이 그려져 있다. 제수도 주세봉이 정한 백운동서원의 문성공묘제(文成公廟祭)의 진설도와 같으나, 옥산서원에는 폐비(幣篚)가 없다. 현재의 진설도는

1보 1례에 4변 4두이고 제수도 좌측의 밀과(密果)는 녹해(鹿醢)로, 우측의 백자(柏子)는 어포(魚脯)로 바꾸었다. 치성(雉腥)도 시생(豕牲)으로 변경되고 폐(幣)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에서는 축문 작성을 사당에서 행한다. 즉 분정이 끝나면 대축은 체인묘 사당 문을 열어둔 채 내삼문 밖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삼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 하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좌정하여 이를 지켜보고, 축문 작성이 끝나면 헌관에게 확인을 받고 축문을 조그만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그리고 다른 서원과 달리, 희생을 운반할 때 누각인 무변루와 강당, 사묘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 가자(架子)에 실어 중문을 통해 옮기는 것도 특이하다.

1614년의 홀기에는 전폐례가 없고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에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고 자리에 돌아오며, 음복은 대축이 종헌주(終獻酒)를 따라와서 헌관이 복주 및 수조를 하고 철변두 없이 망료례를 한다. 현행 홀기에는 삼상향 후에 전폐례를 하며,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 자리에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종헌례가 끝난 후 모든 헌관이 함께 배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음복도 대축이 준소(罇所)에서 복주를 가져와서 초헌관이 복주(福酒)를 하도록 바뀌고, 수조 후에 초헌관이 자리로 돌아와 헌관 모두가 재배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철변두의 절차도 추가하여 대축이 철변두를 하고 헌관과 학생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옥산서원의 향사는 다른 서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오랜 전통과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제관이나 집사 모두 향사 경험이 많아서인지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홀기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시간도 여유 있게 진행한다. 향례를 마치고 제사공론을 따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초집(抄執)을 바로 전의 삭망례와 연결하여 가짐으로써 향사 전체 일정에 여유를 갖는 것도 이 서원이 갖는 특징이다.

제물로서 희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생간례(省看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瞰牲) 또는 감생(監牲)이라고 한다. 역락문(亦樂門) 밖

에 단과 모든 유생의 자리를 설치하여 깨끗한 자리와 관세대야를 바르게 하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가 차례로 나와 서면 시생 담당자가 의대(衣帶)를 갖추어 시생(豕牲)을 메고 나아가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읍례를 한다. 헌관은 시생 남북향으로 서면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좌로 돌면서 세 번 손을 씻고 닦은 다음 꿇어 앉아 시생을 문지르고 헌관을 향하여 읍을 하며 돌(脬)을 고하면 헌관은 충(充)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감생을 마치면 시생을 주사(廚舍)로 옮겨 제수준비를 한다. 전체 진행에서 유사(의사)의 비중이 큰 것도 옥산서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도산서원의 제향의식은, 퇴계가 개정한 소수서원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진설도에 치성(雉脰)을 시생(豕牲)으로 고치고, 2보 2례를 ‘계미국감(癸未國減)’이라 하여 1보 1례로 하였으며, 전폐(奠幣)도 ‘무진국감(戊辰國減)’이라 하여 전폐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주향인 이황 신위에는 2변 2두를, 종향인 조목 신위에는 1변 1두를 진설한다.

도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퇴계가 개정한 소수서원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며 서원 제향의례의 전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음복수조와 철변두 다음에 ‘헌관이하 개재배(獻官以下皆再拜)’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음복수조 다음의 배례는 수희배(受禧拜)이고, 철변두(撤籩豆) 다음의 배례는 예필배(禮畢拜)이다.”라고 한 퇴계의 소수서원 홀기 개정문에 따라, 배석에 있는 헌관 뿐만 아니라 일반 참례자도 함께 재배를 하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향사는 일찍이 다른 서원의 전형이 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도산서원만이 갖는 특징을 찾아내기 힘들다. 다만 헌관 집사 분정 후 축문을 쓰는 축문봉치 의식과 제물을 준비할 때 쌀을 씻는 과정 등은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제관 전원이 입재하여 강당인 전교당(典教堂)에서 집사 분정을 마치면, 대축이 상덕사(尙德祠)에 들어가서 축관이 담겨있는 함을 받들어 전교당 중앙에 좌정하

여 축문을 쓴다. 이때 축관이 직접 축지(祝紙)를 재단하고 봉인된 먹을 개봉하여 갈아 새 붓으로 축문을 써 축관에 붙여 함에 넣고, 다시 상덕사의 축상(祝床)에 봉치(奉置)한다. 이 때 축함이 전교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일어서서 축함을 향하여 읍례(揖禮)를 하며 축관은 사당의 중문으로 출입하게 된다. 축문을 쓰는데 사용한 먹과 붓은 대축에게 지급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퇴계선생이 사용한 매화연(梅花硯)을 가져다 사용하였으나, 유물 도난사건 이후부터는 한azon 재에서 사용하는 벼루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희생의 상태를 살피는 간품례를 전교당 앞뜰에서 하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석미(淅米)’를 시작한다. 참사자들은 전교당 앞뜰에 모여 두 줄로 북쪽부터 순서대로 동서향으로 마주보고 섰다가 재유사가 시사를 데리고 전사청에 들어가 제미(祭米)를 받들고 뜰로 나오면 모두 읍례를 한다. 시사들이 햇불을 밝히고 제미를 단지에 담아 들고 재유사들이 그 뒤를 따라 진도문(進道門)으로 나가 ‘열정(冽井)’ 우물로 간다. 단지에 물을 부어 흔들어 씻어 내는데 불결하다고 하여 손을 대지 않으며, 씻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수를 세는데 첫 번째를 ‘새로’라고 하며 두 번째부터는 ‘둘’, ‘셋’ 등으로 불러 아홉까지 세며 그때마다 재유사 5명이 함께 복창한다. 이는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1975년 안동댐 축조 이전에는 강변으로 나아가 배를 타고 중류에 이르러 제미를 9회씩 정세(精洗)하였다.

석미가 끝나면 즉시 돌아와 진도문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던 제관들은 남쪽부터 순서대로 서서 이들을 맞이하고 재유사가 제미를 전사청에 환봉(還奉)하면 서있던 자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북쪽부터 순서대로 서 있다가 재유사가 돌아오면 정읍례(庭揖禮)를 행한 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에서는 여타 서원과 달리, 성생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간례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필암서원의 사당인 우동사(祐東祠) 앞에는 계생비(繫牲碑)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는 춘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는 비석으로, 전면에는 ‘필암서원계생비(筆巖書院繫牲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향사 준비 절차의 하나로 제관들은 계생비에 묶인 가축의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향례 2일전에 유사는 서원 내외를 청소하고 1일전에 생간례(省看禮)를 계생비 앞에서 시행한다. 이때 헌관은 생(牲)의 남북향으로 서고 대축이 생(牲)의 동서향으로 서면 장생(掌牲)이 물을 세 번 붓고 찬인(贊引)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세 바퀴를 돌면 대축이 따라 돈 다음 대축이 헌관 왼편에서 ‘충(充)’이라 고하면 헌관은 ‘돌(膂)’이라 답한다. 일반 서원에서는 성생단에서 주로 생간례를 시행하나, 필암서원에서는 이와 같이 계생비에 가축을 묶어놓고 생간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에서는 유사가 충(充)을 고하는데, 필암서원에서는 대축이 하고 있음도 특이하다.

그리고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도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청사에서 제복을 입고 행한다. 별도로 대축의 위치를 여러 제관이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하는데, 대축이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를 탁자 위에 놓고 조항마다 호칭을 한다. 알자가 제물을 받들어 여러 제관 앞으로 돌면 제관은 읍을 하고, 대축은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알자는 제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끝나면 제관은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가 읍을 하고, 축은 장찬(掌饌)을 이끌고 제물을 받들어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는 향교 석전에 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진설은 1보 1궤, 4변 4두로 하고, 전폐례를 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서원은 주향(主享)에만 독축을 하나, 필암서원은 배향위(配享位)에도 별도의 독축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례를 마친 후에 분포례(分脯禮)도 별도로 봉행(奉行)한다. 절차는 헌관 이하가 청절당(淸節堂)에 차례로 좌정하면 알자(謁者)가 작은 상(床)을 하나씩 모든 제관 앞에 놓고 조육(胙肉)을 올리면 제관은 읍을 하며 받는다. 또 찬자(贊者)가 청주 한 잔을 올리면 헌관 이하가 다 같이 마신다. 그리고 나서 전원이 일어나서 동서로 마주하여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다시 앉아 백록동학규를 돌아가며 읽는다.

□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도동서원의 강당인 중정당(中正堂) 옆에는 초석 위에 넓적한 사각 석판(石板)을 엮어 만든 별도의 성생단(省牲壇)이 있어 이곳에서 성생례를 행한다. 춘추향사는 다른 서원과 달리 축시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거행하는데,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고 초헌관이 삼상향과 전폐례를 봉행한 뒤 바로 초헌례를 봉행한다. 그리고 헌작 때 삼폐주(三祭酒)를 해서, 다른 서원에는 없는 모사(茅沙)가 향합 옆에 있다. 도동서원에서는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종헌례 후에 헌관들이 모두 배위로 나와 재배를 한다.

음복수조례에도 음복위로 나아가 음복과 수조 다음에 재배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자리에 있는 모든 참사자가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망요례도 독특하게 사당 서편 담장 중간에 사방 벽돌 2개 크기로 구멍을 낸 감(坎)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축문 및 폐백을 태운다.

도동서원의 향사는 일반 서원과 다른 행례 내용도 보이지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주향(主享)인 김굉필에 대한 묘제를 후손이 아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서원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강 정구가 무이고사(武夷故事)를 인용해 서원 뒤에 있는 묘소의 춘추묘사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하고, 조정에서 묘소를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한 이래로, 이 서원의 유사들은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주향인 김굉필의 묘소에서 춘추 묘제를 지냈는데, 7년 전부터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묘제 날 아침에 유사들은 묘소 앞에 모여 차일을 치는 등 묘제 준비를 한다. 진설은 서원 향사와 일반 묘제의 제수를 같이 쓰고 있다. 즉 과일은 대추, 밤, 잣, 과자, 연실(蓮實), 감, 채소는 부추, 미나리, 무, 포해는 어포, 육포, 젓갈, 탕은 어탕과 육탕 각 두 그릇, 국수와 떡과 식초 등을 올리는데,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진설을 마치면 서쪽의 김굉필 아버지 묘제를 봉행한 다음에 김굉필의 묘제를 봉행한다. 절차는 일반 묘제와 같은데, 밥과 국을 올리지 않기 때문

에 헌작 후에 유식례 없이 바로 사신재배를 한다.

그리고 다른 제례에서 시행하지 않는 준례(餽禮)를 행하고 있다. 묘제 봉행 후 준례는 묘소가 아닌 서원 강당에서 행한다. 먼저 중앙의 소반 위 잔에 술을 부어 놓고 대축(大祝)이 모든 자리를 향하여 재배를 하고 잔을 비운다. 그리고 대축이 다시 잔에 술을 부어 초헌관 앞에 놓고 초헌관과 맞재배를 하며, 또 잔을 비우고 아헌관 종헌관 등 모든 집사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린다. 대축의 순배가 끝나면 집례가 대축과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고, 집례의 순배(巡杯)가 끝나면 초헌관도 대축이 행한 순배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는 것으로 준례를 끝마친다.

□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병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소수서원과 같이 계월(3월과 9월)의 상정일에 행하는데, 축문 작성은 옥산서원과 같이 존덕사 사당에서 행한다. 집사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당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쓴다. 대축은 북향하여 축문을 쓰고, 초헌관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이를 감독한다. 축문을 작성한 후에는 향사에 올리는 제물을 제기에 올리기 전에 초헌관 및 재유사가 4인의 입회 하에 근봉 의례를 행한다. 제물 봉치는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면서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근봉한다. 근봉한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열어볼 수 없다. 제물 근봉이 끝나면 사당으로 옮기는데, 이 때 초헌관을 비롯하여 모든 제관들은 사당 아래에 2열로 도열하였다가 제물이 사당 중문을 통해 들어갈 때 읊으로 예를 표한다.

병산서원의 향례 절차는 도산서원과 같이 전폐례가 없고, 주향위에는 삼헌 및 독축을, 종향위에는 독축 없이 단헌(분헌례)을 한다. 종헌례에 종헌관과 분헌관(分獻官)이 함께 올라 종헌관은 주향위에, 분헌관은 종향위에 헌작을 하게 되는데, 분헌관이 헌작에 앞서 종향위에 삼상향을 하는 것이 다른 서원과 다르다. 또한 병산서원의 망예례(望瘞禮)도 특징적인데, 초헌관이 음복례로 수조를 마치면 대축이 돼지 귀를 축문에 쓴 다음 망예례를 위해 사당 서편 지정된 곳에 설

치한 감(坎)에다 묻고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향사 절차를 모두 끝내고 참사자들이 음복례를 행하기에 앞서 이번 향사가 절차상 실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병산서원에서는 이것을 제사공론(祭祀公論)이라 한다. 진행은 글씨를 담당하는 조사(曹司)가 하는데, 집사 중에 나이가 어린 순서로 3인을 택하여 먼저 “제사공론 합시다.”라고 말하면 “제사에 결례는 없었습니까.”라고 물어본다. 공론이 다 오고가면 “제사공론 파합시다.”라고 한다.

□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무성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지내다가 봄 향사 1회로 축소되었다. 향사 이틀 전에 장의들이 입재하여 집사를 정하는 분방(分榜) 의식을 행한다. 다음날 시장에 가서 희생과 폐백 등 제수를 구입하는데, 주향위와 배향위의 제물은 주향위에는 소나 돼지 머리를 놓고 배향위에는 고기를 올리는 등 희생에서만 차이가 난다.

향사가 시작되면 준비한 제물을 가자(架子)에 담아 현가루부터 사당까지 중앙의 문을 통과하여 운반한다. 제수가 통과하는 길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이때 다른 서원과 달리 신도 양쪽으로 드문드문 황토를 깐다. 이는 황토를 깐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성서원의 향사에서 특이한 것은 1보 1궤에 4변 4두를 진설하고, 시성(豕腥) 옆에 형염(刑鹽)이 더 있다는 것이다. 형염은 향교 석전의 8변, 또는 남한산성 현절사의 4변에 올리는 제수의 하나인데, 희생 옆에 형염을 놓는 것은 집안제사의 적(炙) 위에 소금을 올려놓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성서원지』의 홀기에 따르면, 향사 절차는 상향례와 초헌례가 구별되지 않고, 상향 후 전폐례를 행하고 바로 초헌례를 행한다. 최치원과 신잠 2위가 주향이었던 당시에는, 주향에만 독축을 하고, 나머지 배향 5위에 대해서는 독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복수조와 철변두(撤籩豆) 다음에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여년 전에 최치원만 주향으로 하고, 신잠을 배향으로 하면서 주향위에만 독축을 한다. 그리고 종헌 및 음복례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하고, 철변두(撤籩豆) 다음에는 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고 유생 모두가 재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

돈암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앞두고 장의회의를 여는데, 이때 원장, 총무장의, 재무장의 등 임원진 10여 명이 모여 향사를 진행할 제관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망기에 해당하는 천장(薦狀)을 만들어 각 제관 집으로 보낸다. 제물은 재무장의 등이 향사 2-3일 전에 장에 가서 장만한다.

돈암서원의 규약은 의례를 준수(遵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어 있다. 의례준수를 위하여 사전 사후의 제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여 결례 없이 봉행토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돈암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진설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진설은 1보 1례이고, 3변 3두이다. 제수도 변(邊)에 녹포(鹿脯), 황율(黃栗), 능인(菱仁)을, 두(豆)에 녹해(鹿醢), 무(菁菹), 부추(韭菹)를 올린다. 녹포는 우포(牛脯)로, 능인은 개암(榛子) 또는 잣(柏子)으로 대용할 수 있고, 녹해는 토해(兔醢)나 치해(雉醢), 어해(魚醢)로 대용할 수 있다. 생(牲)은 돼지 혹은 염소로 한다. 3변 3두도 특이하지만 제수에서도 능인을 쓰는 경우와 능인이 없으면 개암으로 대용한다는 것과 녹해가 없으면 토해나 치해로 대용하는 것도 다른 서원 의례에서는 찾기 힘든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돈암서원의 향사 절차에서 특이한 것은 향사를 시작하기 전 사당의 신위 앞에서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내사연(벼루)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놓으며, 옥 등잔에 불을 밝히고 제향을 봉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례가 끝난 후에도 양성당 앞에서 선 채로 둘러서서 직일공사(直日公事)를 한다. 직일공사란 초헌관이 직일에게 행사 진행에 대해 감사를 받는 일을 말한다.

9개 서원별 향사 비교표

	陳設	就位	上香	初, 亞, 終獻	飮福受胙	撤饌豆	望瘞	행례 동선	비고
소수 서원	1보1궐 4변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樂正(道東曲) 獻官皆再拜	獻官以下皆再拜	在位者皆再拜	望瘞 禮畢	中入 東出	3, 9월 상정
도산 서원	1보1궐 4변4두	開幟開蓋後再拜 獻官再拜	上香	讀祝(主享)	獻官皆再拜(以下再拜)	在位者皆再拜	望瘞	中入 東出	2, 8월 중정
옥산 서원	1보1궐 4변4두	開幟後再拜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開簾簋蓋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獻官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東入 西出	2, 8월 중정
병산 서원	1보1궐 4변4두	再拜後開幟 開簾簋 獻官皆再拜 請行事	上香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在位者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閉幟	東入 東出	3, 9월 상정
도동 서원	1보1궐 4변4두	開幟後再拜 請行事 獻官以下皆再拜	上香 奠幣 三祭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初獻官再拜 在位者再拜	獻官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東入 東出	2, 8월 중정 墓祭 ²
남계 서원	1보1궐 4변두	開幟 請行事 初獻以下皆再拜	上香 奠幣 再 拜 三祭	讀祝(主享, 配 享) 再拜	再拜後啐酒 受胙後再拜 在位者再拜(初 獻不拜)	初獻以下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2, 8월 중정
돈암 서원	1보1궐3 변3두	再拜後開幟 啓簾簋 獻官及諸生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獻官及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東入 東出	2, 8월 중정
필암 서원	1보1궐 4변4두	再拜後開幟 啓簾簋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配 享)	獻官再拜	獻官及學生再拜	望瘞 禮畢 闔幟		2월 중정
		再拜後開幟 啓簾簋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配 享) 獻官皆再拜		獻官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東入 西出	8월 중정
무성 서원	1보1궐 4변4두	開幟後再拜 獻官及諸生皆再拜	上香 奠 幣	讀祝	獻官及諸生再拜	獻官及諸生再拜	望瘞 禮畢 闔幟		2월 중정
		開幟啓簾簋後再拜 請行事 三獻官皆再拜	三香 奠幣	讀祝 獻官皆再拜	獻官皆再拜	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闔幟		8월 중정

2. 서원 제향의례 문서자료

· **소수서원** : 享祀禮, 道東曲, 笏記, 安文成公春秋大享圖, 安文成公春秋享圖, 奉安文成公祭文, 祭告文成廟從祀文貞文敬文, 周慎齋先生手筆笏記, 退溪先生親筆笏記, 祭周慎齋世鵬文, 相揖禮, 開接禮, 罷接禮.

· **남계서원** : 朔望焚香禮, 春秋享禮笏記, 祝文, 濫溪書院春秋享禮儀節.

· **옥산서원** : 春秋享祀禮, 享祀笏記, 執事分定記, 延額禮, 致祭, 賜祭, 揭額禮, 祇迎禮, 祭需單子, 御製奉安時節目, 御製祭文. 賜致祭時日記, 賜祭文.

· **도산서원** : 春秋享祀, 謁廟禮, 告由文, 祭文, 賜祭文 還安後行祀時儀節, 賜祭時笏記, 致祭儀笏記, 享禮笏記, 鄉飲酒禮笏記, 賜祭時禮曹儀節, 文成公廟祭笏記, 丹陽禹先生行祀笏記, 陶山書院遣閣臣致祭文. 參拜笏記, 正謁笏記.

· **필암서원** : 春秋享祀, 致祭文, 奉安祭文, 陳設圖, 祭器圖, 禮服圖, 士相見禮圖, 鄉飲酒禮圖, 瞻謁禮圖, 相揖禮圖, 祭器, 祭需, 常享祝, 享祝笏記, 瞻謁禮笏, 相揖禮笏, 士相見禮儀節, 鄉飲酒禮儀節, 鄉約儀節.

· **도동서원** : 享祀笏記, 祇迎禮, 省牲禮, 望燎禮, 主享位墓祭, 餽禮, 飲福受胙禮, 祭文, 庭揖禮, 道東書院 祭文, 笏記[墓祭], 祭儀[金先生祠祭儀].

· **병산서원** : 祭文, 祭物儀式, 祭器, 祭需物目, 屏山書院修巖奉安文,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 屏山書院享祀祝文, 鄭經世祭文, 享祀笏記, 陳設笏記, 奉安錄.

· **무성서원** : 祭禮笏記, 朔望焚香, 相揖禮, 春秋享祀, 獻官執事記, 奉安日記, 武城書院祭物冊, 講習禮笏記, 延額禮.

· **돈암서원** : 享祀禮, 享禮儀節, 奉安禮, 享祀笏記, 陳設圖, 春秋享祝祝文.

12 墓祭 : 再拜, 焚香, 傾酒, 再拜. 初獻 : 盞小傾于地, 獻肉炙, 讀祝, 再拜. 亞獻 : 盞小傾于地, 獻雉炙, 再拜, 終獻 : 盞小傾于地, 獻魚炙, 再拜. 辭神 : 再拜, 撤饌

IV. 제향 의례 가치와 지속·발전 제안

서원의 제향에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삭망(朔望),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謁廟)하여 분향하는 삭망례,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가 있었다. 이러한 제향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1. 제향 인물의 상징·대표성

한국의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제향하는 인물의 상징성과 대표성에 주목, 존송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즉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학맥별 계보를 형성해온 주요한 인물과 그들의 학문을 숭상하며,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학과 교화를 하나의 전통으로 일구어온 지식인들의 전당이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하는 9개 서원에서 제향되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사 및 지성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사람들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대표·상징적인 학맥과, 그들이 이상으로 삼은 인물들을 제향함으로써 그들의 거점과 근거지를 확보하여 지역과 학파에 따른 전통과 독특성을 유지하였고, 지역의 사족문화를 상호 경쟁하며 발전시켰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다른 유적보다도 서원 인물과의 연관성과, 그를 보여주는 지역별·서원별 제향의례 모습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들이 제향하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자, 학맥과 학통의 상징적 인물들이었다. 아주 중요한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서원 제향과 관련하여 서원별로 제향인물을 간략하게 살

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성리학은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의 제향 인물인 안향(安珦)은 당시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성리학과 관련된 주요한 텍스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선구적인 학문인 성리학을 한국 사회에 소개해주었다.

다음으로 지역별 지식인 집단으로 사림(士林) 형성은 도동서원의 제향인물 김굉필(金宏弼)을 기점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하였고, 제자들은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濫溪書院, 1552년 건립)의 제향인물인 정여창(丁汝昌)은 진보적 견해들을 중앙정계에 제시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개념인 이(理)와 기(氣)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관련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제향의 이언적(李彦迪), 성리학 이론을 도설(圖說)로 만든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의 김인후(金麟厚), 그리고 16세기 중반 이기론과 도설을 집대성한 인물은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에 제향되는 이황(李滉)이다. 퇴계 이황은 성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서원의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 이황에 의해 크게 집대성된 성리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6세기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학자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의 역할도 주목된다. 소수서원은 당시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던 주세붕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은 지방관이었던 신잠과 정극인에 의해 건립되어 발전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인재양성과 향촌교화에 있었는데 최치원을 성리학 도입이전의 대표 인물로 제향하는 특이한 곳이었다. 그리고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향약이 마련 운영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17세기에 들어와 성리학은 지방사림의 성향을 결정하는 모습인데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은 16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의 후속 세대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나아가 심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의 류성룡(柳成龍)은 국난 극복의 실천적 지식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遡巖書院, 1634년 건립)의 김장생(金長生)은 실천적 성리학 이론의 전형인 예학의 완성과 건축적 구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신청유산의 제향인물들은 한국에서 성리학이 정착,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서원 제향의례의 가치

한국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제의(祭儀)·제향(祭享)에서 보이는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제례가 한국 서원처럼 강조되지 않았다. 특히 잘 알려지듯 중국과 한국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서원은 제향공간의 규모는 크지만 제향보다는 강학을 중요시하였고, 한국의 서원은 강학공간의 규모는 제향공간보다 규모가 크지만 제향을 더 중시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건축은 건축배치와 공간 형성에서 탁월한 사례를 보여주는 데, 바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지 위에 세워지는 전저후고(前底後高), 강당을 앞에 두고 사묘를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취하였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당과 재사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두었고, 지대가 높은 곳에는 사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었다. 제향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독립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위치하는 곳임을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 정리한 것처럼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는 주세붕과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에서 기획한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건립주체들의 제향 해석에 따라 제향 의례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제향의 절차를

와 내용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별 제향인물의 제향 의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사우에 분향을 하는 알묘와 함께 춘추로 지내는 향사를 중심으로 각 서원에서 중요한 의례로 특성을 마련하고 있다. 서원 춘추제향은 첫날은 제물 준비, 성생례, 집사분정, 사축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향사의 진행순서를 홀기에 따라 향사의 본격 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역사성, 학술성, 고유성, 대표성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역사성** : 우리나라 서원은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의 윤리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풍기 출신 유학자인 안향을 모시는 문성공묘를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식과 홀기(笏記)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쳐 건립되면서 서원의 정형을 대표하며, 조선시대 말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제향 의례가 지속되고 있다.

· **학술성** : 9개 서원은 정기적인 춘·추 향사와 삭망례 이외에 사액, 영정 봉안 등의 고유제와 알묘 등 비정기적인 제례 의식을 기록으로 남겼다. 서원의 제례 기록유산은 그 당시 사회, 경제 및 인적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 광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고유성** : 한국의 서원이 제향 대상을 지역 선현으로 모신 것은 전래된 문화가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정착되는 가시적인 증거이며, 중국 서원에서 보이는 기복적 성격의 민간신앙을 배제한 것은 한국 서원 제향의 순수성을 보여준다. 서원 제향의례 중 대표적인 향사 절차는 취위, 상향, 전폐,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음복수조, 철변두, 망료례, 음복례 순으로 진행되는데, 9개 서원은 학규나 제향 해석에 따라 독자적인 홀기를 제정하여 각 서원만의 독특한 전통을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지니고 있는 제향의례는 특이하고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지역별 서원별로 제향 하는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계승하는 고귀한 의식이며, 제향의 지속성은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국가 지정 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살아남아 오랜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와 전통을 간직한 특별한 성격,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지속·발전 제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국가지정 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보호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400-5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서원이면서,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지녀 주목되고 있다. 제향의례의 경우 성균관이나 향교처럼 통일된 규례로 지역의 각 향교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들 서원은 독자적인 제향의례를 정착, 정례화한 사례로 특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제향 인물의 철학과 실천을 계승하고 지역의 후학과 후손들의 참여로 각 서원의 전통 제향의례를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도 하였지만 특이하게 9개 서원별로 특화된 고유의 제향의례도 진행되고 있다.¹³

그럼에도 이들 서원의 전통 제향의례가 변형되고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간략화 되어 가는 제례가 일반화되어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보인다. 따라서 미래 무형문화 발굴육성 사업으로 이들 서원 제향 무형유산의 원래 전통가치를 재확립하고, 전승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즉 이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의 제향의례 원형보존 및 가치를 확산하였으면 한다.

13 소수서원(도동곡 약장 부름), 남계서원(원회에서 모든 제관 선정, 고두밥(쌀과 기장) 진설), 옥산서원(제향 전 서재에서 夜下 제공), 도산서원(제물 중 생간품, 석미례 시행), 필암서원(계생비 비석에서 생간례 시행), 도동서원(주향자 묘제 봉행 후 강당에서 준례 시행), 병산서원(제향공간과 제물준비 공간 분리, 망예례 시 조육을 축문에 쓴 다음 ㄸ에다 두고 기와 뚜껑을 덮음), 무성서원(신도 양쪽에 부정을 막는 황토를 뿌림), 돈암서원(고종 임금의 하사한 버루와 옥 등잔 사용).

한편 일부 조사가 되기는 하였지만, 이들 9개 서원의 제향관련 기록과 고문서, 유물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는 무형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제향의례의 경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존속시키는 무형 유산으로서 특별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특별한 유산이다. 그리하여 이들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를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원형을 보존하고 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세계유산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 9개 서원들이 무형의 서원제례를 보존하고, 가치를 전승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구체적인 향후 과제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향의례 관련 자료를 좀더 구체적 면밀하게 재조사 정리하여 문화유산 지정가치를 증대시켰으면 한다. 우선 이들 자료는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이면서 내용과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9개 서원별 기록문서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기록문화와 제향』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에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다.

그리하여

- 서원 제향의례 보존 및 가치 전승
- 서원 전통 제례 문화의 조사, 연구, 복원
- 국가 무형유산 지정 제안

하고, 이들 9개 서원의 제례 원형 복원, 그리고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속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할 서원 제례 전승자의 발굴, 향후 계승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도 된다. 아울러 9개 서원 간 교류를 통해 서원 제향 의례와 향후 전승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옥산서원지』, 영남대 출판부,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편-, 1995.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도동서원지』, 영남대 출판부, 1997.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2011, 2012.
-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이동구,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2013.
-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2014.
-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 -현판과 기문-』, 2014.
-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 -고문서, 고서, 책판-』, 2014.
-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 -제향의례-』, 2014.
- 이해준 외,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2018.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2021.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2021.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서원의 로컬리즘』, 2023.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0호, 2000.
-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 고전적』 (국학자료목록집 6), 2006.
-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6.
-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 위원회,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소수서원 도산서원-,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병산서원 옥산서원-,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노강서원 돈암서원-,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남계서원 도동서원-, 2013.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무성서원 필암서원-, 2013.
- 한재훈, 「퇴계의 서원 향사례 定礎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2013.
-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국학연구』 22호, 2013.
- 정승모, 이해준, 최순권,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최순권, 이명진,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개 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집,

2017.

이해준,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백서』, 2020

이해준,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국제학술포럼,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1.

한재훈, 「한국 서원의례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임근실, 「조선 지식인, 서원 향사의례를 지낸다」,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이해준,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성격」, 『한국 서원의 로컬리즘』,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3.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김 무 진

들어가는 말

- I.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제향의례
 - II. 조선사회의 서원 제향의례
 - III. 서원 제향 의례의 역사적 의미
 - IV. 서원 제향의례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조선국가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관료제라 한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앞선 시기보다 면밀해지며 그를 운영할 관료제가 조직되며 정치세력의 구도가 달라지고 그를 운영할 관료층이 새롭게 충원되면서 지배신분층의 재편성이 진행되었다. 중앙집권적 관료제 운영의 절대적 필수요소는 관료의 확보이었다. 이들 관료는 유학을 수업하였으며 공론의 정치를 견인할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다.

종전보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보다 확대되면서 새로운 양반층의 확대 재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관료층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은 확대된 양인층이었다. 이들은 높아진 생산력을 바탕으로 자영 내지 중소지주로 성장할 위치에 다다른 농민들이었다. 이들은 점차 열리고 확대되는 입사入仕의 경로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조선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에 기반한 지식을 수학한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유학이 제시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가치의 전파자들이었다. 이러한 가치의 수학과 전

승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이었다.

그러한 교육기구의 공급은 국가만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사회의 교육기구는 설립주체, 규모, 교과과정, 학습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아울러 교화는 관료층의 양성이라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의 확대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것이었다. 그 두 가지 문제의 접점은 학교기구의 확대이었다. 교화라는 측면에서는 학교기구가 교육대상에서 보다 많은 범위를 포괄하면 되는 것이었다. 교육대상으로 향곡천서鄉曲賤庶나 소민小民이 거론되는 이유이었다. 중앙정부는 「학교사목」이나 「절목」 등을 통하여 기존의 학교제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교화 대상을 확보한다는 양 측면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립 교육기구가 점차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서원이었다.

서원은 조선사회의 지배적 가치이념인 유학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그를 재생산하고 그 질서를 확장하는 사회의 단위 조직 가운데 하나이었다. 서원에 대한 고전적인 평가는 그것이 유학을 전수하고 학습하는 교실이였으며 아울러 그 가치를 앞서 궁구하고 실천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기구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사회에서 배우고 지키고자 하였던 유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리학이었다. 물론 서원에서의 학습 내용이 성리학이라 해서 모든 서원의 향사 인물이 성리학자라는 이유에서 봉사奉祀되는 것은 아니었다. 향사 인물의 학문적 성취 정도만이 유일한 선정 기준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인 덕德이나 그 실천인 절의를 또 다른 기준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있었다.

서원향사는 서원에서의 여러 행례 가운데 하나이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구체적 행위규범의 표현이라면 서원 향사는 유학적 가치관의 행위규범이었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는 이 행위규범을 세우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곧,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야할 의례의 전범인 사전祀典을 논의하여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례서典禮書로 편찬하였다. 개인 차원의 의례는 가례에 집중되었다. 조선전기에는 특히 혼례와 상·제례를 새롭게 조정하고 정리해야 했다. 그 기준이 『주자가례』이었다. 각종의 법령으

로 실천을 강제하고 교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가치의 실현을 유도하고 권장하였다. 역시 각종의 교화서가 편찬되었다. 서원향사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의례 규범인 「오례의」의 향교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가묘제家廟祭와 함께 향촌사회의 중요한 제례로 자리 잡아갔다.

서원의 향사에 관한 자료의 기록 전승은 개별 서원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그에 관한 연구 또한 고르지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원 건립의 배경과 제향 인물의 선정 배경과 이유에 유의하고 향사 의례와 다른 의례와 결합한 양상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자 한다. 불가피하게 기왕의 연구에서 이미 규명한 서원의 일반적 성격을 다시 언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연구에서 서원 및 서원향사의 기본 자료인 홀기가 검토되었으며 각종 의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기에 본고에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흔적의 일부를 확인하여 약간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그를 바탕으로 서원 향사가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검토코자 한다.

I.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제향의례

유교는 인간관계를 규정한다.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의례이다. 의례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상호간에 지키는 행위규범이다. 그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례가 적용되는 절차나 사건의 성격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위상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흔히 일생의례로 관혼상제례를 말하는데 그에 따라 의례의 내용은 규정된다. 또한 그 의례를 준용하는 당사자의 위상이란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상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적용하는 의례의 내용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교에서의 의례는 의례를 준용하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군신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등 다양하다.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그러한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사이도 규정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망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망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망자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상례부터 나타난다. 상복이 달라지고 상복의 차림새가 달라지고 상례에의 참여 정도가 달라지고, 슬픔을 나타내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의 슬픔에 대한 표현은 망자를 대상으로도 하지만 망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감정의 교류이기도 하다. 평소에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도 망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다른말로 하면 망자가 매개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는 상례는 망자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례는 또 다른 관계의 확인이다. 제례는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산자와 죽은 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이었다. 제례는 군신관계, 사제관계, 가족관계 등 생전의 관계를 본질로 하는 그 의례의 변형이었다. 상례에 참여하였던 일부의 사람들이 제례에 참여한다. 서원 향사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 관계의 매개가 다르듯이 각각의 관계에서 형성된 다른 제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적 차원의 유교적 가치규범의 확산이나 개인의 유교가치관의 정립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도 하였다. 『국조오례의』와 같은 국가적 사전에서나 개인 차원의 상제례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역대시조歷代始祖 제향은 그러한 접점을 보여준다. 선조부터 국가 사전의 정비 과정에서 시조묘 제사가 거론되고 조정되었다. 시조묘는 추원보본追遠報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현, 역사계승과 정통성을 천명하는 의미이었다. 그러한 시조묘 봉사에 대한 것도 법령으로 뒷받침 되었다. 시조묘는 국가적 사전으로 규정되면서 공제公祭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는데 다른 한편 그것은 사적인 제사 곧 사제私祭의 보다 넓은 실행에 의해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유교적 가치관의 실천인 의례이고 좁혀서 말하자면 그 중에 제례이

었다. 국가의 제사가 대사·중사·소사로 나뉘어 규정되었다면 사적인 제사는 가묘제의 운영에 집중되어 실행되었다. 사립 시설인 서원에서 행하는 서원의 제향 의례는 국가의 공적 의례인 향교의 석전과 학교 의례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면서 공제가 사회 일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

1. 국가 사전祀典의 정비와 공제公祭

조선전기 조선사회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나 개인은 각각의 입장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그것에 반응하고 작동하였다. 국가의 유교화는 통치의 측면에서는 예치禮治의 문제이었다. 조선국가가 지향하는 유교가치의 실현이 곧 예치이었고 그에 따른 국가와 개인의 행위규범을 고민해야 했다. 유교라는 사회 운영의 원리가 지향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여러 관계를 유지하는 질서는 궁극적으로 유교가 지향하는 가치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에 각각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규범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었다. 유교적 가치의 행위규범은 바로 예이었기에 국가적 차원의 의례규범이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했다.

국가는 왕실의 제사를 비롯하여 국가 내의 여러 종류의 제례를 정비하여 국가사전國家祀典을 마련하였다. 오래를 정리하고 그 실행에 따른 여러 행례의行禮儀를 규정하였다. 1411년(태종 11)에 제향 때의 재계[祭享齋戒]를 논의하였는데, 이때에 종묘 제사의 제의를 정하였다.² 이와 같은 일은 각종 의례를 실행해야 하였던 선조 이래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 「제사재계법諸祀齋戒法」 등 여러 종류의 사의祀儀를 정리하고³, 1448년(세종 30)에는 「건관행례의遣官行禮儀」를 정비하였다.⁴ 1460년(세조 6)에는 「친제의親祭儀」를 마련하였다.⁵

1 권삼문, 2001.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제12호, 50쪽.

2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11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27일.

3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1월 29일.

4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3월 18일.

5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7일.

그 과정에서 오례의가 정비되어 「국조오례의」로 『실록』에 수록되고 후에 독립적으로 『국조오례의』로 편찬되었다.⁶

또한 제례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례 준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사의 예를 구분하여 천신天神에게는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하였다.⁷

제사는 대·중·소사로 나누어 사직, 종묘, 영녕전의 제사가 대사이었다. 중사는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악嶽·해海·독瀆,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雩祀와 문선왕, 역대시조의 제사이었다. 소사에는 영성靈星, 노인성老人星, 마조馬祖, 명산·대천, 사한司寒,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마제禡祭, 영제榮祭, 포제醕祭, 칠사七祀, 독제蠹祭, 여제厲祭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몇 기고祈告와 왕실 관련 몇 속제俗祭 그리고 주현의 사직, 문선왕, 포제, 여제, 영제가 해당되었다.⁸

위에서와 같이 국가에서는 주요 산·바다·강의 신뿐만 아니라 풍운뇌우를 관장하는 신, 농경과 관련된 선농, 선잠, 영성, 그리고 목축을 가르친 선목, 장수를 의미하는 노인성에 이르기까지 제사 대상이 매우 다양하였다. 그것은 보다 풍부한 자연의 이용을 보장받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한겨울과 초봄에 추위를 관장하는 북방의 신으로 현명玄冥이라 부르는 사한司寒을 섬겨, 사는 자연환경이 사람들에게 보다 이롭기를 원하였다. 위에서

6 姜制勳, 2015. 朝鮮初期 國家儀禮 정비의 지향과 원칙 - 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68, 144쪽에는 조선 전시기 의례정비의 큰 열개를 제시하였다. 조선국가의 예치와 의례의 정비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예제의 정비에 주목하였으며 그에 관한 법령의 정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깊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의례에 관한 연구는 강제훈, 2021.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 『한국사학보』 제82호 주 6)과 7)에 제시한 연구논저들과 다음의 저서들이 참고된다.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한형주, 2002,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김혜영, 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李範稷, 2004. 『朝鮮時代 禮學研究』, 국학자료원; 이욱, 2009,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한형주의, 2009.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7 『國朝五禮序例』 卷之一, 「吉禮」, 辨祀.

8 『國朝五禮序例』 卷之一, 「吉禮」, 辨祀.

보듯이 공자에 대한 제시는 성균관의 중사와 주현의 소사가 있었다. 이 주현 곧 향교의 석전이 서원 향사의 기준이 되었다. 서원은 이보다 격을 낮추어 제를 지내는 것이었다. 『경국대전』에도 그와 같은 것이 규정되었다.⁹

조선시대에 편찬된 국가전례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는 『세종실록』의 『오례五禮』와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가 있다. 이중에서 『세종실록』의 『오례』는 필사본으로만 작성되었지만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는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일반에 보급되었다.

1410년(태종 10) 8월에 태종은 궁중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 허조許稠 등에게 명령하여 길례吉禮 의식을 정비하게 했다. 의례상정소는 1416년에 「제사서례諸祀序例」를 작성함으로써 길례에 대한 정비를 일단 마무리했는데, 이 내용이 『세종실록』의 『오례』에 수록되었다. 『세종실록』의 『오례』는 태종·세종대에 정비된 국가전례를 수록한 것으로 1451년(문종 1)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국조오례의』는 1473년(성종 4) 무렵에 편찬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474년(성종 5)에 신숙주·강희맹 등이 왕명에 의하여 편찬한 『국조오례의서례』는 오례의 의주를 실제로 집행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와 도설로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이었다.

또한 『국조오례의고이國朝五禮儀考異』가 있다. 이 책은 『국조오례의』의 고이考異를 정리한 것으로 오례의의 명목과 절차를 변증하였다. 『국조오례의고이』의 간행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권수卷首에 수록된 글이 『국조오례의』와 같은 것으로 보아 『국조오례의』가 간행된 1475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조선후기에는 『국조오례의』를 보완하는 예서들이 속간되었다. 『국조속오례의』(1744[영조 20]), 『국조속오례의서례』(1744[영조20]),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1751[영조 27]), 『국조속오례의보서례』(1751[영조27]), 『국조상례보편』

9 『經國大典』 禮典 「祭禮」, “凡祭祀日期, 本曹先期三朔啓聞, 移文京·外各衙門. 中略. 文宣王, 春·秋仲月上丁. 文宣王朔望祭, 竝以略禮行”.

10 김문식, 2009.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藏書閣』 제21집, 99쪽.

國朝喪禮補編』(영조대)이 간행되었다. 유의양(柳義養, 1718~?)이 왕명으로 편찬한 『춘관통고春官通考』(1788[정조 12])가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가체제가 제국으로 바뀐 것에 맞추어 『대한예전大韓禮典』이 편찬되었다.

조선후기에도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여러 종류의 예서들이 편찬되었다. 신의경(申義慶, 1557~1648)의 『상례비요喪禮備要』는 1620년(광해군 12)에 김장생이 증보하고 1648년(인조 26)에 김집이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김장생은 1685년(숙종 11)에 『가례집람家禮輯覽』을 간행하였다.

조선후기 가례서뿐만 아니라 가제家祭만 별도로 정리한 수종의 가제의家祭儀 글들이 나왔다. 이선(李選, 1631~1692)의 「이씨가제의李氏家祭儀」(『芝湖集』 卷之六, 跋「李氏家祭儀跋」), 송징은(宋徵殷, 1652~1720)의 「가제의식家祭儀式」¹¹, 김흥락(金興洛, 1827~1899)의 「가제의家祭儀」가 있다.¹²

그리고 이지영李祉永의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1810[순조 10]) 필사본이 있으며 류장원柳長源의 『상변통고常變通考』(1830[순조 30])가 간행되었다. 『상변통고』는 별도로 학교례를 수록하였으며 서원 항목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였다. 그 서원 항목은 서원 건립의 역사이었다. 이재(李緯, 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도 후손들에 의해 계속 수정되다가 1844년(헌종 10)에 간행되었다. 1792년(정조 16) 간행된 이의조(李宜朝, 1727~1805)의 『가례증해家禮增解』는 이의조가 가학으로 물려받았던 가례의 학적인 연구성과와 이재로부터 전수된 예학의 계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한 『가례』의 해설서이었다.

2. 『주자가례』의 보급과 사제私祭

『주례』는 통치의 틀을 세우는 데 기준과 전범이 되었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규범은 『주자가례』를 준

11 『約軒集』 卷之十, 雜著「家祭儀式」.

12 『西山先生文集』 卷之十四, 雜著「家祭儀」.

거로 삼았다.¹³

『주자가례』는 조선전기에 넓게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정구는 1611년(광해군 3)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의 서문을 쓰면서 덧붙이기를 ‘『가례』로 말하면 이미 당대에 성행하는 책으로, 어느 집이든 없는 집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익히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라 하였다.¹⁴ 정구는 예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예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주자가례』를 제외한 기존의 예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예제는 각종의 예설을 이해한다고 정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가장 중심이 되는 법전에서도 예치를 법으로 뒷받침하였다. 『경국대전』의 「예전」을 정비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각종의 의례와 관련된 교령을 반포하였다. 사적인 가례의 혼례나 상제례가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점차 내용이 증보되는 교령들에는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조항 등이 지속적으로 등재되었다.

관혼상제가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교화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인 ‘위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를 본받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예치의 현실에서의 모습이였다. 국가는 한편에서는 지향하는 가치관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치관에 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예치를 덕정德政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형정刑政에 의한 강제가 포함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각종의 신앙체계 등이 음사로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서 나타났던 신앙 행위를 정비된 국가의 사전祀典 체계 안에 수용하기도 하였다.¹⁵

13 임민혁, 2000.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80(23권 3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5.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해안.

14 『寒岡集』 제10권 序, 「五先生禮說分類序」, “若家禮之書. 夫既盛行於當世矣. 家無不有. 人無不講.”

15 韓祐勳, 1976. 「朝鮮王朝 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 祀祭問題를 中心으로 -」, 『韓國史論』 3.

그러한 가치를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포장褒獎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견인과 권장을 하였다. 그러한 가치관을 지킨 절의자, 혹은 선정신, 선현들을 포장하였으며 때로는 정표정책과 같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실하게 알렸다.

그와 같은 예치의 중심에는 군주의 예치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예제의 정비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되는데 다른 한편 조선국가에서의 통치구조에서의 군주의 위상이 그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가 군주이고 군주의 그러한 행위를 건극建極이라고 하였다. 물론, 군주의 건극은 유교가치관의 근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시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직접적인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안하는 것이 군주이었다. 덕정은 스스로 도덕적 인물로 모범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예제정비의 배경에는 군주에 대한 조선사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1) 예서의 보급과 교화

1346년(충목왕 2)에 권부權溥가 편찬한 『효행록孝行錄』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윤리서이었다. 『효경』이 유교적 효윤리孝倫理에 관한 본질적 이념을 담고 있는 경전이라면 『효행록』은 효윤리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서이었다.¹⁶

『효행록』은 개정되어 편찬되기도 하였다. 1405년(태종 5) 권근은 여름 휴가 중에 계림鷄林에서 새로 발간한 책을 보았는데, 글자가 틀린 것을 고치고 장章마다 주해를 붙여서 개정하였다.¹⁷

세종은 『효행록』을 새롭게 편찬해서 보급하고자 했으나 실제 편찬된 윤리서

16 김훈식, 2017. 「朝鮮前期 倫理書 보급의 변화」, 『코기토 81』.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12월 25일, 「完南府院君 李厚源上劄」.

17 『陽村先生文集』卷之二十 序類, 「孝行錄後序」.

는 『삼강행실도』이었다. 1434(세종 16)에 이 『효행록』을 대체하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고, 이후 이 책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윤리서가 되었다.

『효행록』에 담긴 유교 윤리는 경순론敬順論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윤리였다.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것은 『효행록』에는 담기지 않았던 절의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시기적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서가 편찬되었는데 1465년(세조 11)에는 『오륜록五倫錄』을 찬집하였다. 세조는 그간의 윤리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였다. 충효의 도리는 『논어』·『소학』에 갖추어져 있으나 이해하기에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고, 『효행록』은 보기에 편하기는 하고, 『삼강행실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구차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삼강행실도』와 여러 역사서를 상고하여, 오륜에 관계되는 것 수십 조를 찬술하여 번거롭지 않게 구성하라는 요구이었다. 이러한 세조의 명에 따라 『오륜록』은 양성지가 찬진하였으며 그것을 노사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교정하여 찬집하였다.¹⁸

『삼강행실도』에 실리지 않았던 ‘장유유서’와 ‘봉우유신’의 두 가지 덕목을 담고 있는 『이륜행실도』가 편찬된 것은 1517년(중종 12)이었다. 세종 때는 오륜 가운데서 특히 부자·군신·부부윤리의 보급에 관심을 기울였고, 중종 때에 비로소 장유·봉우윤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¹⁹

위의 윤리서들은 조선후기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임란 직후인 1606년(선조 39)에는 예조에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의 인출을 요청하였다.²⁰

위와 같은 윤리서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례서가 간행되었다. 이언적의 『봉선잡의奉先雜儀』도 이러한 사정에서 만든 제례祭禮에 관한 책으로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모으고 우리나라의 속례를 참작하여 편찬해서 보급하려 목관으로 간행하였다. 가묘제가 가장 보편적인 제례로

18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5일.

19 이상 윤리서에 대해서는 金勳埴, 1998. 『三綱行實圖』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김훈식, 2017. 「앞의 글」 등을 참고하였다.)

20 선조실록 199권, 선조 39년 5월 24일.

강조되고 시행을 독려하고 있을 때에 그 제례에 관한 각종 설과 우리의 풍속 등을 정리하여 의식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었다.

(2) 가묘제의 시행

조선국가에서는 삼국 및 고려의 역대시조를 봉사하는 시조묘 건립이 점차 확대되어 갔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개인의 조선봉사祖先奉祀는 가묘를 건립하여 구현하였다. 그것은 고려 이래의 가묘제 시행의 계승이었다. 가묘제는 사제례私祭禮이었다.²¹

고려의 정공권(鄭公權, 1333~1382)이 관직에 있을 때에 가묘제가 폐지되었으나 자신은 제사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 가묘제는 시행되다가 일시 정지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1390년(공양왕 2) 가묘를 세워 관품에 따라 봉사하는 대수를 정하고 삭망에 반드시 제물을 올리고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고하도록 하였다. 사중四仲에 해당하는 달에는 반드시 향식하고 햇곡식을 반드시 바치며 기일에 필히 제사하도록 하였다. 시향 일자까지 규정한 매우 상세한 결정 사항이었다. 이듬해에는 제사의 범위를 증조부모의 기일에까지 확대하였다.²³

정몽주가 처음으로 양반들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워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고 하는데²⁴ 앞서의 정공권의 사례나 『주자가례』를 따랐다고 하는 윤구생(尹龜生, 1317~1381)의 사례²⁵ 등으로 보아 고려 말 가묘제가 일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준 역시 가묘를 두도록 건의하였다.²⁶

21 『春官通考』 卷45 吉禮 「私祭禮」.

22 『高麗史』 卷一百六 列傳 卷第十九 諸臣 「鄭瑨 鄭公權」.

23 『高麗史』 卷六十三, 志, 卷第十七, 禮 五, 「吉禮小祀」. 『高麗史』 卷六十四, 志, 卷第十八, 禮 六, 凶禮, 「百官忌暇」.

24 『高麗史』 卷一百十七, 列傳 卷第三十, 諸臣 「鄭夢周」.

25 『高麗史』 卷一百二十一, 列傳 卷第三十四, 孝友 「尹龜生」.

26 『高麗史』 卷一百十八, 列傳 卷第三十一, 諸臣 「趙浚」.

가묘제는 ‘보본추원지의報本追遠之意’를 표방하고 있기에 신분을 가릴 일이 아니었지만 조선사회에서의 가묘제의 시행은 왕실이나 공신가로부터 시행되었다. 왕실의 왕후 등의 친정의 가묘제의 참석에 따른 전물奠物의 관급을 규정하였다. 가묘의 봉사 대상자가 대진代盡일 경우 별도의 실을 세워 제사토록 하였다.²⁷ 공신에 대한 각종의 시혜적 조치는 이후 여러 예속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전기 가묘제가 보급되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대수가 다하였더라도 신주를 옮기지 않고 한 개의 실실을 별도로 세운다.”는 공신에 대한 불천위 규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⁸

선조 사士와 대부大夫에 따라 대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양반층에 있어서는 종법적 질서 수립의 문제이었다. 또한 봉사 대상의 한정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사대부의 두 아내 이상은 모두 신주를 사당에 함께 봉안하여 제사지낸다.’라는 규정은 처첩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가족 구성의 원칙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²⁹

다시 말하자면 가묘제의 문제는 집안에 사당을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넘어서 처첩제와 같은 가족 구성원칙의 문제, 혼인 이후 사는 곳을 선택하는 거주율의 문제, 조선 봉사에 따른 소종과 대종의 형성에 따른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종전의 여묘제 시행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1392년(태조 1)의 도평의사사의 22개 조목의 상언에도 들어있었으나 조선전기 내내 가묘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제안될 정도로 실행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었다. 가묘제 건립을 법으로 정하고 신분에 따른 시행 기한을 정하기도 하는 등 강제력을 발동하였지만 뜻과 같지 않았다.³⁰ 시행 주장이 강조될 때마

27 『經國大典』 禮典 「致祭」, “宗廟各室王后考妣忌日・四仲月・俗節家廟祭, 官給奠物. 俗節, 則墓所同. ○ 奉祀者代盡, 則別立一室祭之.”

28 『經國大典』 禮典 「奉祀」, “始爲功臣者, 代雖盡, 不遷, 別立一室.”

29 『經國大典』 禮典 「奉祀」, “士大夫二妻以上, 並祔” 喪妻 등의 이유로 재혼한 경우를 염두에 두면 이 조항은 처첩제의 문제와 상충하지 않는다.

30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9,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2월 10일.

다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가묘를 세우면 누구를 모실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고³¹ 직질의 고하에 따라 제사를 모시는 대수를 제한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³² 1429년(세종 11)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가 마련한 「대소인원가묘 제례조건大小人員家廟祭禮條件」은 가묘의 제례 논의가 아직 관원들의 시행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한다.

가묘제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장자를 통한 제사와 종통의 계승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³³ 그에 따라 현실의 문제가 드러났다. 1430년(세종 12) 가묘를 세운 집은 승중하는 종자에게 주도록 법에서 보장토록 하였다.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사당을 포함한 건축물들을 소유한다는 의미이었다. 따라서, 계모繼母나 계조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사당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를 빌미로 사당이 있는 곳의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와 같이 그것은 단지 봉사라는 제사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상속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도 겹치고 있었다. 제사를 주도하는 봉사자는 제위 전祭位田뿐만 아니라 제사공간인 가묘와 가사家舍를 관리하여야 했다. 주제자의 지위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세전世傳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퇴락하고 새로 지을 힘이 없으면 튼튼한 집으로 바꾸어야만 하고 자식이 없다 하여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사당의 유지가 있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봉사자로 결정되는 것은 사당이 있는 집(사당가사祠堂家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차자가 봉사하기로 결정되어 그 가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던 딸이 갈 곳이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경우 딸은 차자가 살던 곳으로 바꾸어 들어가는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총부冢婦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되었든 장자나 중자衆子가 아닌 딸 자식의 경우 이 시기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확산과 그와 동시에 남계男系 중심의 거주율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거주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

31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32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33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18일, 김윤정, 2009.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제14집

한 사회적 대응으로 관련되는 법들이 마련되어야만 하였다. 전기에는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교령집에 등재되고 후기에 가면 『신보수교집록』이나 『전록통고』 그리고 대전류에 등재되었다.³⁴

의례의 변화는 단순한 절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자가례』를 준용하는 친영례 시행의 어려움도 사실 그것이 단순히 혼례절차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 내내 제기된 혼례와 관련된 시행사목들은 대부분 혼례 절차에서 생기는 사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근본적으로 가족 구성의 원칙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혼인에 관한 절목은 1418년(태종 18)의 「혼인사의婚姻事宜」(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일), 1502년(연산군 8)의 「혼인절목」(연산군일기 44권, 연산 8년 5월 28일)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1418년의 「혼인사의」도 역시 복색 등의 문제 곧 혼례에서의 갖춤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로 금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541년(중종 36)에는 「혼인사치금단질」을 만들어 그동안 거론하고 논의하였던 혼인 때의 사치를 금하는 규정을 총 정리하였다.(중종실록 97권, 중종 36년 12월 29일, 「婚姻奢侈禁斷秩」,)

성종, 중종, 명종 연간에도 가묘제의 건립을 독려하고 시행법의 준수 여부를 규찰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일거에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기의 양측적 친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주율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변화의 근저에는 종법사상의 확대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가족 내의 구성원의 위상의 변화, 혼례 및 상제례의 변화, 거주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종법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것이 아닌 문중의 범위에서 적용되었다. 친족 안에서는 종족宗族 개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종

34 『受敎輯錄』 禮典 「奉祀」 374. [長子無後…](1556년, 명종 11년)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當入處有祠堂家舍. 其亡子女息, 無所於歸, 而次子曾居家舍, 元係祖先傳來之物, 則換給亡子女息, 俾不失所, 合於情義, 永爲恒式. 嘉靖丙辰承傳”, 『受敎輯錄』 禮典 「奉祀」 375. [長子無後…](1556년, 명종 11년)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立廟家舍, 法當傳給主祭子孫, 而曾傳長子之家, 已爲頽落, 自備物力改造, 則換給不當, 以此科斷. 嘉靖丙辰承傳”, 『受敎輯錄 禮典』 「奉祀」 376. [立廟家舍…](1556년, 명종 11년) “立廟家舍, 主祭子孫, 世世相傳, 而年久頽落, 無力修創, 與堅固家相換者外, 無後之人, 擅自放賣者, 則一切禁斷 嘉靖丙辰承傳”.

가를 구성하고 그를 중심으로 종과 족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종회, 족계회를 만들어 혈연적 결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족보를 만들어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2. 조선사회의 서원 제향의례

1) 서원의 건립 배경

1549년(명종 4)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감사에게 요청한 퇴계는 서원의 건립 목적, 운영의 특징, 사회적 기능 등을 거론하였다.³⁵

백운동서원은 전 풍기군수 주세붕이 창건하였다.(郡有白雲洞書院者. 前郡守周侯世鵬所創建也) 이후 대부분 서원의 건립 주체가 사인私人이어서 사립의 상징적인 교육기구가 처음 세워진 것은 수령에 의하여서이었다. 향교를 옮기는 등 교학에 관심이 높았던 수령의 학교 교육의 진흥의 연장선에서 서원이 건립되었다.

순흥부는 사문斯文의 선정先正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옛날에 살던 곳이었다.(實斯文先正安文成公裕之故居也) 서원이 세워진 족계는 선현의 유적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다 터를 잡고 서원을 지은 것이었다.(又以竹溪是前賢遺迹之所在. 乃就相其地. 營構書院.) 향사의 대상은 이름난 유학자이며 그가 살던 곳이 서원자리가 되는 것이었다. 사당을 지어 주향과 배향을 모시고 학습과 유식遊息의 공간을 마련하였다.(有祠廟以奉享文成公. 以安文貞公軸. 文敬公輔配之. 而旁立堂齋亭宇. 以爲諸生遊處講讀之所.)

퇴계는 서원을 건립한 이유를 현 교육제의 문제에서 찾았다. 국학이나 향교가 읍내 등에 있으며 한편으로 학령學令에 구애되고 한편으로는 과거科擧를 위한 공부에 치중되어있다는 비판이었다. 서원의 학습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개인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나라의 인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

35 『退溪先生文集』 제9권, 書1, 上沈方伯 (通源○己酉).

之得賢，亦必於此而優於彼也。）

관찰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교화이어서 당연히 이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것은 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라는 군주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한 것이었다.(伏惟閣下任旬宣之寄，崇教化之務，凡係一面利害，亦宜陳達，況此聖世宏模之所關乎.)

서원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배울 곳을 제공하고 사풍士風을 진작시켜 교화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었다.(惟有書院之教，盛興於今日，則庶可以救學政之缺，學者有所依歸，士風從而丕變，習俗日美，而王化可成，其於聖治，非小補也)

서원은 그와 같이 선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존숭을 의미하는 존현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홍학을 중요하게 여기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율곡은 1579년(선조 12) 서원 건립의 목적이 장수藏修와 숭덕보공崇德報功에 있기 때문에 향선생 중에 후학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을 구하여 사당을 세우고 공경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⁶ 서원은 선현이 이룬 학문적 성취를 따라 배우고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를 가능케 한 선현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것이었다. 학덕을 갖춘 선현을 모신 사당을 지어 봉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원을 건립하려면 봉사할 선현이 전제로 되는데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선현은 존재하였으나 서원을 건립한 주체는 그에게서 배운 그 지역의 문도들이 아니고 수령이었으며 사액을 요청한 인물도 수령이었다. 넓게 보아서는 동도同道이었다. 서원 가운데 서원 내에서 과업을 위한 수학을 규제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서원의 건립이나 운영과정에서 관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었다. 소수서원이 입원 자격을 과거 입격자 위주로 규정한 것은 주세붕이 처음부터 서원을 쇠퇴한 관학의 기능을 대신하는, 과업科業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인식한 데 기인한 것이었

36 『栗谷先生全書』 卷之十三，記，道峯書院記(己卯) “書院之設，本爲藏修 而兼舉崇德報功之典，故必求鄉先生可爲後學矜式者，立祠致敬，以興起多士希賢之志焉。”

다.³⁷

서원은 선현이 살던 곳이나 머물던 곳에 세웠다.(凡先賢所居所寓之地) 서원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사당을 둔 교육시설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당을 세워 선현을 봉사하다가 이어서 서원을 세워 두 기능을 갖추는 것을 정한 절차처럼 밟기도 하였다. 이 시기 사당을 갖추지 아니한 서재書齋나 정사精舍와 같은 교육기구도 있던 터에 선현봉사와 강학 기능을 함께 갖춘 서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서원 설립과정을 보고 “영남 사람들은 가묘를 향사로 만들고 향사를 서원으로 만드는데 서로 모방하여 거의 없는 고을이 없다”고 하였다.³⁸ 자신의 조선祖先의 제사를 고을 제사로 만들고 그것을 서원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입사立祠 혹은 입묘立廟 후 건원建院의 절차가 보편화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을 세우는 것은 사당을 세우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소수서원의 사례에서 지역의 수령이 뛰어난 유학자를 존숭하여 유학자와 관련이 있는 곳에 건립하고 또 다른 수령이 사액을 요청하여 사액서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원을 건립하는 배경으로 사회의 여러 측면의 관계망이 작동하였다. 서원을 건립하는 주체는 자연스럽게 서원의 피봉사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서원의 운영과정에서 결정되는 추배는 그 당해 시기의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았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 이해 위에서 서원의 향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원 건립 주체들의 학문적 연관성, 지역적 연관성, 혈연적 연관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원·사는 후손, 문인, 향인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그러한 “원사는 그 제향인의 후손들이 족적 연결과 유대를 유지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제향인으로 대표되는 당색을 지닌 당인의 근거지요 지방 양반들의 향촌 통제의 중

37 金紫雲, 2014.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第58輯.

38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29일, “聞嶺南之人, 以家廟而爲鄉祠, 以鄉祠而爲書院, 轉相倣效, 幾乎無邑無之云, 誠一痼弊.”, 宋楊燮, 1989. 「書院의 祠廟成立過程에 關한 考察」, 『춘천교육대학논문집』 29.

심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⁹

(1) 학문적 연관성, 학연

서원 건립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학문적 계기로 형성된 관계망 곧 학연관계망이었다. 피봉사자인 선현의 문인들이거나 혹은 그 학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선현 혹은 선정의 학덕을 기리고 학문적 성과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소수서원을 건립하면서 주세붕이 안향을 향사 인물로 선정하고 곧 이어 안축과 안보 형제를 배향하였는데 대부분의 서원은 건립하는 당시의 향사 인물은 건립 주체들이 선정하지만 그 후의 추배 인물은 서원의 운영자들이 선정하였다. 그 추배과정에서 곡절을 겪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나 시기가 어떠한 대상인물의 공통점은 학문적 지향이 같다는 점이다. 배향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추배 인물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향 인물과 같은 도학의 수학자이고 전승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학과의 분화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각 학과는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특정 학과의 주요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자신들을 ‘도통’의 계승자로 천명하였다. 이는 해당 서원에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퇴계 사후 퇴계학파가 분화하는 가운데, 각 학과의 재전再傳 문인은 자신들과 연결된 직전直傳 문인을 경쟁적으로 서원에 제향하였다.⁴⁰

(2) 지역적 연관성, 지연

서원 건립의 또 다른 배경은 지역적 관계망 곧 지연관계망이었다. 같은 고을이나 혹은 고을을 넘어서는 특정한 지역적 연관을 내세웠다. 출생지나 혹은 소

39 鄭萬祚, 1997.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312-133쪽.

40 이광우, 2021.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거지所居地 혹은 우거지寓居地를 말하거나 혹은 수령 등의 관력을 가지게된 읍과 같은 연관성이었다. 여기에서 우거는 넓은 범위에서 적소謫所를 포함하였다. 귀양지이어서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었다.

조선시대의 지역단위는 주로 행정단위인 면, 읍, 도 등이었으며 때로는 영남 혹은 호서 등 다양하였다. 이 지역을 여러 경우에 적용하였다. 지역은 과거급제자나 관인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요소이기도 하였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거론될 때에 범죄자의 출생지와 소거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였다. 때로는 출생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고 있는 현 거주지를 문제로 삼기도 하였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될 때에 그와 관련된 곳이 함께 처벌되었다. 예를 들어, 범죄자와 관련된 고을을 10년간 강등시키고 그 고을 출신들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는 정거停擧하는 처벌이 있었다.

① 지역정체성과 지연관계망

일정한 지역에 사는 지역인이 지역적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각 읍이나 일정 지역 단위에서 다른 읍이나 지역의 서원 건립에 자극을 받으면서 서원을 건립하였다. 지역 인재의 양성과 지역 교화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기실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촉발되어 자신의 지역에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거한 경우도 있으며 처향 등에 입향하여 누대에 걸친 경우도 있겠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경제적, 인적 지역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특정 읍인 혹은 특정 향인들이 되었다. 예를 들어 동경인東京人, 안동인安東人과 같은 개념이었다. 정체성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군현 혹은 다른 읍 사람이라는 구별이 따랐다. 자신을 특정 지역의 인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② 지역정체성과 행정편제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의 형성에는 행정편제가 또 다른 배경이었다. 국가권력

의 등장 이후 앞 시기의 마을은 단독 혹은 복수로 국가권력의 파악 단위가 되었다. 이 단위가 국가와 관련을 갖는 것은 이 단위가 국가의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가 부세 수취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군사력 징발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을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단위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고대사회의 군현의 등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고려 시기 이러한 군현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위상에 놓였다. 국가와 직접적 연관을 갖는 주읍이 되기도 하고, 국가와의 연관을 주읍을 통하여 하는 속읍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군현들은 일반 군현제 하에 편성되기도 하고 향소부곡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군현민들은 각각의 조건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역사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고려 이래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지방행정편제가 조선시기에 오면서 재편성이 진행되면서 조선사회의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군현민은 각각의 처지에 따라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 조건은 크게 보아 고려 이래의 일반 군현과 속현이었던 지역을 나눌 수 있고 속현이었던 곳도 다시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오랫동안 규모있는 주읍으로 존속한 경우이다. 경주나 성주 그리고 안동과 같은 경우이었다. 둘째는 고려 이래의 주속관계를 가진 지역인데 속현이었다가 주현으로 전환한 경우이었다. 팔거현으로 조선시대에 성주의 소속이었다가 칠곡도호부로 전환한 경우이었다. 셋째는 속현이었다가 먼 곳의 주현이 아닌 인근 읍에 재편성된 경우이었다. 내성현奈城縣은 안동부에 속한 현이었는데 조선 시기에 봉화와 영주로 편성되었다.

첫째, 주읍들은 도회소나 진영체제의 진영 설치지역 등으로 이용되면서 이웃 고을보다 규모가 크거나 중핵적인 곳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읍민으로서의 인식이 강하였다. 예를 들어 영장읍營將邑인 진주, 상주, 안동, 대구, 경주나 도회관으로 꼽는 성주, 상주, 진주, 안동, 청도와 같은 대응이었다.⁴¹ 행정편

41 『嶺南廳事例』 1권, 奎15233,

제상 대도호부나 도호부와 같은 경우는 물론 함양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범주에 들지 않으나 역사성 있는 읍으로 인식되었다. 경주의 동경인과 같은 사례이다.

퇴계의 지적대로 관학은 도시 안에 설치되고 서원은 향촌사회에 건립한다고 하였지만 그러한 향촌사회의 서원은 비교적 규모가 큰 읍의 외곽에 위치하였다. 이것이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의 영향권역과는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경우 이러한 지역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주향자, 원장 등의 교수자가 범 지역적 인물일뿐만 아니라 원생들이 좁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었다.

둘째, 속현이었다가 주현으로 전환한 경우이었다. 성주에 속하였던 팔거현인은 성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조선시기 행정편제가 재편되어 주속관계가 없어진 상태에서도 일정 시기까지는 팔거가 구분되어 파악되었다. 팔거의 향리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조선후기 팔거는 칠곡도호부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칠곡을 별도의 고을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성주인이 아닌 칠곡인으로 생각하였다. 그 때 즈음이면 인근의 사람들도 칠곡을 독립된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성주, 대구, 칠곡을 삼읍으로 인식하였다. 칠곡은 완전히 독립된 고을 특히 읍격이 높은 도호부로 편제되면서 그러한 정체성 인식의 확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속현이었다가 주현이 아닌 인근 읍에 재편성된 경우이었다. 본디 내성현은 퇴관부곡退串部曲인데, 충혜왕 때 내성현으로 승격하고 조선시대에는 안동부의 속현이었다. 내성현은 봉화에 편성되면서 상당 기간 안동인이라는 인식을 지녔다. 일부 지역은 영천榮川 소속이었기에 이들의 일부는 안동인 혹은 영천인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주속관계에 있던 속현의 주민은 주읍의 사람이라는 강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성현민은 내성현민인 동시에 안동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내성현인의 자각은 안동부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내성현민 정체성 뒤에는 안동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첩적으로 배경

이 되고 있었다.⁴²

조선시기의 행정개편이 이러한 인식 변화를 추동하였다. 특히 속현에 거주하거나 근거로 하는 경우, 행정 편제에서 속현이 없어지고 주읍만 남게되면 속현을 자신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주읍을 자신의 읍으로 생각하였다. 행정편제에서 없어졌지만 생활의 단위로 작동하기도 하는 속현인들은 인근의 읍에 속해있다는 인식보다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주읍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팔거에 사는 사람은 팔거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성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팔거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고을은 성주라고 생각하였다. 선산의 해평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안동의 내성현도 그러하다. 해평 길씨는 조선후기에 선산길씨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동의 내성은 지리적인 위치에서는 봉화 지역이면서 주읍인 안동인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독자적인 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자성을 보이는 이사里社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이사는 곧 향현사이었다. 지역의 인물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지역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앞서 살펴 본 종족의식의 확산, 거주율의 변동 등으로 새로운 곳에 세거하게된 상황이었다. 관향을 보다 넓게 사용하면서 면 단위도 있지만 주로 읍 단위가 본관지로 사용되고 각 세거지에서 입향조를 내세우면서 지역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각 지역에서 문중을 형성하고 파보를 갖게된 종족인宗族人들은 어느 곳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③ 지역 연고와 서원건립

서원에서 봉사하는 인물이 학문적 존숭의 대상이라 하여도 지역과의 연관성을 건립의 이유로 내세웠다. 심지어는 그 고을이 소속된 도의 관찰사이었음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사실 전국적 명망을 가진 인물들은 지역성이라는 것을 굳이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홍학이라는 개념은 지역성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이었다.

42 김무진, 2020. 「노봉 김정(人+政) 선생의 생애와 사상」, 『蘆峯 金正(人+政) 선생의 生涯와 思想』, 제4회 봉화역사인물 학술발표회 발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서원이 지역의 학교라는 성격을 버릴수 없기 때문이었다.

향사 대상자가 선현, 선정신, 공신이라든가 특히 종묘와 문묘종사자라면 지역성은 논외가 되었다. 율곡의 서원은 주로 황해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산황산礪山黃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 청송의 병암서원屏巖書院이 있었던 지역은 제자나 문인들과 연관된 지역이었다. 또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⁴³

대표적인 유자들의 문집에는 「원향록院享錄」이 등재되어 있다. 율곡을 봉사하는 전국 제향 서원도 22곳이 있었다.⁴⁴ 그 가운데 신항서원, 문공서원文公書院, 운전서원雲田書院, 봉암서원鳳巖書院, 문정서원文井書院, 화곡서원花谷書院, 정원서원正源書院, 덕수서원德水書院 등은 사액서원이었다.

봉산의 문정서원은 1681년(숙종 7)에 건립하여⁴⁵ 이이와 김장생을 제향하였다. 1686년(숙종 12) 황해도 봉산鳳山의 진사 양연梁沆 등이 사액 요청을 하였을 때의 근거는 이이가 황해도 감사이었다는 것이고 김장생과 김집이 임진왜란 이후 그 고을에 살면서 문인 자제들과 강습하였다는 것이었다.⁴⁶ 1703년(숙종 29)에 사액되었는데 이때에 김집을 종향하였다.⁴⁷ 1718년(숙종 44)에 강석기를 추배하였다.⁴⁸

안동지역에서 끊임 없이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며 사액 요청이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었다.⁴⁹ 영남에 있는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 중에서 예안의 도산서원, 안동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영천榮川의 이산서원伊山書院, 예천의

43 薛錫圭, 1992.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社會的 基盤」, 『國史館論叢』 第34輯.

44 『栗谷先生全書』 卷之三十四, 附錄 二, 「院享錄」. 紹賢書院, 紫雲書院, 松潭書院, 竹林書院, 莘巷書院, 龜巖書院, 飛鳳書院, 文會書院, 白鹿書院, 驚峯書院, 景賢書院, 屏巖書院, 文公書院, 雲田書院, 龍巖書院, 道東書院, 鳳巖書院, 鳳岡書院, 文井書院, 花谷書院, 正源書院, 德水書院,

45 『東國院宇錄』에는 1693년(숙종 19)에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었다.

46 『서원등록』 숙종 12년(1686) 3월 초7일.

47 『신독재전서』 제16권, 부록(附錄) ○ 연보(年譜) 하, 계미년(1703) 숙종 대왕 29년.

48 『서원등록』 숙종 44년(1718), 5월 26일.

49 『서원등록』 숙종 19년(1693) 9월 24일.

정산서원鼎山書院, 진보眞寶의 봉암서원鳳巖書院, 단양의 단산서원丹山書院은 사액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워 봉화의 서원이 사액 요청을 하였다. 이황이 살았던 고을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문암서원文巖書院은 결국 1694년(숙종 20)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넓은 범위의 인물로 인식하여 지역경계를 의미가 없게 만든 것이었다.

(3) 혈연적 연관성, 혈연

16, 17세기의 서원 건립은 아직은 양측적 친속관계가 유제로 남아있으면서 점차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혈연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종가와 문중이 형성되면서 종족의식 역시 점차 확산되었다. 한편으로는 종회나 족계가 종가나 문중을 확인하고 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조직으로 등장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점차 부계친 중심의 친족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 및 친족 결합모습이 정착되어 갔다. 족원 수가 확대되고 친진과 대진 이후의 조상제사에 대한 대안으로 소종가계의 조직인 종계가 출현하였다. 이는 다시 종족마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가, 선영, 서당 등 여러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들과 분산墳山 및 종토 등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다.⁵⁰

무엇보다도 종법사상을 배경으로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구성의 원리가 변동하고 있었다. 물론 양측적 친속관계의 유제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외손봉사나 화회문기의 처변妻邊 등으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현상화되고 서원은 그 변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존립하였다. 18, 19세기 문중서원의 확장은 이러한 가족관계 운영의 원리, 종족적 질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

50 이해준, 2000. 「朝鮮後期 門中書院의 概念과 性格 問題」,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이해준, 2003.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정승모, 2006.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제23호.

조선국가는 사적인 존재인 문장門長을 국가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연대책임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공신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문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 충의위 단자에는 문장과 적장嫡長이 보거保舉로서 서명하도록 하였다.⁵¹

공신 적장을 일자로 적통을 삼은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속여서 충의에 몰래 들어가려 구전을 내려고 도모한 자가 적발되면 소속된 충의와 적장, 문장은 모두 사목에 의거하여 전가사변하였다. 자신에게 부과된 역을 피하여 불법적으로 혈역 등에 속하는 충의위 등에 모속冒屬하였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원래의 역에 충정되었다. 그 경우 적장·문장·보거인과 향소鄉所가 연대책임을 졌다.⁵²

1735년(영조 11)의 「을묘충의위사목乙卯忠翊衛事目」은 이 시기 충의위 운영에 관한 종합대책이었다, 해당자를 기재한 단자를 수봉하는 조직과 방법 그리고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⁵³ 여전히 공신 자손들의 적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문장의 역할이 존속되었다. 이 시기 즈음이면 확실하게 문중이 형성되고 국가는 이 문중 조직을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문장이 서명하는 그 적籍을 만들기 위하여 거둔 자손 가운데 적장손의 도단자都單子는 각각의 종宗 아래에 기록하였다. 곧 국가의 공신 후예를 파악하는 구분 기준도 종을 강으로 하여 그 아래에 각 지파의 적장들이 기록되는 것이었다.⁵⁴ 이러한 기재 방식은 확산되어가는 종족의식에 따라 관의 문서 작성에서도 종족을 하나의 범위로 파악하였던 것을 의미한다.⁵⁵

51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178. [忠義單子…](1683, 숙종 9) “忠義單子, 門長·嫡長, 保舉着名, 向壁者, 全家徙邊. (康熙癸亥承傳).”

52 『비변사등록』 40책, 숙종 12년 6월 5일.

53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192. [乙卯忠翊衛事目].

54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193. [乙卯忠翊衛事目](1735, 영조 11) “嫡長都單子, 亦爲收捧, 各其宗下, 一一懸錄, 與保單子相准, 無欠然後, 口傳成給.”

55 이상 문장에 대해서는 김무진, 2022. 「조선후기 길재 봉사손 녹용의 역사적 성격」, 『야은 길재의 재인식』 인용.

2) 서원별 건립과정과 향사 사례

서원의 향사를 지내는 주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원의 건립 주도자들에 대하여 유의하며 제향인물의 제향의 이유나 배경 혹은 양상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서원을 동일한 분석틀로 다루지는 않고 각 서원별로 보이는 향사의 특이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⁵⁶

세계문화유산 서원 목록*

서원명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돈암	무성	병산
소재지	경상도 영주	경상도 함양	경상도 경주	경상도 안동	전라도 장성	경상도 대구	충청도 논산	전라도 정읍	경상도 안동
창건	1543	1552	1572	1574	1590	1605	1634	1615	1614
사액	1550	1566	1574	1575	1662	1607	1660	1696	1863
주향	安珣	鄭汝昌	李彦迪	李滉	金麟厚	金宏弼	金長生	崔致遠	柳成龍
배향/ 종향	安軸 安輔 周世鵬	姜翼 鄭蘊		趙穆	梁子澂	鄭述	金集 宋浚吉 宋時烈	丁克仁 宋世琳 申潛 鄭彦忠 金若默 金灌	柳軫

(*출처 : 한재훈, 2017,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 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의 <도표 4> 인용)

(1) 소수서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1542년(중종 37)에 풍기 백운동에 회헌 안향

56 서원의 의례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가 된다. 윤희면, 2000. 「조선시대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 최순권, 2013.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서원학보』 2. 한재훈, 2017.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 9대 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0, 채광수, 2020.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 『한국서원학보』 제10호. 임근실, 2020.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11. 한재훈, 2020.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한국서원학보』 11.

(1243~1306)의 사당을 세우고, 이듬해 1543년(중종 38)에 향교를 고을 북쪽으로 옮겼으며, 사당 앞에 따로 서원을 세웠다.⁵⁷ 1544년(중종 39)에 안축(1282~1348), 안보(1302~1357) 형제를 배향하였다. 1549년(명종 4)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조정에 계문啓聞하여 백운동 서원은 이듬해 1550년(명종 5)에 소수서원이라 사액되었다. 그 뒤 1633년(인조 11) 주세붕을 추가 배향하였다.⁵⁸

소수서원의 향사례는 퇴계가 기존의 향사례를 정리하여 수정한 것이었다.⁵⁹ 행례의 절차를 수정하여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여 준행해야 할 것과 음복飮福과 수조受胙의 차례를 지킬 것과 수조와 철변두 사이에 수희受禧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소수서원에서는 원장이 집안에 흥사나 애사가 있어 복을 입게 되면 서원의 춘추향사를 주관할 수 없다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⁶⁰

(2) 남계서원

『남계서원사적藍溪書院事蹟』에 의하면 1552년(명종 7)에 강익姜翼, 박승임朴承任, 노관盧祿, 정복현鄭復顯, 임희무林希茂 등이 정여창(1450~1504)을 위하여 서원을 세우고 사우를 세우기로 하였다.⁶¹ 정여창은 함양에서 태어나 함양에 안장된 인물이다.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했던 강익(1523~1567), 임훈(林薰, 1500~1584), 오건(吳健, 1521~1574), 노진(盧禎, 1518~1574), 김우옹(金宇頤, 154~1603) 등은 모두 남명의 핵심 문도들이었다. 덕천서원의 초기 원생으로 입록된 정구, 하응도, 박이장, 하훈, 안희, 문경호, 정경운 등도 남계서원에도 동시

57 『竹溪志』, 「竹溪志序」, “明年壬寅大飢. 其年. 立晦軒祠堂於白雲洞. 又明年癸卯. 移建學宮於郡北. 別立書院於晦軒廟前.”

58 소수서원의 창립과 사액과정에 관해서는 申光漢, 『企齋文集』卷之一, 記, 「紹修書院記」(應製)에 정리되었다. 예조판서 윤개尹漑가 신광한(1484, 성종 15 -1555, 명종 10)에게 이름을 짓고 그 뜻을 밝히도록 명하여 白雲洞 紹修書院 이름을 지은 응제문이다.

59 한재훈, 2013.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복대학교 퇴계연구소.

60 송정숙, 2007. 「『紹修書院任事錄』 연구- 16·17세기를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38輯, 113쪽.

61 『藍溪書院誌』 卷一에는 강익의 「연보年譜」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에 입록된 인물이었다. 건립의 주체는 사람들이었으며 지방 수령들의 후원이 컸다. 그 중 정복현·임희무는 함양출신이 아니었다.⁶²

1559년(명종 14)에 완공되었는데 1561년(명종 16)에 묘우를 완성하고 위판을 봉안하였다. 1564년(명종 19) 서원의 재실 건립에는 함양군수 김우홍(金字弘, 1522~?)이 도왔다. 1566년(명종 21)에 경상도 관찰사 강사상姜士尙이 남계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경상도 함양 진사 강익姜翼 등 30여 인이 장고狀告한 것을 보고하였다.⁶³ 종종 때에 이미 정여창이 평일 강도한 장소에 사우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해마다 그 집에 연봉을 주는 것을 영원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는데 당시 강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우를 세우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而以當時無講道之所, 故不立祠宇, 設公祭於私廟, 禮無所據, 而勢亦難行)

그렇다고 하여 그의 가묘에 제사를 드릴수 없다하여 공제를 사묘에 베풀자니 예에 근거할 바가 없을 뿐더러 형편 역시 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정에 품달하지 않고 스스로 바꾸어 모신다면 전일의 가묘와 다를 게 없어 제사지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것이었다.(然若不稟朝命, 而徑自變置, 則無異於前日之家廟, 而同於無祀矣) 그 후 군수 서구연徐九淵이 사우를 건립하고 그 곁에 당재堂齋를 지으려 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10여년이 지나 건립하게 되었다. 사액은 곧 사제를 공제로 성격을 바꾸어 주는 것이었다.

조선사회의 제사는 공제와 사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서원의 향사는 공제이었다. 건립의 주체를 공사립으로 나눌 수 있으나 건립된 서원은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구로 인식하였다. 남계서원의 사액을 요청한 데에는 공사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배경에 있었다.

1605년(선조 38) 위패를 임시로 봉안하였으며 1606년(선조 39) 일도一道의 사

62 남계서원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丁淳佑, 安承俊, 金文澤, 1995. 「남계서원의 고문서」, 『고문서집성24책』 해제. 송준식, 2003. 「남명학과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연구』 15. 윤희면, 2008. 「경상도 함양의 濫溪書院 연구」, 『南冥學研究』 제26집. 김기주, 2016. 「濫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제52집이 참고가 된다.

63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6월 15일, 『一蠹先生續集』 卷之二, 附錄 「濫溪書院請額啓[姜士尙]」.

자士子가 힘을 모아 건립하였는데 병화로 재가 되어 士子 등이 재력을 내어 지방관이 함께 부조하여 중건하고 편액이 없으니 다시 내려주기를 요청하였다. 정여창의 소거향所居鄉을 근거로 사액하였다.⁶⁴ 이 때에 편액을 다시 내려주기로 하였으나 건물 등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15년(광해군 7)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⁶⁵

이 시기 남계서원을 건립하는데 힘을 합하였던 강익과 노진의 향사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노정되었다. 노진을 모시는 신계서원에 강익을 배향하였는데 위차의 문제로 정구와 김우옹의 의견을 들어 병향하였다.⁶⁶ 임란 후 두 서원을 함께 이진하려는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일었는데 정여창이 문묘에 종사되고, 1611년(광해군 3) 신계서원이 다시 건립되면서 일단락되었다.⁶⁷ 신계서원은 1660년(현종 원년)에 사액되어 당주서원滄洲書院이 되었다.⁶⁸

문제는 논란의 와중에 남계서원의 춘추향사에 향사집사를 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호는 이것이 신계서원과 남계서원의 입록된 원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남명을 모시는 용암·덕천·신산 세 서원의 사례를 들어 입록된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향사집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⁹ 아울러 그는 유사시 서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장악이 문제가 있음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의 제안은 서원이 공공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⁷⁰

64 선조실록 206권, 선조 39년 12월 26일.

65 文景虎 『嶧陽先生文集』卷之四, 雜著, 「通諭咸陽士林」 丁巳, “往在乙卯春. 經始改築. 公私齊力. 廟貌重新. 香火有所. 幸莫大焉.” 김기주, 2016. 「濫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제52집.

66 『桐溪集』 제3권, 行狀, 「介庵姜先生行狀」. “만력萬曆 신사년(1581, 선조14)에 고을 사람들이 사당祠堂을 건립하고 선생을 옥계玉溪 노선생盧先生께 배향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당주滄洲에 건립했던 것을 중간에 나촌羅村으로 옮겼다가, 뒤에 신계新溪로 옮기고 나서 이름을 신계서원新溪書院이라고 하였다.”

67 윤희면, 2008. 「경상도 함양의 濫溪書院 연구」, 『南冥學研究』 제26집.

68 『玉溪集』, 年譜 “崇禎後三十三年 我顯宗大王元年 庚子. 上遣官 禮曹佐郎都愼與 致祭于書院. 賜額曰滄洲.”

69 文景虎, 『嶧陽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通諭咸陽士林」 (丁巳)

70 김기주, 2016. 「앞의 글」은 1612년(광해군 4)부터 1685년(숙종 11)까지의 약 73년에 걸친

1634년(인조 12) 신계서원에서 노진과 강익의 병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남계서원은 강익이 초창기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였으므로 정온에게 품정하여 남계서원 별묘에 제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남계서원은 1642년(인조20)에 정온과 성종대의 유호인俞好仁을 별묘에 강익과 병향하였다.⁷¹

1663년(현종 4)에는 남계서원에 정온 배향을 요청하였다.(『서원등록』, 현종 4년 정월 29일), 사액한 이후 합사를 하려는 생각에서 절차를 밟았다. 1675년(숙종 원년)에는 강익과 정온의 배향을 요청하여 1677년(숙종 3)에 정온만이 배향되었다. 1689년(숙종 15)에 강익을 서원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양천익梁天翼 등의 상소가 있었으며⁷² 강익은 그 해 9월에 허락을 받았다.⁷³ 사액서원이라서 절차에 따라 배향을 결정한 것이었다.

1740년(영조 16) 문헌공 정여창의 위패를 분실하였다.⁷⁴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 위패작변인 것으로 보인다. 서원이 정치적으로 노론정권의 인물들과 유착되면서 발생한 일로 여겨진다.

『남계서원지』에서 꼽는 서원의 제향 시설은 묘우, 망예위望瘞位, 신주神廚, 사문祠門, 성생단省牲壇이 있고 강학 시설로는 원우, 장관각, 동재, 서재가 있으며 그밖에 묘정비각과 풍영루가 있었다.⁷⁵

남계서원에는 「춘추향례의절春秋享禮儀節」을 두고 향사를 드렸다. 시일과 재계, 성생省牲, 진설, 학생위學生位, 음복위飲福位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의절에 의하면 집사관, 헌관, 축, 집례, 봉향, 장찬, 찬인, 장생, 영생, 대축, 판진, 사존, 사퇴, 봉로, 봉작, 전작이 참제하고 있다. 실제 「참제록」에는 시기에

남계서원의 기록이 공백으로 비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인홍 혹은 복인정권과의 관련성을 지우기 위한 남계서원의 노력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71 박소희, 2019.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제9호.

72 승정원일기 334책 숙종 15년 윤 3월 9일.

73 『서원등록』, 숙종 15년 9월 19일

74 『서원등록』, 영조 16년 2월 28일.

75 『濫溪書院誌』 卷一, 「書院事實」

따라 조금 다른 직책이 있었다. 이 의절에서 학생 자리와 음복 자리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참제록」의 1888년 추향은 헌관 3인, 대축, 집례, 판진 5인, 찬인 4인, 유사 2인, 전임을 두었는데 1889년의 춘향 이후에는 전임을 전유사라 하다가 다시 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892년의 추향에서는 봉향, 봉로를 두었는데 이후 시기에 따라 이 둘은 출입이 있었다. 연도에 따라서는 집사 혹은 장의 掌議를 두기도 하였다.

(3)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1491~1553)을 제향하는 경주에 있는 서원이다. 옥산서원은 이 시기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제향자의 내외손, 향촌사림, 지방관의 상호협조 하에 건립되었다. 옥산서원은 당시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이 회재의 문인 권덕린權德麟 등 향중사림 13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 임열任說이 예조에 장청狀請하여 1572년(선조 5)에 평소의 장수지藏修之地에 서원을 건립하였다.⁷⁶ 1568년(선조 원년)에 서악서원 별묘別廟에 봉안되어 있었던 위판은 다음해에 이안하여 향사를 행하였다. 1573년(선조 6) 경상감사의 사액 요청에 따라 사액을 결정하였다.⁷⁷

건관치제는 사제賜祭를 통하여 선정신에 대한 존숭의 뜻과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시기에 따라 서원은 새로 유입되는 사상의 오염으로부터 본래의 정학正學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건관치제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근 고을의 인사들이 치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선정신의 후손이 또다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었다.(爲先正子孫者及隣邑人士之來參致祭者)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은 함께 건관치제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1781년(정조 5) 경주의 옥산 서원과 도산 서원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할 때에는, 제관과 사품祀

76 이수환, 1997. 「晦齋 李彦迪과 玉山書院」, 『慶州史學』 제16집 405쪽. 이수환·이광우·박은정·채광수·이병훈, 2018.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77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1월 28일.

品은 연전의 화양서원에 치제할 때의 예에 의거하였다.⁷⁸

1792년(정조 16) 도산서원과 옥산서원 치제 하였으며⁷⁹ 도산에서는 치제일에 시험을 보았으며 정조가 직접 성적을 매겨 뽑았다.⁸⁰

서원 향사의 복색, 행례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은 늘 조율되었다. 특히, 전례서에 충분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발생하면 그에 관한 전례의 모든 지식을 점검하였다. 중국의 예서나 역사서를 통하여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의 속례를 살펴보았다. 공공성을 가지지만 법적으로 국학은 아니었던 서원이 국학 등을 만나면 제일부터 복색에 이르기까지 확인해야 했다.

장현광이 옥산서원의 국학 시의 제례에 관한 물음에 답한 것은 그러한 조율 과정이었다. 여기에서의 기준은 두 경우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이 전대인가 본조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색의 문제로 재복齋服과 제복祭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다. 서악서원과 임고서원은 전대의 선현을 모신 서원이니, 향사의 예를 본조의 선현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곧 옥산서원은 본조의 선현이니 당조의 신하에 맞는 위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원향사의 제복 등은 공통의 관심이었다. 제복은 서원과 다른 향사를 지내는 기구들과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헌은 제복의 선택에 향교와의 위상을 고려하였다. 사제이기에 현실을 고려한 재량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여헌의 자문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⁸¹ 옥산서원은 단헌을 올리고 수조受胙하지 않는 것을 권하였다.

78 이 건관치제에 대해서는 중요 관변 기록에 모두 등재되었다.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4월 23일, 승정원일기 1483책 정조 5년 4월 23일, 일성록 정조 5년 4월 23일, 승정원일기 1484책 정조 5년 5월 5일, 일성록 정조 5년 5월 5일.

79 승정원일기 1701책 정조 16년 3월 2일,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1792) 3월 2일,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3월 3일,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1792) 3월 3일.

80 『홍재전서』 제22권, 祭文4, 「玉山書院致祭文」. 『홍재전서』 제184권, 「군서표기羣書標記」6, 命撰2, 『교남빈홍록嶠南賓興錄』 2권.

81 『여헌선생문집』 제5권, 문목에 답함[答問目] 「又答再稟」.

서악서원은 재계할 때는 소복, 향사 때에는 두 번째의 길복吉服을 착용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복색은 서악서원을 따르는 것으로 제안하였다.⁸²

옥산서원에 정속된 정혜사를 서원의 수호사라 부를 정도로 서원의 경제적 혹은 인적 자원으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서원과 관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정혜사의 정속이 가능했던 것은 창건 시의 경주부윤 이제민의 지원이었으며 그 후 후임 수령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⁸³

(4)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1501~1570)을 제향하기 위해 1574년(선조 7)에 건립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575년(선조 8)에 "도산서원"의 편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1615년(광해군 7)에 월천 조목(1524~1606)을 종향했다. 퇴계와 도산서원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이 높았기에 조정으로부터 술한 건관치제遣官致祭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있었다.⁸⁴

도산서원은 유독 건관치제가 많았던 서원이었다.⁸⁵ 건관치제는 일종의 사제賜祭이었다. 국가가 공신·선현·절의자에게 시호를 내리듯이 제사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 대상은 공신·선현·절의자 등이었으며, 큰 전쟁을 치룬 이후에는 전쟁의 유공자나 전망자가 포함되었다. 때로는 당상관 등 고위관료의 사망에도 건관치제하였다. 혹은 단군과 기자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삼국시조 또는 고려 등의 시조가 그 대상이었다.

사제가 결정되면 임금이 직접 제문을 짓거나 혹은 신하들에게 제문을 지어 승지 등의 근시近侍, 궁관宮官, 홍문관 관원을 예관으로 파견하면서 내려보냈다.

82 『여헌선생속집』 제2권, 書, 「答玉山書院士林」.

83 이수환, 2001. 「書院과 寺院의 관계」,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84 김명자, 2013. 「『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53號. 한형조·최진덕·정수환·정석태·이남옥·황정연·박인호, 2018. 『도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85 도산서원의 건관치제에 관해서는 李炳勳, 2021.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第67輯,가 참고가 된다.

예관의 선발은 이조가 천망단자를 올리고 왕이 그에 대해 비답을 내리는 절차를 두었다. 예관은 봉명치제하는 것이었다. 임금은 제수를 하사하기도 하는데, 치제하러 가는 경관은 향축과 폐백을 가지고 가며 지방관에게 명하여 치제를 돕도록 하였다.⁸⁶ 제사처는 묘소 혹은 제향하고 있는 서원이나 사당 그리고 사망한 지역이나 전망처이었다. 묘나 사당에 제사하는 일반적인 사제는 춘추 제향이었다. 서원의 경우는 사액이 결정되면 건관치제하였고, 춘추향사 혹은 군주의 일시적인 결정에 의해 건관치제하였다.

건관치제는 해당 인물들에 대한 예우이었으며 치제에 따라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정통성의 유지와 천명이 배경이었으며 그리고 그를 주재하는 임금의 왕권 강화가 엿보이는 일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거론한대로 조선 국가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확인이고 선화宣化이었다.⁸⁷ 영조와 정조 시기의 건관치제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도산서원에는 어제 치제문들이 보존되어 있다.

도산서원의 향사는 매년 춘추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에 거행된다. 만약 국기일에 해당되거나 유고有故의 경우에는 하정일에 행하고, 이때도 적합한 날이 없으면 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도산서원의 향사의 기록으로 「의절초儀節草」와 「향례홀기」가 있다. 「의절초」에는 서원 출입시의 복장 등의 일상적 범례, 알묘례와 춘추향사 등의 각종 의례수행의 절차, 조직과 역할 등의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수록되어 있다. 「의절초」에는 축문 작성이 끝나면 유사가 백록동규, 이자향립약조李子鄉立約條, 남전여씨향약을 낭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⁸⁸ 주제는 유생이 말도록 되어 있었다.⁸⁹

예안 관내에 향교와 도산서원, 역동서원이 있어서 각각에 제수를 보냈다. 도산서원이 받은 것을 보면 주향과 종향 몫을 각각 달리 배정하여 지급하였다.⁹⁰

86 『제물등록祭物謄錄』, 「致祭」 장서각 K2-2558, 『치제등록致祭謄錄』

87 김무진, 2022, 「조선후기 길재 봉사손 녹용의 역사적 성격」, 『야은 길재의 재인식』

88 이상 서원향사는 김미영, 2013.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22를 옮겼다. 이 글에서 「의절초」의 경우 작성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89 도산서원 「笏記」, “主人則主祭儒生”, 한국국학진흥원

90 庚申八月十五日粧校院祭物謄錄, 한국국학진흥원) “酒大米三升, 眞曲一圓, 飯大米二刀五合,

이러한 것은 도단위에서도 마련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선혜청의 영남청에서는 제향에 쓰이는 포폐, 지축필묵가 및 교원과 각단의 어림 등의 비용으로 미 1,464석 11두 8승을 책정되어 있으며 사액서원의 폐백가로 매위 10두씩 도합 미 82석, 황축가 매위 1두 6승씩 도합 미 11석 3두를 책정하였다.⁹¹

도산서원의 향사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부담토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섬촌동剡村洞은 포전조布錢條 46냥을 건감해주는 대신 매년 추향시에 돛자리[席子] 3좌를 마련하게 하였다.⁹²

서원에서 준비하는 원비와 함께 군현단위와 도단위인 관에서 준비하는 관비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건관치제하는 경우에는 이것 이외의 별도의 명을 내려 특정 제수를 준비토록 하였다.

(5) 필암서원

김인후(1510~1560)는 1510년(중종 5) 장성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540년(중종 3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하였고 1543년(중종 38) 12월 옥과 현감을 제수받았으며 1545년(인종 원년)에는 잠시 제술관으로 조정에 나아갔다가 돌아왔는데 인종 승하 이후 귀향하였다. 1548년(명종 3)에 순창 점암촌巖村에 훈몽재訓蒙齋를 짓고 학도들을 가르쳤다. 1669년(현종 10)에 문정文靖이라 시호하였다. 1796년(정조 20)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고치고 영의정에 추증하였으며 문묘에 배향하였다.⁹³

1564년(명종 9) 옥과의 유생들이 영귀정사詠歸亭祠를 지었으며, 1570년(선조 3)에는 순창의 유생들이 화산사華山祠를 지었다. 1590년(선조 23)에는 호남 유

黍米二刀五合,” 종향위從享位도 같은 종류 같은 양이라 하였지만 서미가 果田米로 바뀌었다. 제수에 드는 각종의 진찬류들과 종이, 황필, 먹까지 다양하였다. “鹿醢 三升 米一刀五合, 魚醢 上全(향교와 같은 一斗 米五升), 大黃燭 二柄 每二兩半, 中燭 二柄 每一兩半, 乾大口魚一尾, 鹿脯三條, 大棗三升, 柏子三升, 菁苳, 苳 三升, 牲一口, 製布十八尺, 灯油一升, 眞油五合, 祝文紙一張, 草案紙五張, 油紙二張, 弓箭一部, 食箭, 黃筆, 眞墨, 香. 從享位: 鹿脯三條, 苳苳 三升 院備, 柏子 三升 官備, 刺燭十五柄, 草席一立”.

91 『嶺南廳事例』 0001권, 奎15233, 041b-041b면.

92 절목003, 「春間規整條件」, 한국국학진흥원

93 『河西先生全集』 附錄 卷之三, 卷之四, 「年譜」

림(湖南章甫)들이 장성에 사우를 지었으며 문인 변성온卞成溫이 기효간奇孝諫의 금강재錦江齋에 왕래하여 함께 변이중邊以中에게 편지하여 창건하였다.⁹⁴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24년(인조 2) 복원하였으며 1658년(효종 9) 본도 유생 등이 사액을 소청하여 이듬해 허락을 받았다 하는데 정작 ‘필암’ 사액은 1662년(현종 3)에 이루어졌다.⁹⁵

1697년(숙종 23)에 김인후의 사위 양자징梁子徵을 배향토록 상소하고, 1703년(숙종 29) 양자징·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을 추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⁹⁶ 1786년(정조 10)에 양자징을 추배하였다.⁹⁷ 양자징의 추배 추진 시기와 승배 시기를 보아도 짐작이 되겠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었다.⁹⁸

서원의 운영 조직을 보면 필암서원이 장성 고을을 넘어서는 범위를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장을 지역 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원장인 원이院貳와 진신 장의를 도내의 인물로 정하였다.⁹⁹

필암서원에는 「원의절院儀節」을 두었다. 원임이 월삭망분향에 돌아가면서 맡아야 할 것과 춘추석채시 헌관 및 제집사 선정에 관한 것, 춘추향사와 관련한 약간의 일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¹⁰⁰

서원에 향사된 인물의 후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가 서원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별고가 후손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후손들이 유림장의, 유림색

94 『筆巖書院誌』, 「年譜」

95 『筆巖書院誌』, 沿革,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4월 14일. ; 宋正炫, 1981. 「筆巖書院研究」, 『歷史學研究』 10(全南大學校 史學會); 안승준, 1993. 「1745·6년의 筆岩書院 奴婢譜」, 『고문서연구』 4 ; 전형택, 1997. 「朝鮮後期 筆巖書院의 經濟基盤과 財政」, 『全南史學』 第11輯 ; 조상순, 1998. 「筆巖書院 研究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文化財』 第31號 ; 윤희면, 2001. 「전라도 장성 筆巖書院의 정치사회적 기능」, 『全南史學』 17.

96 『서원등록』 숙종 29년 10월 초4일.

97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2월 26일, 승정원일기 1596책 정조 10년 2월 29일.

98 김봉곤, 2014.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韓國系譜研究』 5, 71쪽. 윤희면, 2001. 「앞의 글」.

99 『筆巖書院誌』, 「舊院規」

100 『筆巖書院誌』, 「院儀節」. 『守宗齋集』卷之十, 祝文, 「筆巖書院. 鼓巖梁公春秋享祝文」. 『宋子大全拾遺』 卷之八, 祝文, 「筆巖書院春秋享祝文」, 『河西先生全集』 附錄 卷之二, 「筆巖書院春秋釋菜祝文門人徐台壽」

장 등 향유사를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¹⁰¹

향사는 장의 및 색장이 담당하였으며, 유사는 향사 시 의절을 봉행하였다. 향사는 매년 춘추 2중월 중정에 행하였다. 국기와 겹치면 말정이나 해일을 이용하였다. 향사 1일전 원임이 상의하여 국내 유림 가운데 글을 알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제관으로 차정하였다. 춘추향사의 제관을 원외의 유림에서 선정하였다. 제관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망첩을 보내어 청하였다.

필암서원의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비롯하여 진설, 집례, 축,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사존, 장생, 전사, 세작, 척기, 관세, 찬인, 찬자, 알자 등이었다.

이들의 제복은 유건에 제사 때에 입는 제복齊服을 입고 대대大帶를 두르고 등말滕襪을 한 복색이었다.

필암서원은 음복과 분포를 향사 안의 행례 차례로 규정하였다. 행례에서 학생은 행례의 마지막에 찬인이 이끄는대로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과 함께 재배하였다. 이것을 마치고 망예례를 하였다. 모든 예를 끝낸 후 전사청에 나아가 분포례를 하였다.¹⁰²

참제자 전원은 동서로 서로 향하여 읊을 하고 각각 그 자리로 가서 백록동학규를 읽고 돌아가면서 차례로 강한다. 백록동규 강독을 향사와 결합시켰다.

침알례瞻謁禮와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였다. 침알례는 향약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읍례는 학생을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조사曹司와 반수班首를 두어 진행하였다. 이 때에 「소학제사小學題辭」 및 『대학』과 『중용』의 각수장各首章, 「백록동규」, 「여씨향약」을 읽는데 「사상견례의절士相見禮儀節」, 「향음주례의절」, 「향약의절」, 「향사의절」을 두고 있었다.

「남전여씨향약」이라 부르는 향약의 경우에도 실제 향약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신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예속상교 조항

101 윤희면, 2001. 「위의 글」, 82쪽.

102 獻官以下各就其位◇謁者以小卓各一置諸祭官前◇謁者以胙肉進祭官◇祭官揖而受之◇贊者以清酒一爵進祭官◇獻官以下飲卒爵◇遂興釋祭服), 『筆巖書院誌』, 「典祀廳」[子坐午向一棟二間
○三坪 自官家受祭物臨時保管所]

이 혼인, 상장, 제사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고 받는 문서에 관한 것이고 경조사 역시 구체적인 경제적인 부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謂婚姻喪葬祭祀往還書問慶吊之類) 조직 내의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환난상휼조 역시 해당되는 사안을 적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물贈物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함께 둔 것이 주목된다. 향음주례가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향사례는 그에 비하면 수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필암서원에도 여러 건의 사제문이 전한다. 1662년(현종 3)에 사액에 따른 현종의 사제문이 있다. 1786년(정조 10)에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천행朴天行을 보내어 치제하였을 때의 것, 1796년(정조 20)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면공李勉兢을 보내 치제하였을 때의 내각직제학內閣直提學 이만수李晩秀의 치제문, 그리고 1828년(순조 28), 1855년(철종 6)의 사제문이 전한다.

(6) 도동서원

제향 인물의 지역적 연관을 내세워 관계망을 형성하는 이유나 배경은 매우 다양하였다. 출생지나 소거지는 물론이고 극히 일시적으로 거쳐간 곳까지 지역적 연관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좁게는 터를 고를 때에 평소에 자주 찾던 장리지 소杖履之所를 거론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김굉필이 사망하고 그를 향사하는 최초의 서원은 1565년(명종 20)에 그가 별세한 적소謫所이었던 순천에 세운 옥천서원玉川書院이었다. 서원은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두고 건립되기도 한다. 유배처와 같은 적소는 해당 유배자가 사는 곳일뿐만 아니라 지역인물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곳이었다. 그러한 관계망을 이루는 인물은 초학 수준일수도 있고 이미 일정한 정도의 학문적 성취가 있는 인물일수도 있는데 대체로 유배자는 관직에서는 이작자異爵者이며 학문적 성취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적소 현지의 인물과 사제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이었다. 적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는 유배자가 자신들의 선생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적 연고를 가진 인물이 되었다.

김굉필의 고향인 현풍에서는 1568년(선조 원년) 현동 비슬산록에 쌍계서원이 건립되었다. 일찍이 한훤당의 증조 김사곤金士坤이 처향인 현풍에 이주하였는데, 현풍에는 서흥瑞興 김씨 및 현풍 곽씨 등이 세거하였다. 서원은 향중사림 및 감사를 비롯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립되었다. 이 서원은 1573년(선조 6) 경상감사의 장계에 의하여 사액되고 서적을 하사받았다.¹⁰³

임란으로 훼손된 1604년(선조 37)에 한훤당의 내외손 및 일향 사림의 공동협력으로 현서 15리 오설면 도동 송추 아래로 옮겨 중건되었다. 서원명을 보로甫老로 하였다가 도신의 계청으로 도동으로 사액되었고 1610년(광해 2)에 봉안하였다. 선현봉사는 그 선현의 학문적 지향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곧 ‘송현모도崇賢慕道’가 서원 건립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¹⁰⁴

창건과 중건과정을 보면 도동서원의 건립주체들은 김굉필과 학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울러 혈연과 지연을 매개로 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감사를 비롯한 현풍현 및 인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한훤당의 외증손인 정구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백록동규를 모범으로 「도동원규」를 제정하였다.

서원을 중건하면서 동시에 정구 배향에 힘을 들였다. 1664년(현종 5)에 정구의 추향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⁵ 이 추향은 인근 지역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필달은 본관이 진주로 스무살 나이에 정은, 조정에게 나아가 배웠으며 1664년(현종 5) 봄에는 전직 겸 남학교수가 되었으며 같은 해 예조정랑이었다. 그는 거창에서 출생하여 합천과 진주 등에서 수학하고 안음, 상주, 금산, 고령 등지에서 각종 시험에 합격하였던 인물이었다. 서원의 추향과 같은

103 이하 도동서원에 관해서는 李樹煥, 1997. 「道東書院의 沿革과 所藏資料의 검토」, 『道東書院誌』. 참고하였다. 李樹煥, 2000.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史學研究』 第60號. 김기주, 2014.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가 참고가 된다. 김굉필의 제향에 대해서는 이수환, 2020. 「김굉필의 문묘종사와 제향서원」, 『국학연구론총』 제25집 (택민국학연구원)이 참고가 된다.

104 李鍾祥, 『定軒先生文集』 卷之十五 上梁文, 「道東書院門樓重修上梁文」, “斯文正脈. 與天地而并立. 猗歟先師之繼往而開來. 凡物大數. 雖鬼神而莫逃. 惟在後人之嗣修而興廢. 所以是樓是役. 聿見再圯再新. 苟非崇賢慕道之本乎人心.”

105 鄭必達, 『八松先生文集』 卷之四 疏 「道東書院請躋享寒岡先生疏」.

일은 서원이나 인물의 사회적 비중에 따라 해당 서원이나 혹은 해당 읍의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을 넓혀서 도단위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중앙 관료의 지원을 받았다. 관찰사가 나서고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관여하였다.

1669년(현종 10)에도 여전히 정구 추향은 이 지역의 관심사이고 숙제이었다.¹⁰⁶ 1677년(숙종 3) 현풍현의 생원 곽수하郭壽夏 등이 서원 중건을 주도하였는데 아울러 한강의 제향을 청하면서 함께 요청한 배신裴紳과 박성朴惺의 배향은 허락되지 않았고 1677년(숙종 3) 11월에 예조는 정구의 배향만 허락하도록 청하여 재결하였으며¹⁰⁷ 1678년(숙종 4)에 정구만 봉안하였다.

추향의 경우에도 창건시의 제향 인물 선정처럼 여러 연관성을 내세웠다. 정구를 도동서원에 제향하러 요청할 때의 근거는 현풍이 정구의 외향이라는 것이다. 정구는 외증손일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적전嫡傳이어서 집안에서 일가양현一家兩賢이라 부른다는 것이다.¹⁰⁸ 사액서원의 경우 국가가 인정한 국학으로 인식하여 배향 혹은 종향의 경우 조정의 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 봉안하였다.

도동서원은 한훤당과 도의지교道義之教가 있었던 현풍 출신의 진사 곽승화郭承華 및 교관 배신, 군수 곽율 3인을 1695년(숙종 21)에 서원의 옆에 별사를 짓고 병향하였으며 그 후 1706년(숙종 32) 참봉 원개元槩를 추향하였다. 곽승화는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배신(1520~1573)은 약관 시절에 조식曹植에게 수학하였고 뒤에 이황의 문인이 되었다. 곽율(1531~1593)은 월선 후대의 인물이다, 원개는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서 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원의 건립과 중건과정에서 지역 사족들이 주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흥김씨와 현풍곽씨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이후 서원의 운영에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⁹

이러한 서원 건립은 학문적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 혹은 관계망에 들어 있는

106 『서원등록』, 현종 10년 2월 초6일.

107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11월 6일. 『서원등록』, 숙종 3년 11월 27일.

108 鄭必達, 『八松先生文集』 卷之四 疏 「道東書院請躋享寒岡先生疏」 甲辰.

109 이수환, 2000. 「도동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사학연구』 60, 김훈식, 2013. 「順天刊本 景賢錄의 편찬과 내용」 『역사와 경계』 86. 김정운, 2018.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제7호.

사람들이 선생의 학문적 계승을 의미하는 한편 그 가르침에 대한 보답이었다.¹¹⁰

도동서원의 학규의 첫 번째 항목은 근향사謹享祀이었다. 학습에 우선하여 서원을 바로 세우는 일은 향사부터이었다. 혹 향사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같은 목적의 새로운 교육기구가 건립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원규」로 서원의 중요한 일인 향사 일자를 향교의 석전 후로 정하였다. 원임은 항상 정일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석전을 행한 뒤에 서원의 향사는 중정에 행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제사 시일은 『국조오례서례』에 정해 있었다. 관상감에서 기일 세달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계로 아뢰고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린다. 담당 부서는 직책에 따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제사에는 일정한 날이 있는데 중추와 중추의 상정에는 문선왕에게 석전을 지내고, 삭망에는 문선왕에게 전을 드리도록 하는데 삭일에 석전을 만나면 석전만 행하도록 정하였다.¹¹¹

이러한 규칙은 조선말까지 준용되었다. 1894년 추향 시 경상도는 관상감 첩정에 따라 예조로부터 일자를 통보받아 제향일자를 예방색리에게 통고하였다.¹¹² 다시 말하자면 서원은 조선말까지 변하지 않는 향교의 제일 선택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향사일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혹 향교나 서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갈등을 없애고 일체감을 갖게 하되 선현에 대한 향사가 선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원규」에서 천명하는 것이었다. 향사하는 날 신진 영입을 논의하여 결정하듯이 서원에서의 향사는 중요한 행례이었다. 서원 스스로 향교 다음의 차례임을

110 김기주, 2014.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111 『國朝五禮序例』 卷之一 吉禮 「時日」, “時日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隨職供辦) 凡祀有常日者. 中略. 仲春·仲秋上丁 釋奠文宣王, 朔望, 奠文宣王(朔值釋奠, 只行釋奠.)”

112 『各司謄錄, 慶尙道篇 3』, 禮房色來報關錄 2, 「甲午七月初五日」, “七月初五日到付巡甘, 秋享各祭設行事關文, 節到付禮曹關內節啓下教, 觀象監牒呈內乙用良, 今甲午年七月以, 十二月至, 各朔內, 行各道各祭, 中略. 八月內行, 社稷大祭, 上戊日是白在, 初四日行, 文宣王釋奠祭, 上丁日是白在, 初三日行,”

분명히 하여 생도 상호간은 물론 기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도동서원에서는 언제나 삭망 때에는 서원에 있는 유생은 청금靑衿을 정중히 차려입고 선생의 사당에 분향 재배토록 하였다.¹¹³

도동서원에서는 춘추로 향사를 지내고,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의 묘소에서 묘제를 지냈다. 도동서원은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滄洲精舍 釋菜儀」를 많이 준용하였다.

(7)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서애 유성룡(1542~1607)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고려시기 안동 풍산에 있던 풍악서당豐岳書堂에서 비롯되었다. 유성룡은 서당의 위치가 공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하의河隈의 상류에 옮겨다 놓았다. 1575년(선조 8) 서당을 병산으로 옮기고 ‘병산서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¹¹⁴ 그의 사후 1614년(광해군 6) 유생들이 그 옆에 사당 존덕사를 세웠다.¹¹⁵ 병산서원에 위판을 봉안하고 석채례를 행하였다. 우복 정경세, 창석 이준, 동리 김윤안, 정봉 안담수 등 문인들이 추진하였다.

선생의 위판은 1620년(광해12) 합향하는 과정에서 여강서원으로 옮겨졌다가 1629년(인조 7)에 다시 병산에 복향하였다. 당시 서애 선생의 위판을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에 봉안하는 문제를 두고 “일읍양원병향一邑兩院並享”과 “일읍일원봉안一邑一院奉安”등 의견이 있었으나 주자의 예에 따라 한 고을 두 서원에 병향해도 무방하다 하여 두 서원에 병향하게 되었다.¹¹⁶

113 최순권, 2013.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서원학보』 2.

114 李樹煥, 1987.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經濟的 基盤; 屏山書院 古文書 分析, 嶠南史學 제3집. 김명자, 2018.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제6호.

115 『西厓先生 年譜』 제2권, 年譜, 萬曆 42년 갑인 4월 5일(정해), 四十二年甲寅四月丁亥. 奉安位版於屏山書院. 行釋菜禮. 院在河隈上流五里許. 豐山縣舊有豐岳書堂. 先生以堂在官道傍. 不合藏修之所. 諭本縣學子. 移建于此. 至是儒生立祠其側. 『東儒書院叢錄』에는 1613년(광해군 5) 건립으로 기록되었다.

116 김학수, 2007.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제11집에 상세하다.

1662년(현종 3)에 선생의 셋째아들인 수암 류진柳珍(1582, 선조 15-1635, 인조 13)공의 위패를 종향하였다. 1863년(철종 14) 유성룡의 주향인 병산서원에 사액 결정을 하였다.¹¹⁷ 그 이듬해에도 사액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 사액은 조금 더뎠다.¹¹⁸ 류진의 종향 시기는 사후 28년 뒤이었다. 부자지간의 인물을 주종향으로 모시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시기 이후 류씨 문중에서 종족 의식이 확고해지고 있던 것이 배경이었으나 다른 한편 그것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세대를 이어간 학문적 성취이었다. 서원의 향사가 단순히 조선에 대한 제향이 아니라 학문적 전수를 의미하는 것에 부합되었기 때문 일 것이다.

병산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들은 이 지역 유력 가문의 인물들과 혼인을 통한 관계망을 형성했다.¹¹⁹

17세기 이후 영남의 서원은 서원 기능의 한 축인 제향 대상인 선현 결정에서 보편성이 약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내부적 시비·갈등의 국면이 조성되었고, 남인 공론을 대변하는 정치지향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17세기 이후 심화되었던 위차 논쟁은 단순히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통學統 내지는 도통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 까닭이었다. 1614년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에 자극되어 정경세는 유성룡·김성일의 합향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1605년에는 도남서원을 건립하여 유성룡 추배의 토대를 마련했고, 1614년에는 유성룡의 병산서원 입향을 주도하며 유성룡의 ‘퇴계적전화’에 부심했던 터이었다. 그가 병산서원의 철향을 감수하면서까지 여강서원 합향에 부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¹²⁰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는 서원 합향을 통하여 위판의 서차는 곧 학문적 계승자의 상호 서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 아래의 적전제자의 제자라 자처하는 유자들은 그 위상을 자신의 사회적 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117 비변사등록 250책 철종 14년 11월 12일.

118 李鍾祥, 『定軒先生文集』 卷之十五, 祭文, 「屏山書院賜額時致祭文」 甲子, “有成命而未宣”

119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2004. 『경북유학인물지(하)』 김명자, 2018. 「조선 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제6호, 13쪽에서 재인용.

120 김학수, 2007.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제11집.

으로 보여진다.

병산서원의 춘추향사일은 각각 음력 3월 초정일과 9월 초정일이었다. 입제일은 1일전이어서 향사일 전날에 향사에 참가할 헌관과 모든 집사들이 서원에 모인다. 분정례를 통하여 집사를 분정하였다. 주향과 종향을 나누어 헌관과 제집사를 분정하였다.

제물과 희생을 살펴보고 제수를 자리에 옮기고 진설하였으며 행례의 차례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예 순으로 하였다. 향사례를 마치고 아침에 입교당에서 음복상을 받았다. 먼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서로 술잔을 올리는 상읍례가 진행되고, 이어 '제사가 예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졌는지'를 묻는 제사공론이 이루어진다. 공론이 끝나면 차기 향사 임원이 발표되고 '과좌'를 선언하여 음복례를 마친다.

다음 향사를 진행할 유사와 제관을 선출하는 천망을 한다. 그리고 후보가 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망기는 초헌관 이하 각 헌관들과, 축관, 찬자, 유사들까지만 내고 그 이외의 알자, 찬인 등 집사들은 분정례 때 선정한다. 병산서원에서는 향사를 지내기 10일 전 인사위원회에서 미리 천망이 이루어지고 제사공론이 끝나면 발표한다.

병산서원에는 정알과 향알의 알묘례가 있었다. 정알은 매년 정월 초7일에 새 해인사로 유사와 유림의 인원이 모여 알묘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향알은 매달 음력 초하루(朔) 보름(望)에 행하는 삭망분향례이었다.

병산서원에서는 향음례를 하였다. 당시 안동부 풍서면에 살던 안창렬(1847~1925)은 1878년(고종 15) 늦봄에 병산서원에서 향음례를 하였음을 알려준다.¹²¹

(8)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최치원(857~908)과 신잠(1491~1554)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태인의

121 『東旅文集』, 戊寅暮春, 行鄉飲禮于屏山書院, 仍修契帖拈韻. 『고문서집성 43 -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향인들이 최치원의 사당을 창건하여 태산사泰山祠라 하였다.¹²² 1483년(성종 14) 정극인丁克仁이 세운 향학당鄉學堂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태인은 정극인의 처향이었으며 그는 훈도교수로 학령을 개정하여 생도들을 가르쳤다.¹²³

그 뒤 1549년(명종 4) 신잠을 태산사에 배향하였다. 신잠의 수령 경력에 대한 태인현민들의 평가는 일반적 통치의 공적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세운 사학四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단순한 지역성이라기 보다는 그 교육기구에서 수업한 향인들과의 학연이 겹쳐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잠은 사학四學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동북 2학은 상당기간 기능이 작동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⁴ 이 기록은 1616년(광해군 8) 양사의 목적으로 둔전을 두어 동북 2학과 서원의 제생의 공용의 것으로 하였던 터이었기 때문이었다.

1630년(인조 8) 정극인·송세림宋世琳·정언충鄭彦忠·김약묵金若默을 배향하고, 1675년(숙종 1) 김관金灌을 추가 배향하였다. 앞의 4명은 모두 15-16세기 태인의 사족들로서 가까운 친·인척이었다. 태산서원에 추배된 1630년은 이들이 타계한지 각각 149년·111년·73년·72년이 지난 후이었다. 멀리는 이미 5세대가 지났고, 가까이는 2세대가 지난 인물들을 같은 해에 함께 추배한 것이었다. 1615년에 태산서원을 건립하였으니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태인의 향현들이 대거 추배된 것이었다. 추배된 인물들의 성씨는 영광정씨·여산송씨·경주정씨·도강김씨이었다.

1696년(숙종 22)에 유지춘柳之春 등의 청액소에 따라 ‘무성武城’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개편되었다. 예조는 사액이 요청되자 제향의 인물이 중복된 첩설의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하도록 주장하여 결국 사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록의 사관은 최치원과 신잠은 이 고을의 수령이었고 정극인 이하 5인은 향현이었음을 지적하였다.¹²⁵

122 『武城書院誌』 「請額疏」. 임선빈, 2018. 「17세기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건립과 운영 —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123 『不憂軒集』 제2권, 文, 「學令」 (訓導教授時)

124 『武城書院誌』상, 「泰山祠事蹟」

125 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1월 1일.

사액 결정이 되면 선택례宣額禮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액이 되어 예관이 내려오고 사액의 절차를 밟게 되면 연액례延額禮를 하였다. 무성서원은 이 연액례를 상세히 기록하였다.(무성서원 소장, 『延額記事』) 연액례 행례 과정과 제문을 기록하였다. 사자使者 예조좌랑禮曹佐郎 유격柳格, 대축大祝 순창군수淳昌郡守 이직李潑, 봉향奉香 정읍현감井邑縣監 신희징申喜澄, 봉로奉爐 태인현감泰仁縣監 이당李堂이었다.(『무성서원지』상, 「祭文」) 연액은 서원만의 의례가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포함하는 행례이었다. 그밖의 제집사는 원임과 원생들이 맡는 것으로 보이는데, 춘추 향사 등에서와 같이 현관을 인근 서원의 원임이나 혹은 학덕을 갖춘 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태인현감 및 인근 고을인 순창군수, 정읍현감의 수령이라는 점에서 사액이 국가 곧 관의 행례라는 점을 의미하였다. 이 선택례와 연액례는 일종의 사제의 절차이었다. 서원은 관찰사 이하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부조를 받는 한편 앞서의 예관을 비롯한 대축, 봉향, 봉로 그리고 예조의 서리와 마두馬頭에 이르기까지 폐물을 드렸다

서원에 대한 관의 물적 지원은 양사와 향사 모두를 표방하고 있었다. 잘알려진대로 제향 인물의 사회적 지위가 곧 관의 지원 수준이었다. 문묘종향유현文廟從享儒賢 서원이라면 미사액 서원 15명, 사액서원 20명을 넘어 30명이 정식이었다. 무성서원은 이를 선생안이라 표기하였다.¹²⁶

무성서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원장이나 제장, 강장 등의 직임을 관인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1876년의 원장은 1875년에 부임한 이민태李敏泰이었으며, 1876년에 부임한 민관호閔觀鎬, 그 후에 보임한 1881년의 이정직李定植, 1883년의 정리원鄭履源 등이 현감원장이었다. 1883년의 진신강장縉紳講長을 현감 신기조申岐朝가 맡고 있다. 강장도 진신강장과 유림儒林강장으로 나누어 진신강장을 참방察訪으로 선임하기도 하였다.¹²⁷

126 『武城書院誌』상, 「武城書院院生案」

127 『武城書院誌』하 「갑을기사」 이하.

무성서원의 강습례집사는 도집례, 창집례, 직월, 직일, 전생, 전부, 조사, 전서로 구성되어 있다.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에 의하면 학임은 재중의 주가 되고 강장講長은 재중의 객이 된다.¹²⁸

이 강습례에서 훈장은 1면을 주관하여 학임 다음 차례에 서서 학임을 따라 배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강습례는 서원 외의 고을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보인다.

무성서원에서는 향음주례를 시행하였다. 정극인은 태인에서 향음주례와 여씨향약을 시행하였다.¹²⁹

(9)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처음에는 사계 김장생(1548~1631)이 타계한지 3년 후인 1634년(인조 12)에 충청도 연산현連山縣의 임리林里에 김장생의 문인들이 스승을 추모하여 위패를 봉안할 사우를 김장생의 옛집 원편에 건립하였다. 사당 앞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서원으로 전환하여 갔다. 1632년 돈암서원 창건을 위하여 통문을 돌리고¹³⁰ 1634년(인조 12) 김장생의 문인이었던 유즙柳楫(1585, 선조 18- 1651, 효종 2)은 돈암서원 건립에 관찰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¹³¹ 유즙 등이 서원을 창건하면서 사우를 짓고 서원을 건립하려니 비용도 막대하게 들고 서원을 세우는 일이 유림의 큰일이니 관찰사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도움을 요청하였다.¹³²

128 『武城書院誌』 하 「講習禮執事」, 「笏記」, 「講習禮節目」 박종배, 2011.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한국서원학보』1.

129 『不憂軒集』 卷一, 詩, 「泰仁鄉約契軸」, 1475년(성종 6)에는 「동중향음주서洞中鄉飲酒序」를 지었다(『不憂軒集』 제2권, 文, 「洞中鄉飲酒序」)

130 『同春堂先生文集』 卷之十六, 雜著, 「遯巖書院朔建通文 代院儒作(壬申)」

131 柳楫, 『白石遺稿』 卷之二, 書 「遯巖書院營建時. 上方伯書. 」 “沙溪金先生. 生乎絕學之下. 能以道學自任. 從師栗谷之門. 竟受深衣之托. 扶持聖道. 綱紀人倫. 其功用之及於世者. 夫豈淺鮮也哉 中略. 惟當營立祠宇. 奉安遺像. 以爲士林矜式之所.”

132 李政祐, 1999.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建立의 성격 -충청도 論山地方 光山金氏와 坡平尹氏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第88號 -斗溪李丙燾先生10週忌追念號; 이연숙, 2011. 「遯巖書院의 역사와 문화」, 『畿湖儒敎文化와 遯巖書院』; 임선빈, 2018. 「遯巖書院의 건립배경과 賜額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5; 이경동, 2022. 「조선시대 논

이때에 향사의 기본적인 의절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원을 건립한 1634년 4월, 송시열과 송준길이 사계 선생을 돈암서원에 봉향하기 위한 「향례의절」의 초안을 만들었다. 김집은 1647년(인조25)에 「의례도」를 강독하기도 하였다.¹³³ 춘추 향사 때에도 입재한 원생들은 먼저 제의를 익히고 난 다음에 이황이 지은 행장이나, 이이가 지은 지문誌文을 읽도록 했다.

1658년(효종 9)에 그의 아들 김집金集을 배향했으며¹³⁴ 1660년(현종 1)에 사액하였다.¹³⁵ 1660년 사액되었을 때에 현종은 건관치제하였다. 그 후 1688년(숙종 14) 송준길을¹³⁶, 1695년(숙종 21)에는 송시열을 추배하였다. 이러한 송준길, 송시열의 추배는 돈암서원이 노론서원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서원은 1880년(고종 17)에 임리에서 남쪽으로 1리쯤 거리인 호계虎溪로 이迁하였다.¹³⁷

이러한 추배는 아울러 학문적 계통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추배를 지지하든지 혹은 다른 의견을 가졌든 자신들에게까지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통하여 학문 전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학문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향촌사회 안에서는 향론의 주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은 서원 안팎의 인사들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정리되기도 하였다.¹³⁸

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8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팀 편, 2011. 『畿湖儒敎文化와 遯巖書院』,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문준·황인덕·이철성·한기범·임선빈, 2018. 『돈암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33 김문준, 2018. 「돈암서원의 강학」,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34 『신독재전서』 제16권, 부록, 年譜 하, 무술년(1658, 효종 9), “9월 13일에 돈암서원에 중향되었다.”

135 『宋子大全』 卷一百七十一, 碑, 「遯巖書院廟庭碑」, 『신독재전서』 제18권, 부록, 「院享錄」.

136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3월 7일 “連山幼學洪友顔等上疏, 請以文正公 宋浚吉, 配食于本縣元文公 金長生所享遯巖書院. 下禮曹覆啓, 許之.”

137 宋秉璫, 『淵齋先生文集』 卷之三十二, 神道碑, 「遯巖書院移建廟庭碑」.

138 金鎮圭, 『竹泉集』 卷之十三, 書, 「論遯巖書院配享. 與連山儒生書. 與伯氏及從叔參議公聯名」

김장생과 김집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면서 더불어 예학의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어 지기(知己)로 표현하리만치 학문적 전승 관계라는 것을 거론하지만¹³⁹ 사실 그것은 제향인물들 상호간의 혈연적 관계와 학문적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었다.¹⁴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김집 이하 추배자들의 지역적 연관성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원이 지역성을 배경으로 건립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배자의 결정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송준길과 송시열의 경우 김장생 부자와의 학문적 사승관계는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송시열은 사계로부터 배웠다. 1634년(인조 12)에는 사계선생 묘를 배알한 후 돈암서원을 방문하고 향례의절을 함께 의논하여 정하기도 하였다.¹⁴¹ 송시열은 1632년(인조 10) 회덕에 거주하면서 송준길과 강학에 전념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돈암서원에서 강회나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1652년(효종 3) 송준길이 돈암서원의 원장이기도 하였다.¹⁴² 송준길은 논산에 연고를 두었으며 그의 묘소는 처음에 연기군에 있었다.

학문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혈연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배향이나 추배 등은 가학의 전승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몇 대에 걸쳐 학문을 전승해야 가학이라 할 것인지의 문제를 차치하면 조선후기 일부 가문에서 보이는 가학의 전승이 이러한 서원 제향에서 표현된다고 하겠다. 엄밀하게 구분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지만 가문 내에서 문반과 무반을 집중적으로 배출한다든가 혹은 전문직의 중인을 배출한다든가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관인을 배출하는 양반가에서 학인가(學人家) 혹은 무인가(武人家)가 구별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직을 세습하는 중인가 등이 등장하는 것이다.¹⁴³

139 『宋子大全』卷一百七十一, 碑, 「遯巖書院廟庭碑」, “而所謂父子間知己者有焉.”

140 『竹泉集』卷之十三, 書, 「論遯巖書院配享. 與連山儒生書. 與伯氏及從叔參議公聯名」, “蓋此院之設. 本爲我先祖文元先生也. 故後來追配. 不出於家庭門牆之外. 且及門之士亦非不多. 而六十年間. 止配愼齋春堂兩先生者”

141 『宋子大全』附錄卷二, [年譜] “時士林爲享沙溪先生. 建祠宇于連山舊宅之傍. 卽遯巖書院也. 先生與同春省墓于鎮岑. 仍詣書院. 議定享禮儀節. 後以愼齋先生配侑. 而先生又撰廟庭碑文”.

142 『同春堂先生文集』卷之十七, 祭文, 「遯巖書院祭清陰金先生文 壬辰院長時」

학인가가 곧 관인가官人家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특정 가문에서는 오히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문무반의 진출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몽주나 길재 가문의 경우 조선후기에는 오히려 후손들이 무반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¹⁴⁴ 물론, 이러한 것은 봉사손 녹용의 경로로 무반직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이 그 경향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¹⁴⁵ 그러한 상황에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가문이라면 학인가로서의 위상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이제는 강학에 열심을 보이지 않으며 춘추 향사에 참례하는 것만을 중시한다고 언급하면서 서원이 단지 선현 향사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하였다. 수학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의리지설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 준비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¹⁴⁶

Ⅲ. 서원 제향 의례의 역사적 의미

1.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과 공공성

(1) 서원과 학연관계망의 형성

서원의 교육은 관리 및 향촌사회의 지식인층을 양성하였으며, 교육은 이들이 조정에서의 공론 내지 향론 형성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바탕이었다.

143 張弼基, 1999. 「朝鮮後期 武班家門의 閥閥化와 그 性格」, 嶺南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김양수, 1999.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전문직 중인의 활동」, 『韓國近代移行期 中人研究』(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44 김학수, 2012.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포은학연구』10. 김학수, 2020. 「尊周論의 작동과 정치이념적 ‘家’의 출현 -연안이씨 忠毅公 李有吉家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95.

145 김무진, 2022. 「조선후기 길재 봉사손 녹용의 역사적 성격」, 『야은길재의 재인식』(구미 성리학역사관) 발표문.

146 김문준, 2018. 「돈암서원의 강학」,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81쪽.

서원의 학습방법 혹은 수업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주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거접居接이었다. 물론 이러한 거재의 수업목표가 과업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심을 끄는 것은 수업형태의 특이성에 있었다.¹⁴⁷

거접 혹은 거재는 여러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머물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거재는 대단히 독특한 학습체계를 갖춘 것이었다. 일상의 집단 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을 바꾸면서 학문을 전승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위양식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었다. 「거접절목」 혹은 「거재절목」을 두어 생활학습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재절목」은 학습자세, 학습과정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⁴⁸ 거재하는 동안 서원의 훈장이나 사장師長 등뿐만 아니라 고을의 수령이 격려의 글을 통하여 학습을 독려하기도 하였다.¹⁴⁹ 생활을 함께하면서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삭망의 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746년(영조 22) 이광정李光庭이 지은 봉화 삼계서원三溪書院의 「거재절목」은 거재유생의 나이를 제한하여 강안에 기록하고 거재일, 삭망제회, 학습과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¹⁵⁰ 이 서원은 권발權撥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588년(선조 21)에 지은 것으로 임란 때에 소실된 것을 1613년(광해군 3)에 중건하여 1660년(현종 10)에 사액되었던 바 18세기 중엽 수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재절목」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접은 때로는 계절에 따라 시행하는 비상시적인 경우도 있으나 생활 자체가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이었고 생활양식을 일치화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본디 다른 곳으로 내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열람하기도 하였다.¹⁵¹

147 金紫雲, 2014,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第58輯.

148 金東鎮, 『貞山先生文集』卷之五, 雜著, 「紹修書院居齋節目[戊申]」, 李仁行, 『新野先生文集』卷之五, 雜著 「伊山書院講學所居齋節目」

149 金世濂, 『東溟先生集』卷之三, 詩, 「道東書院. 示居接儒生」, “學海爭雄氣格豪. 青衿縹軸映絳毫. 使君地主安能長. 諸子天才莫厭勞. 金山雨歇蟬聲急. 洛水秋生月色高. 一日圖南應不遠. 會看鵬翼擊波濤.”

150 李光庭, 『訥隱先生文集』卷之六, 雜著, 「居齋節目」

서원이 매개하는 지식의 사회적 공유이었다.

이러한 학습을 위한 거점은 인간관계망 형성의 매개고리이기도 하였다. 서원에서 함께 학습한 이들은 문인집단을 형성하였다.

(2) 서원과 지연관계망의 형성

서원은 유자들의 지역연대의 매개이었다. 도동서원의 『심원록』을 분석한 글에 의하면 내방인들의 거주지가 대체로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강문인을 비롯하여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찾아왔다. 물론 이러한 관계망은 서원이 소재한 군현지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영향력이 큰 서원은 지역적 한계를 거론할 필요도 없었다. 영향력이 큰 서원이란 제향인물이 보편적으로 선현이나 선정신으로 불리우거나 서원 운영의 주도세력이 관 이작자異爵者이거나 향촌사회에서 명망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원을 말한다. 환언하자면 오히려 보다 넓은 지역이 영향력 있는 서원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갖게되는 것이었다.

도동서원의 『알사록謁祠錄』은 본향 인사들의 내방을 기록하였다. 현풍 사람들은 공사公事, 향사, 묘사, 공회公會, 원회, 관행, 백일장, 기우제 등의 서원 내의 대소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원생이 아니라 하여도 지역인들의 향사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¹⁵²

서원은 학생들만 찾았던 것은 아니며 심원 이유도 단순한 심방으로부터 강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관료나 유자들은 서원이 소재한 곳에 가면 서원을 방문하였다. 조근趙根은 박세채 등과 교유하였던 우암의 문인이었는데 1671년(현종 12)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으로 영남에 왔던 길에 백운동서원, 도산서원院, 역동서원, 옥산서원, 임고서원을 차례로 방문하였다.¹⁵³

갈암 이현일은 1658(효종 9) 12월, 중형仲兄 및 4 동생들과 도산서원에 가서 「퇴계집」 강講에 참여하였다. 서원은 소속 원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151 『旅軒先生續集』 제2권,書, 「與玉山書院士林」

152 이수환, 1997. 「앞의 글」, 20쪽.

153 『損菴集』 卷之四, 記, 「尋白雲洞書院日記」(嶺南敬差時)

이 아니었다. 특별히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열려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문적 향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식의 공유이자 가치의 공유이었다.

특정한 사안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고 일정한 의견을 수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문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의견을 조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서원향사는 서원간 상호 집사 분정 등을 통하여 인근의 서원생들과 교류하고 연대하였다. 서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대할 기회를 만들어 갔다.

(3) 서원의 사회적 공공성

서원 향사가 공제公祭로 거론되는 것은 서원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서원이 사적인 기구가 아닌 사회적 의미를 가진 교육제에 포함되어 향교와 더불어 거론된다는 것은 일차적인 공공성의 출발이었다. 곧 학교제는 공공재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공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관과의 관계이었다. 국가적 절차를 통한 학교로서의 인정, 지방관들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이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국가가 사우의 첩설 금지 등에 나서는 순간, 이미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우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것이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여러 조건에 따른 서원의 신설을 금지하였지만 서원의 신설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한 공공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사액이었다.¹⁵⁴

사액을 요청한 모든 서원이 사액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여창 소거향의 남계서원이 사액되자 그가 수령을 역임하였던 안음의 사인士人들이 자신들이 세운 사당에 사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¹⁵⁵

17세기 서원이나 향현사 건립이 대폭 늘면서 그에 대한 규제가 뒤따랐다.

154 서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신동훈, 2015. 「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에서 전개하였다. 『역사와 현실』 93호 특집 “조선후기 ‘공(公)’ 담론의 새로운 모색(2013)”, 동방학지 164호 특집 “유교 전통 속의 공공성(2013)”, 『조선시대사학보』 71호 특집 “조선왕조의 정치와 공론”(2014) 등이 참고가 된다.

155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3월 16일.

1657년(효종 8) 서원을 창건하려는 자는 배향하려는 사람의 행적을 갖추어서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다. 배향자 결정은 서원에서 하지만 반드시 배향하려는 사람의 행적을 밝혀 조정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건립토록 하였다. 서원은 사설이지만 공공성을 띄었기에 공적인 검증 절차를 두고 있었다.¹⁵⁶

서원의 인재양성을 통한 향촌 교화 역할이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액서원은 그 안에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류의 장수처藏修處라는 사류의 사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 기관을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인정한 것이었다.¹⁵⁷

① 서원 사액과 공공성

사액의 절차는 공공성을 확인하는 절차이었다. 예문관은 3가지의 액호를 적어 올린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비망에 낙점을 받아 결정한 뒤 예조의 낭관을 보내어 선액치제宣額致祭토록 하였다. 치제일자는 서원에서 정하도록 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관련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다.¹⁵⁸ 시호 결정을 알리는 선시宣謚가 내려지면 연시延謚가 그에 응하는 절차가 되듯이 사액이 선포되면 연액례가 진행되었다. 무성 서원의 연액례延額禮 기록은 그와 같은 것이었다.

사액이 결정되어 치제를 하게 되면 예조의 낭청이 액호와 향축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정구와 조호의 曹好益을 제향하는 평안도 성천成川의 학령서원學翎書院은 1660년(현종 1)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 서원에 치제하는 일로 경관이 내려가게 되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다 하여 예조의 서리가 향축과 액호를 가지고 내려 가고 해당 도의 도사가 치제를 거행하도록 하였다.¹⁵⁹

156 『受教輯錄』禮典 「雜令」 389. “書院・鄉賢祠欲爲創建者，具其行跡，必聞朝廷，蒙許然後，施行。(順治丁酉承傳.”

157 신동훈, 2015. 「위의 글」276쪽.

158 『六典條例』 卷5 禮典 禮曹 稽制司 學校, “祠院賜額，則藝文館，撰定額號，備望受點，遣本曹郎官，宣額致祭。致祭日子，令本院擇定，報于觀察使，移文本曹”.

예조의 사액 서원 치제에 관리를 보낼 때에 병조의 협조를 받기도 하였다. 1661년(현종 2) 경상도 청도의 자계서원紫溪書院에 김극일金克一, 김일손金駟孫, 김대유金大有를 향사하고 사액하였을 때에 예조는 병조로부터 낭청의 기복마騎卜馬와 색리色吏의 기마 등을 전례대로 지급받았다.¹⁶⁰

정구는 사액을 받은 서원은 곧 국상國庠이라고 보았다. 국학은 종사從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유를 갖추어 상소하여 윤허가 내려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⁶¹ 그렇다고 정구는 국가의 개입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원에 본부의 관리 5인이 내속해오자 2인을 돌려 보내면서 “유자의 입장에서 서원에 관속이 많이 머무는 것은 사리에 옳지 않다”고 하였다.¹⁶²

사액서원이 조정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배향을 하면 감사는 무겁게 추고하고 지방관은 파직하며 앞장 서 주동한 유생은 3년동안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¹⁶³ 1741년(영조 17)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안 관찰사는 파직하고 수령은 나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¹⁶⁴ 먼 고을에 있으면서 이름도 없는 향현사 영당을 관찰사가 알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 시기 서원 건립에 대한 통제는 사액서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원이나 향현사 혹은 영당, 정사, 이사里社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⁶⁵

159 『서원등록』, 현종 원년 8월 초8일.

160 『서원등록』, 현종 2년 3월 초10일, 현종 4년 7월 초3일, 금산의 星谷書院과 殉義壇 사액 건.

161 『寒岡先生文集』 卷之六, 答問, 「答金施普」 “朱子於白鹿洞書院. 請賜額以爲國庠. 今亦既蒙賜額. 當爲國庠矣. 然則從祀重事. 不得不經啓稟. 而徑自擅舉. 似不若具由上疏. 蒙允回下而後爲之也.”

162 김무진, 2017. 「한강 정구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26쪽.

163 『續大典』 禮典 「雜令」 “各道賜額書院, 不稟朝家擅自配享者, 道臣重推, 地方官罷職, 首倡儒生, 限三年停舉.”

164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7월 2일, “而先朝令甲, 則以道臣從重推考, 守令罷職爲定, 而今番則改以聞知道臣罷職, 守令拿問矣,” 비변사등록 153책, 영조 45년 10월 15일. 위 조처에 대하여 거듭 논의하였다.

165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8월 22일, 『續大典』 禮典 「雜令」 “諸道各邑, 以影堂·精舍別立名目者, 依祠堂例勘罪. 生祠堂, 一體禁斷.”

그러한 점에서 향사의 축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609년(광해 1) 도동서원의 향사를 들리썬 논의는 학교제로서의 서원의 위상과 제사의 성격을 말해준다. 예조가 경상도 관찰사 강첨姜籤의 보고를 토대로 향사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도동서원에서 춘추향사와 가묘제를 설행할 때에 축문에 ‘조정의 명을 받들어 거행한다’는 뜻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국가가 선현의 사당에 사액을 하거나 사제賜祭를 하여 그 선현을 존중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별도의 치제할 때와 서원의 춘추향사에 별도의 제문祭文을 내리거나 ‘조정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지낸다’ [‘공승조명恭承朝命’]는 것을 칭하도록 결정하였다.¹⁶⁶ 축문의 두사頭辭에 ‘승봉조명承奉朝命’ 혹은 ‘흠봉조명欽奉朝命’이라 하는 것은 서원이 비록 사립이지만 사회적 위상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조정의 명이라 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지적하는 것이고 조정이 나서서 서원의 그러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문묘나 서원의 어느 곳에 제향되는가에 따라서 서원의 원액을 정하였다. 1707년(숙종 33) 문묘 종향인을 배향하는 서원은 30인, 사액서원인 경우에는 15인으로 원생수를 제한하였다. 이것이 1713년(숙종 39)에는 문묘종향자를 배향하는 서원의 원생을 20인으로 줄였다. 사립학교이어서 원생의 정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숫자는 피역 가능수를 의미하였다.¹⁶⁷

사액서원은 토지, 모입募入에서 일반 서원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국학은 아니었다.¹⁶⁸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의 모입 문제는 한동안 논란을 거듭하였다.¹⁶⁹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용문서원龍門書院, 양주의 도봉서원道峰書院, 연일延日의 오천서원烏川書院에는 일찍이 백성을 모집하여 들여보낸 자를 그대로 두어 침탈侵奪하지 말고, 다만 한

166 광해군일기[중초본] 19권, 광해 1년 8월 1일.

167 이경동, 2022.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177쪽.

168 『續大典』 戶典 諸田 「學田」, “書院田, 本院自備, 雖未滿三結, 勿以民結充給.”, “賜額書院三結, 未賜額, 則無免稅位.”

169 『서원등록』, 숙종 2년 11월 초10일.

결같이 추가해 모집하지 말도록 하였다.

사액서원은 서원 철폐 과정에서도 별도의 취급을 받았다. 1864년(고종 1) 사액 서원 이외의 관봉 제물을 혁파한다는 것은 사액서원의 관봉 제물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의미이었다.¹⁷⁰

② 서원과 지방관

조선국가의 통치체계를 흔히 중앙집권적 관료제라 한다. 그 집권적 체제를 구현시키는 기구가 지방제이었다. 관찰사와 수령에 이어지는 통치체계의 중요한 기능은 예치의 실현이었다. 지방제의 두 기능을 정령의 전달과 교화의 실현이라고 한다. 부세의 수취와 현 지배체제의 안정을 의미하는 정령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화의 실현이었다. 전국 관찰사의 집무소는 선화당이었다. 수령의 7가지 업무 가운데 홍학교는 단순히 학교제도의 원만한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의 근원인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의미하였다. 이 학교의 범주에 우리가 논의하는 서원이 포함되었다. 서원의 교육과 향사에 관이 개입하고 지원 하는 근거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원의 건립을 지방관이 주도하기도 하였다. 소수서원은 수령이 설립을 주도하고 사액 역시 수령에 의해 전개되어 실행되었다. 남계서원의 건립의 주체는 사람들이었으나 지방 수령들의 후원이 컸다. 관찰사는 주로 건립이나 사액 요청의 중간 통로이어서 나서기도 하였다.

흔히 서원의 제수는 관비와 원비로 표현되었다. 지방관은 서원에서 거행하는 춘추향사, 삭망분향제 등의 각종 제례에 향축을 봉진하였다. 관아에서 제수를 지급하는 곳은 향교와 사액서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도 관봉이라 하여 제수를 지급하였다. 제수지급의 관행은 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서원의 폐단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전국의 서원이 훼손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¹⁷¹

170 『各司謄錄』 京畿道篇 4 開城府留營關報牒謄錄1 「甲子十二月十五日」 “賜額書院外，官封祭物革罷之意，前已知委矣，一體查實以聞是矣。又或如前延拖，不念國綱，則必當有別般勘處矣。其各惕念舉行宜當向事”。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산서원이 있던 예안은 도산서원, 옥산서원 그리고 향교에 각각 주향과 종향을 구분하여 제수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도산서원의 향사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부담토록 하였다. 조선후기 경상도의 선혜청의 영남청은 제향에 드는 여러 물품과 비용을 책정하고 있었다.

무성서원은 강습례를 할 때에 면훈장을 학임의 다음 차례에 자리하여 학임과 같이 배움토록 하였다. 이 시기 수령은 면훈장제를 통하여 서당 교육을 통제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을 서원의 강습례에 참여시켜 관주도의 교육과 결합하고 있었다.

2. 서원 제향의례의 몇 가지 문제

(1)서원 향사의 주체

서원의 건립과정에서 학연, 지연 및 혈연은 각각 조건에 따라 참여나 개입 정도가 달랐으며 지방관의 협력이 대단히 큰 힘이 되었다. 서원 향사는 자연스럽게 서원을 건립한 주체들이 봉사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당해 시기의 서원의 운영 주체들이 주관하였다. 일부 서원에서는 후손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문중 서원의 경우 서원 향사가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현관의 일부를 같은 지역의 서원에 맡기기도 하고 수령 등이 맡기도 하였다. 남계서원과 같이 정치적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서원은 향사 문제를 놓고 의견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수서원처럼 수령이 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경우 자연스럽게 관이 향사의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사실 엄연히 향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원의 운영과 향사를 맡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못하였다. 소수서원의 교육기능을 강조하면서 지역인물들의 참여와 지연인물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퇴계에 의하여 정립된 여러 문제는 이후 이 지역 유자들의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관은 지원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 한국국학진흥원 「절목」 문서 해제.

대부분의 서원의 운영에 수령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모든 시기에 균일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부자를 주종으로 제향하는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제향이 학문적 평가의 결과이었기에 학문적 연관성이 깊은 문인들이 향사의 주체이었다. 또한 추배는 학문적 계통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추배를 지지하든지 혹은 다른 의견을 가졌든 자신들에게까지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통하여 학문 전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학문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향촌 사회 안에서는 향론의 주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2) 서원 향사의 위차

주향·병향·배향·종향의 위차는 독향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제문의 경우도 주향과 배향의 제문이 다르고 제수 역시 다르듯이 향사의 대상이 다수일 경우 위격이 관심일 수 밖에 없었다. 다수일 경우 병향으로 할 것인가 주향과 배향으로 나눌 것인가 혹은 주향과 종향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어서 그에 대한 기준이 거론되었다.¹⁷²

남계서원 혹은 병산서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위차의 문제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위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서원을 건립하여 제향하든지 아니면 별사를 지어서 제향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3) 서원 향사 이외의 의례

서원의 의례는 향사례와 강학례가 있었다. 아울러 서원에서의 강학이나 기타 활동과정에서 관계를 맺게되는 여러 성격의 사람들과 의례를 행하게 된다. 예컨대, 상읍례相揖禮, 정읍례庭揖禮 등이 있었다. 그러한 것들은 원내 의절儀節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서원이 춘추향사와 삭망분향을 의례화하고 있었다. 행례에서의 절차가 서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호 유사하였다. 일부 행례의 차이를 문중의 향사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172 『春官通考』 卷39 吉禮 院祠二 「題配享位版致祭儀」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서원 내에서 향약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향음주례나 향사례를 하는 서원도 있었다. 향약 자체는 의례가 아니지만 시행절차에서 의례화한 부분이 있기도 하였다.¹⁷³ 예속상교 조목이 들어있는 향약을 시행한다하여 일상의 의례가 전적으로 유교의례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향약에서 일부의 의례를 향약조직을 통하여 준행하는 것은 의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상례가 그러하였다. 향약문을 읽는 서원의 경우 그것은 수신규범의 확인 수준이었다. 학규 등의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처럼 유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의례나 학규 강독 등이 춘추향사 등과 결합되어 시행되었다. 서원에는 그밖에 추향追享 시 행하는 추향례나 견관치제 시 드리는 치제례 그리고 사액을 맞이하는 연액례 같은 것도 있었다.¹⁷⁴

도산서원의 소장 문서를 보면 향음주례나 향약, 치제례 등이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⁷⁵

물론 향사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의례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필암서원은 음복의 절차를 향사 안의 행례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예를 끝낸 후 전사청에서 분포례分脯禮를 하였다. 참제자 전원은 백록동학규를 읽고 돌아가면서 차례로 강한다. 백록동규 강독을 향사와 결합시켰다. 병산서원과 무성서원에서는 향음례를 하였다.

(4) 서원 회철과 향사 제물 봉진

대구부 13곳의 서원의 제물은 해당 서원이 스스로 준비하였다. 1834년(순조

173 임근실, 2020.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한재훈, 2020.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한국서원학보』 11.

174 채광수, 2020.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追享禮·致祭禮」, 『한국서원학보』 제 10호.

175 傳掌記0043, 鄉飲酒時時到一冊, 鄉約一冊, 鄉飲酒禮笏記一, 賜祭時笏記, 賜祭時禮曹儀飾一, 書院宣謚時事實一冊[今無], 陶山書院致祭儀.

34)에 관찰사 서희순徐憲淳(1793 -1857)이 재임 중 별비전 700냥을 여러 돈 놓는 곳에 부쳐 그 이자 140냥을 관의 서원 향사 제물 진봉에 사용하였다. 1868년(고종 5)에 조령朝令에 따라 미사액서원은 일체 훼손하고 원생과 하전은 군으로 이속시키고 1871년(고종 8)에 별비전 700냥을 감영에 바쳤다.¹⁷⁶ 주지하다시피 대구의 사액서원인 연경서원, 표충서원, 낙빈서원도 모두 훼손되었다.

이 서원 훼손 사건은 일거에 시행된 것은 아니었고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1864년(고종 1)에 사액서원에서 자비自備한 전결 3결은 법전에 따라 면세하되 그 외의 토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액서원의 모입은 새로 조사하여 규정된 액수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과 향현사의 관봉을 금지시켰다.¹⁷⁷ 서원 첩설 금지 등은 이미 정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몇 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해의 사액서원의 관봉은 개성부에서도 확인된다.¹⁷⁸

1868년(고종 5)에는 사액서원의 경우에는 규정된 모입수를 넘는 것은 금지시켰으며 그동안 획득된 토지의 결세를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이 조처는 향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취한 것이었다. 서원의 신설은 금지하되 사액서원의 추배는 허용하였다. 나아가서는 고위 관리들이 서원의 원장을 맡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처들은 사액서원에 내린 혜택을 줄이고 관리들의 서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¹⁷⁹ 국가와 서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대구부의 경우 1869년(고종 6)에는 조령으로 서원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정지시켰다(停封)가 다시 예조 관문 및 읍장邑狀에 근거하여 관봉官封으로 바뀌었는데 1871년(고종 8)에는 조령에 따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읍이나 향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사우에

176 『大邱府事例』 “己巳因朝令祭物停封矣 更據禮曹關及邑狀還爲官封辛未因朝令毀撤,” 이 책의 표지명은 『邑事例』이다. 奎貴12198

177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8월 17일.

178 『各司謄錄』 京畿道篇 4, 開城府留營關報牒謄錄1, 「甲子十二月十五日」

179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9월 3일. 정순우, 1998.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제53집.

대해서는 관이 일시 제물을 봉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천서원寒泉書院과 봉산서원鳳山書院은 1870년 향장鄉狀으로 인하여 관봉하였으며,¹⁸⁰ 구암서원龜巖書院은 읍장으로 관봉하였으며 용강사龍崗祠는 예조관문으로 1873년(고종 10) 관봉하였으며 이강서원伊江書院은 1884년(고종 21) 예조 관문에 따라 관봉하였다.

IV. 서원 제향의례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그것이 그 문화가 존재하는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문화는 문화 구현을 통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또한 단순한 의례의 전승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과 기술의 전승을 의미한다. 그러한 문화는 그 문화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공유된 문화이다.

1.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성

서원은 조선사회의 여러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조선사회의 가치체계인 유학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면서 그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끌기 위한 학습이 전개되고 아울러 그러한 가치관에 입각한 의례가 실천되던 곳이었다. 그를 위하여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각종 기능의 공간을 건립하고 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체계를 세우고 전승하였다.

서원 향사는 조선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체계의 작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라는 명제의 실현으로서 실행되었다. 단순한 의례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체계의 구현으로서의 의례이었다. 조선사회의 서원은 여러 면에서 주목되는 교육기구이었다. 그 기구의 존재가치의 한

180 『大邱府事例』에서는 두 곳 모두 因鄉狀庚戌官封이라 기록하였는데 庚午로 바로 잡는다.

축이 의례이었다.

서원의 향사는 이러한 서원의 기능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향사 역시 서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자리잡았던 것이었다. 서원향사를 통하여 원생들은 유학의 가치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 갔다. 그들은 전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혹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그를 통하여 성리학이 조선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서원이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원에 따라 일부 행례를 조정하면서 준행되었던 것이다. 그를 통하여 학문적, 지역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혈연적 유대를 심화하기도 하였다

2. 전승 계보의 명확성

각 서원은 서원 제향의례의 흘기笏記를 작성하고 「춘추향례의절」, 「진설도」 등 각종 의례에 관한 기록물을 생성하여 보존함으로써 원형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의례는 서원의 임원뿐만 아니라 원생들을 의례에 적극 참여시켜 의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승할 수 있었다.

3. 전통적 지식체계의 학습과 발전적 전수

아울러 서원들은 먼저 만든 의례를 전범으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공유와 그것의 공고화 그리고 지식의 외연과 내용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례를 수정하듯이 일정 시기까지 의례는 수정되었다. 천곡서원의 향사를 둘러싸고 정구가 제자와 논의한 사례를 보면 행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향사의 「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 천곡서원의 흘기에는 희생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에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각종의 의례서와 현실의 조건 등을 고려한 논의로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¹

오산서원의 향사례는 선행한 여러 서원의 향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변형 수용한 것이었다. 전해오는 지식체계를 현실의 조건에 맞추어 교정하여 계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 지식과 경험의 공동의 전승이고 학습이었다. 말 그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의논하여 고치는 것이었다.¹⁸²

이렇게 의례는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일부 진찬의 진설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큰 틀을 변경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¹⁸³

4. 전승 내용의 수월성

사제지간의 계보를 통하여 전승된 서원 향례는 때로는 수정되어 전승되었는데 이는 전통 지식의 보존을 의미하였다. 의례가 생성된 근원 학문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유교 가치를 가장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제례이었기에 끊임없이 선례를 확인하고 교정한 것이었다. 그를 통하여 생산된 각종의 관련 문서는 한편으로는 탁월한 기록문화의 생성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례라는 행위규범의 지속적인 체현이었다.

5. 학습과 계승의 보장성

서원은 제향의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조물(공간), 운영 및 관리자 집단, 후원 집단(유림)을 두고 있다.

181 寒岡先生文集卷之六, 答問, [答李景發]

182 『寒岡先生文集』 卷之六, 答問, 「答李以直」, “齊會之日. 兪共議改之”. 천곡서원의 별사 충현사의 위판을 봉안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종류의 의견을 나누던 중 제례의 복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구의 답변이었다.

183 한재훈, 2013.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김영미, 2013.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22.

각 서원은 의례를 준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형을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9개 서원은 연합하여 향사 자료를 수합한 자료집을 간행하였다.¹⁸⁴ 각종 기록의 보존과 전승, 행례 등의 규범화를 통한 의례의 보편성의 유지노력, 행례의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활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휴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등이 보존되고 있다.

유학이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이었지만 그 학문적 성과를 시대를 넘어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는 유림이라는 전승집단이 있다는 점과 그들이 조직화 되어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승의 확실한 조건이다. 특히 현재 시연되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라고 하는 점은 전승을 보장하는 첫째 조건이다.

나오는 말

조선사회에서는 여러 수준의 관계를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서원에서의 여러 행례 가운데 하나이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구체적 행위규범의 표현이라면 서원 향사는 유학적 가치관의 행위규범이었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는 이 행위규범을 세우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서원의 제향의례이었다.

그러한 서원의 제향의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존중이었다. 학문적 가치에 대한 공동 인식과 그를 공유한 사람들에

184 그 사례의 하나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46 이다.

대한 존중, 지역적 관계에 대한 존중, 혈연적 관계에 대한 존중이었다. 선현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 전통에 대한 존중, 역사의 공유, 문화의 공유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서원 제향의례는 문화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무형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그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곧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생각할 때에 그 문화는 행례자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사회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원의 제향의례를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당위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 9개 서원 홀기 비교 · 검토를 중심으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 재 훈

- I. 들어가는 말
- II. 기일(期日)과 성생(省牲)
- III. 진설(陳設)
- IV. 행례(行禮)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에당초 서원(書院)은 당대(唐代)에 장서(藏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강학(講學)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던 당대의 서원은 아직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시설이었는데, 북송(北宋)에 이르러 비로소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북송의 서원은 장서와 강학의 기능에 향사(享祀) 기능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원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¹ 서원의 초기 향사례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진(東晉) 시대에 국자학(國子學) 서쪽에 공자묘(孔子廟)를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관학(官學)의 묘학제도(廟學制度)를 전범으로 삼아 모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²

1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2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

그러한 서원 향사례가 독자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채의(釋菜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석채의에서 공자를 선성(先聖)으로 하고,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를 선사(先師)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이동(李侗)을 선현으로 하여 향사를 봉행했다.³ 그러면서 주자는 “공자는 학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⁴고 하면서, 안자·증자·자사·맹자를 배향한 이유와⁵ 송대의 칠현을 종사한 이유⁶를 모두 도통(道統)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중국의 서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시켜 갔던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향사 대상의 선정이나 향사 의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향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서원이 위치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현 중에서 도의와 충절이 있는 인물로 선정하되 도학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⁷ 이는 공자가 향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는 중국의 서원과 구별되는 한국 서원만의 특징이다.⁸ 이러한 대상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제품(祭品)의 규모나 기일(期日) 등 향사 규모의 차이로 연결되었다. 즉, 한국 서원의 향사

頁.

3 『朱子語類』 卷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顏氏. 郕侯曾氏. 沂水侯孔氏. 鄒國公孟氏西向配北上, 並紙牌子; 濂溪周先生東一. 明道程先生西一. 伊川程先生東二. 康節邵先生西二. 司馬溫國文正公東三. 橫渠張先生西三. 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4 『朱子語類』 卷90: “祭孔子必於學.”

5 『朱子語類』 卷90: “配享只當論傳道, 合以顏子. 曾子. 子思. 孟子配.”

6 『朱子全書』 卷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曰有繼. 周. 程授受, 萬理一原. 曰邵. 曰張, 爰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7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봉서원(迎鳳書院)의 봉안 대상의 위치(位次)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의이다. 영봉서원 위치 시비와 관련해서는 鄭萬祚, 『退溪李滉의 書院論』(『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에 그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과 달리 제향인물을 선정하고 그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도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퇴계(이황)와 금계(황준량)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역사교육논집』 54권, 201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8 柳肅,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규모는 국학이나 향교의 석전에 준하되 융쇄(隆殺)의 차등을 두게 된 것이다.⁹

한국 서원의 향사는 국학의 석전 등을 모방하되 이와 같은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에 담긴 유학의 도통의식을 담아내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갖추어 갔다. 아래에서 비교·검토하게 될 9개 서원 향사의 내용은 한국의 서원들이 저마다 같으면서도 다른 다채로운 향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개별 서원이 선현을 받드는 방식의 최선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II. 기일(期日)과 성생(省牲)

1. 기일(期日)

조선시대 서원 향사의 기일은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의 중정일(中丁日)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몇 서원에서는 계춘(季春: 음력 3월)과 계추(季秋: 음력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9개 서원의 경우도 7곳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에서만 계춘과 계추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도표1】 9개 서원 향사 기일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기일 (期日)	季春·秋 上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季春·秋 上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는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성

9 이와 관련해서는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진단학보』 90호, 2000) 참조.

균관이나 향교 등 국학에서 선성·선사·선현 등에게 석전을 봉행하기¹⁰ 때문에 이와 차등을 두기 위해서이다. 이는 1605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한 한강(寒岡) 정구(鄭逋, 1543~1620)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가 실은 본원이 되는 곳임에도 근래에 너무 심하게 퇴폐한 관계로, 학식이 있는 선비들조차 유속에 뒤섞여서 (향교의 제향을) 남의 집 제사 보듯 하니 이 어찌 성인을 존중하고 도를 옹위하려는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원임(院任)이 상정일에 지역 유생들을 인솔하고 먼저 석전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에 봉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한 몸이면서도 선후의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¹¹

이렇게 국학과 서원의 향사 기일에 차등을 둬으로써 관학과 사학 사이의 질서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생각은 서원과 향사(鄉祠)의 기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향사의 기일은 보통 중춘과 중추의 하정일(下丁日)로 정하게 되었다.¹²

국학과 서원 그리고 향사의 기일 사이에 이러한 질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서원에서는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백운동서

10 『朱子全書』 別集卷8 「釋奠申禮部檢狀【見臨漳語錄】」: “釋奠時日, 注云: ‘仲春上丁, 仲秋下丁.’ 某檢準紹興. 乾道. 淳熙令, 並云‘二月. 八月上丁釋奠文宣王’, 即無‘下丁’之文. 又嘗竊見『五禮』申明冊內有當時州郡申請, 禮局已改‘下丁’爲‘上丁’訖, 其後又見故數文閣待制薛弼任杭州教授時所申. 今到本州檢尋頒降舊本, 却無此條. 恐是前後節次頒降, 致有漏落. 將來如蒙別行鑄板, 即乞先於儀內改‘下丁’作‘上丁’字. 仍檢申明冊內, 備錄此條全文, 附載篇末, 以證元本之失.” / 『國朝五禮序例』 吉禮·時日: “仲春. 仲秋上丁, 釋奠文宣王.”

11 『寒岡集』續集卷4 「院規【爲道東作】」: “鄉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頹敝太甚, 雖有識之士, 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每值上丁, 率境內儒生, 先期齊會釋尊後, 本院祀事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 先後有倫也.”

12 『睡谷集』卷10 「報恩縣成東洲趙重峯兩先生鄉祠記」: “每春秋仲月下丁, 一縣儒品長少畢會, 具牲牢以薦獻, 如釋菜之儀. …… 其用下丁, 以院享在中丁也.”

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향사일을 ‘계월 상정’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¹³ 다음으로는 그 뒤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지만, 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병산서원 역시 계춘과 계추의 상정을 향사기일로 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특별한 설명은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병산서원의 경우 지리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을 도남서원(道南書院)의 관련 기록에서 추론할 수 있다. 도남서원의 원생들이 “가을장마에 물이 불어나면 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중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하던 것을 계월 상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며 정구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정구는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 의절에 관해 많은 내용을 개정하면서도 향사 기일만큼은 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월 상정으로 기일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¹⁴ 병산서원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일을 그와 같이 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성생(省牲)

성생은 향사에 바칠 희생이 살이 차서 튼실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의식이다.¹⁵

13 『竹溪志』·「雜錄後」 院規: “上巳之清明. 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追而祭之, 公必樂而降歆.”

14 『寒岡集』卷3 「答道南院生」 道南院生問: “院在長江大川之間, 每遇秋雨大浸, 則四方士子至者甚少. 竊念書院享祀, 國中通用仲月中丁, 不敢有異議, 而事勢如右, 欲用季月上丁, 以避水潦, 得免闕事之患. 此又非全無所據, 嘗見周愼齋所定紹修儀範, 軌中未穩處, 退溪先生多所評改, 而祭用季月上丁一段則不改. 若是大段未安, 則必不仍存, 就季月上丁以行何如?”

이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瞰牲),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 필암서원에서는 충돌례(充腠禮)라고 달리 부르고 있지만 같은 의식이다. 성생은 정해진 의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당서(新唐書)』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자는 태상경을 인도하고 찬인은 어사를 인도한다. 단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 씻는 것을 살펴본다. 그런 뒤 내려와 성생위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선다. 능희령이 조금 앞으로 나와 “성생을 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태상경이 성생을 한다. 능희령이 북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까? [돌(腠)]”라고 하면, 모든 태축들이 각자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다. [충(充)]”라고 한다. 모든 태축들과 능희령은 줄을 지어 희생을 끌고 푸줏간으로 가서 태관에게 넘겨준다.¹⁶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의식절차가 실려 있다.¹⁷ 다만 문선왕(文宣王: 孔子)에게 올리는 석전은 중사(中祀)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한다.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희생의 충돌(充腠)을 살핀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¹⁸ 물론 이것은

15 『舊唐書』 卷24 志第4·禮儀4: “太牢皆棧飼於廩犧署, 以至充腠. 臨祭, 視其充瘦, 謂之省牲.”

16 『新唐書』 卷11 禮樂志第1: “謁者引太常卿, 贊引引御史, 入詣壇東陛升, 視滌濯, 降就省牲位, 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太常卿省牲. 廩犧令北面舉手曰‘腠’,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曰‘充’. 諸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厨授太官.” / 참고로 『大唐開元禮』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唐開元禮』 卷16, 吉禮·省牲器: “謁者引太常卿, 就省牲位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退復位. 太常卿省牲. 廩犧令又前, 北面舉手, 曰‘腠’, 還本位.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 曰‘充’, 俱還本位. 諸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厨, 授太官令.”

17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終獻官, 【若領議政爲亞獻, 則亞獻官省牲器.】 贊引引監察升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舉羈告潔. 訖, 引降就省牲位, 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終獻官省牲. 掌牲令又前, 舉手曰‘腠’,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西向舉手曰‘充’, 俱復位. 請大祝與掌牲令, 以次牽牲詣廚, 授典祀官.”

18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 【外則無監察.】 俱

서원에서 성생을 하는 의식은 아니고 국가 전례이다. 그러나 헌관들이 성생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생을 할 때 ‘돌(膂)’과 ‘충(充)’을 외치면서 희생의 상태를 교차 점검하는 의식은 서원의 성생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전례를 참고하였겠지만 정해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서원의 경우 「성생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위에 이른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축은 희생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다. 사생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축이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찢습니다[充]”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이 조금 앞으로 나서 손을 들며 “살이 찢습니다[膂]”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은 희생을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사관에 넘겨준다.¹⁹

소수서원의 성생은 앞서 살펴본 국가 전례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의식절차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 전례에서는 능희령 또는 장생령이 먼저 “살이 찢습니까[膂]?”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 태축(또는 대축)이 “살이 찢습니다[充].”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축이 먼저 “살이 찢습니다[充]”라고 말하면, 이에 대해 사생이 “살이 찢습니다[膂]”라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전례의 성생례는 희생을 담당할 부서에서 희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물으면 제관들이 이를 살펴본 다음 충분하다고 답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제관(축)이 먼저 말하고 담당자(사생)가 나중에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생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원에

以常服，視牲充膂。”

19 『紹修書院誌』: “謁者引獻官，詣省牲位。○近南北向。○祝位於牲西東向。○司牲位於牲東西向。○祝巡牲一匝。○東向舉手曰‘充’。○退復位。○司牲少前舉手曰‘膂’。○退復位。○司牲牽牲詣廚。○授典祀官。”

서 국가 전례처럼 희생을 키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충분함을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는 유사가 묻고 헌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헌관이 희생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선다.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희생의 주위를 세 바퀴 돈 뒤, 손을 씻고 꿇어앉아 희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헌관을 향해 “살이 찼습니다(膺)”라고 하면, 헌관은 “살이 찼습니다(充)”라고 말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이 의식을 감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도로 축과 장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와 헌관이 감생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할 때 ‘충(充)’이라 하고, 답할 때 ‘돌(膺)’이라 하기도 한다.”는 말을 첨부해두었다.²⁰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사와 헌관이 희생의 충(充)·돌(膺)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유사가 희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국궁을 하고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희생의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헌관은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²¹

이밖에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충’을 고하면 헌관이 ‘돌’로 응

20 『玉山書院笏記帖』: “獻官立於牲南北向. 齋有司自西折旋而左巡者三, 盥水帨手, 跪而檢摩牲, 向獻官揖告曰‘膺’, 獻官曰‘充’. 【或告充答膺.】”

21 『陶山書院儀節』: “有司就牲前北向立, 鞠躬告曰‘充’. 獻官就牲東西向立, 應曰膺. ○有司又就牲西東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南北向立, 應曰膺. ○有司又就牲北南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西東向立, 應曰膺.”

답하도록 되어 있고,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돌’을 고하면 헌관이 ‘충’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은 성생하는 절차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원의 향사례 자체가 정해진 예제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국가 전례를 참고하면서도 그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국가 전례 가운데 어떤 점은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표2】 9개 서원 성생례(省牲禮)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성생 (省牲)	祝: 充 司牲: 膺	祝: 充 獻官: 膺	有司: 膺 獻官: 充	有司: 充 獻官: 膺	祝: 充 獻官: 膺	祝: 膺 獻官: 充	-	-	-

Ⅲ. 진설(陳設)

1. 보궤(簠簋) · 변두(簋豆)

서원에서 진설하는 제기(祭器)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학에서 시행하는 석전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보면 국학에서 시행하는 선성과 선사에게 올리는 석전의 경우 “보(簠) · 궤(簋) 각각 2개, 변(簋) · 두(豆) 각각 10개 그리고 등(甗)과 형(鉶)과 조(俎)는 각각 3개”라고 했고, 주현(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의 경우 “보 · 궤 각각 2개, 변 · 두 각각 8개 그리고 조는 각각 3개”라고 했다.²³ 『국조오례의』에서도 주현의 경우 조가 2개

22 『寒岡集』卷6 「答李景發」: (問)“『笏記』無省牲儀. 國學則初獻官省牲, 而祝告充膺; 州縣則終獻官省牲, 而不告充膺, 未知院享則何以爲之?” (答)“『舊儀』, 初獻官以下就繫牲處列立, 祝告充膺.” 【右川谷奉安】

라는 것만 다를 뿐 대부분 『대당개원례』의 형식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²⁴

서원의 향사는 대체로 보·쾌는 각각 1개, 변·두는 각각 4개로 하는 규모를 채택하였다. 이는 국학이나 향교보다는 간소하지만 국학이나 향교의 종향위(從享位)에 올리는 규모(변두 각각 2개, 보쾌 각각 1개 그리고 조 1개)²⁵보다는 융숭한 것으로, 국학이나 향교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그것과는 융쇄(隆殺)의 차등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9개 서원 별로 진설되는 보·쾌와 변·두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9개 서원에서 진설하는 보·쾌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도표3】 9개 서원 진설: 보(簋)·쾌(簋)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보(簋)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량(梁)			량(梁)					
쾌(簋)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량(梁)
	직(稷)			직(稷)			직(稷)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원은 보·쾌가 각각 1개씩인 데 비해 소수서원과 도산서원만 보·쾌가 각각 2개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했던 주세봉이 보·쾌는 주현(향교)과 같게 하는 대신 변·두와 조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격의 차이를 두었는데 이를 이황이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산서원의 경우는 생전에 이황이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다만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계미국감(癸未國減)’²⁶ 이후에는 보·쾌를

23 『大唐開元禮』卷1 『序例上』: “春秋釋奠於孔宣父, 九十五坐, 先聖, 先師各簋十, 豆十, 簋二, 簋二, 瓚三, 鉶三, 俎三.” 같은 책 같은 곳: “州縣祭社稷, 先聖, 釋奠于先師, 每坐各簋八, 豆八, 簋二, 簋二, 俎三.”

24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2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釋奠從享【州縣同】」 참조.

26 계미국감(癸未國減): ‘국감(國減)’은 나라에서 해당 의식이나 진설을 감쇄(減殺)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계미년에 보·쾌를 각각 2개에서 1개로 감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계미년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개씩 진설하고 있으며, 소수서원도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보·쾌를 1개씩 진설하고 있다.

한편, 보·쾌에 담는 내용물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래 보·쾌가 2개씩인 경우에는 보에 도(稻)·량(梁)을 담고, 쾌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다. 그런데 보·쾌를 1개씩으로 줄이면서 대체로 보에는 도·량 중에 도를 담고, 쾌에는 서·직 중에 서를 담는다. 그러나 병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경우에 보에 도를 담는 것은 동일하지만, 쾌에 담는 내용물이 다른 서원들과 차이가 있다. 병산서원에서는 쾌에 서·직 중에 직을 담도록 하였고, 돈암서원에서는 쾌에 서·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보에 담았어야 할 량을 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9개 서원에서 진설하는 변·두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도표4】 9개 서원 진설: 변(籩)·두(豆)

		소수	남계	옥산 ²⁷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변 (籩)	포 (脯)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²⁸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능인(菱仁)
	과 (果)	조(棗)	조(棗)	조(棗)	조(棗)	행(杏)	조(棗)	조(棗)	조(棗)	
		백(柏)	율(栗)	율(栗)	백(柏)	율(栗)	율(栗)	율(栗)	율(栗)	율(栗)
두 (豆)	해 (醢)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²⁹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구(韭)
	저 (菹)	구(韭)	구(韭)	근(芹)	구(韭)	근(芹)	구(韭)	구(韭)	근(芹)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9개 서원 가운데 8개 서원은 4변·4두를 진설하고 있으며,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변에는 주로 포(脯)와 과(果) 같은 물기

27 옥산서원의 구(舊)진설도는 퇴계가 수정하기 이전 백운동서원의 진설도와 같았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1993, 3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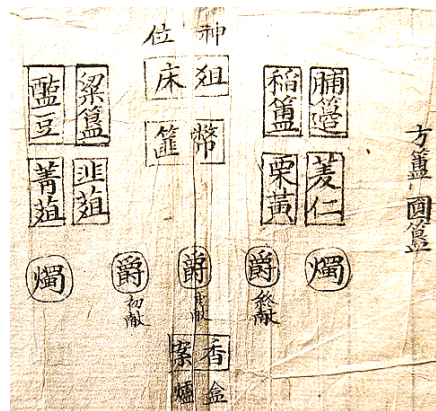
28 돈암서원에서 진설하는 포(脯)는 녹포(鹿脯)를 사용하되 장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포(牛脯)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29 돈암서원에서 진설하는 해(醢)는 녹해(鹿醢)를 사용하되, 장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토해(兔醢)-치해(雉醢)-어해(魚醢) 순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가 없는 제수를 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두에는 주로 해(醢)와 저(菹) 같은 물기가 있는 절임류의 제수를 담는다. 포에는 녹포(鹿脯)와 어숙(魚鱗), 해에는 녹해(鹿醢)와 어해(魚醢)를 사용하고, 저에는 채소의 절임류를 사용하여 맛은편의 과일과 짝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거의 모든 서원에서는 녹포(鹿脯)와 녹해(鹿醢)를 장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슴고기 대신 쇠고기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일 역시 서원마다 달라서, 대추(棗)와 밤[栗]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잣[柏]과 은행[杏] 또는 마름열매[菱仁]가 사용되기도 한다. 야채도 무[菁]는 모든 서원에서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부추[韭] 또는 미나리[芹]를 사용하는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대동소이한 진설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형식의 진설을 하는 곳이 돈암서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암서원에서는 보·궤에 각각 도·량을 담도록 하여 다른 서원들이 도·량 중에 하나를 보에 담고 서·직 중에 하나를 궤에 담는 것과 다른 대조를 이루었다. 돈암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변·두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다른 서원들이 모두 4변·4두를 사용하는 데 비해 돈암서원에서는 3변·3두를 진설하고 있다.³⁰



[참고: 돈암서원 진설도]

이렇게 서원 향사에서 변과 두에 육(녹)포와 어숙 육(녹)해와 어해가 각각 균형을 이루면서 진설되고, 또 다른 변과 두에 과일과 채소가 역시 2개씩 균형을 이루면서 진설되는 데는 1549년 이황이 수정한 백운동서원 향사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황은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蜜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꼽는다. 이황이 진설에서 밀과의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풍속(國俗)에 따른

30 돈암서원에서 3변·3두를 진설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돈암서원 관계자들도 〈진설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설미(蓂味)’이기 때문이었다. 즉, 엄연한 교육기관인 서원의 향사에 이런 ‘설미’를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밀과를 변(籩)이 아닌 두(豆)에 진설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황은 지적했다.³¹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황은 밀과를 진설에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좌측 변과 우측 두에 올리는 제수 역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밀과를 제거하고 녹해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변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鱸)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변(左籩)의 포·과와 우두(右豆)의 해·저가 둘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³²

이황은 기존의 진설에서 우측 두에 ‘밀과’를 올렸던 관행을 고쳐 ‘녹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좌측 변에도 세 종류의 과일을 올리던 것을 두 종류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한 곳은 ‘어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좌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변(左四籩)과 우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두(右四豆)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즉, 좌측 변에 두 종의 포[녹포와 어숙]를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의 해[녹해와 오해]를 진설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가 하면, 좌측 변에 두 종의 과[대추와 잣]를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의 제[무와 부추]를 진설함으로써 역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던 것이다.³³ (아래 【도표5】 참고)

31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既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蜜果蓂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32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7. 退溪笏記, (121쪽):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籩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鱸, 則左籩脯·果, 右豆醢·菹, 兩兩相對, 無參差矣.”

33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참조.

【도표5】 소수서원 춘추향도 수정 전·후 비교											
愼齋 制定: 安文成公春秋大享圖						退溪 修正: 安文成公春秋享圖					
右四豆		神位		左四籩		右四豆		神位		左四籩	
魚醢	蜜果	簋(黍)		簋(稻)	乾棗	魚醢	鹿醢	簋(黍)		簋(稻)	魚鱠
菁菹	韭菹	簋(稷)		簋(梁)	栢子	菁菹	韭菹	簋(稷)		簋(梁)	鹿脯
		鷄腥			栗黃			鷄腥			乾棗
		俎						俎			栢子
		幣簋						幣簋			
燭		香爐		燭		燭		香爐		燭	
爵		爵		爵		爵		爵		爵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이황은 혹시 녹해와 어숙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균형 잡힌 진설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두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차라리 녹해 대신 근저(芹菹: 미나리)를 올리고, 예전처럼 어숙 대신 다른 과일을 올린다. 그리하면 예의 본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밀과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⁴

이렇게 녹해 대신 근저를 올리고 어숙 대신 과일 올리게 되면, 좌변에는 포 1종과 과일 3종[一脯三果]이 올려지고 우두에는 해 1종과 야채 3종[一醢三菹]이 올려지게 되어 역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이황은 서원 향사례의 진설에서 좌변과 우두의 균형을 매우 중시했다.

2. 생(牲) · 폐(幣)

34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若鹿醢·魚鱣有未備, 則寧以芹菹代鹿醢, 而仍以果代魚鱣, 庶不失禮之本意, 蜜果恐不可用也.

향사에서 올리는 생(牲)은 조(俎)에 올려서 진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진설되는 조의 개수가 곧 생의 규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국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에서는 태뢰(太牢) 즉, 우(牛)·양(羊)·시(豕)를 올리기 때문에 조가 3개이고, 주현의 향교에서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만 올리기 때문에 조가 2개이다. 그러나 국학과 향교에서도 종향(從享)에게는 조가 1개이고 이 경우에는 시성을 올린다.³⁵ 조선의 서원에서는 대부분 시성만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향교의 석전과 비교했을 때 융쇄의 차등을 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다만 시성을 올릴 때 원래는 요즘에 와서는 돼지머리만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원래는 성생(省牲)을 하는 의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돼지 1마리 전체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각 서원 별로 진설되는 생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도표6】 9개 서원 진설: 생(牲)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생(牲)	시(豕) ^{*36}	시(豕)	시(豕) [*]	시(豕) [*]	시(豕)	시(豕)	저(猪)	시(豕)	시(豕)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서는 특이하게도 원래 계성(鷄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鷄)는 『주례(周禮)』에 등장하는 육생(六牲) 중 하나이고,³⁷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오생(五牲)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³⁸ 『예기(禮記)』에도 여러 희생들 중 우(牛)·시(豕/豚)·양(羊)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다.³⁹ 이런 전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계가 우·양·시와 차등을 가지면서도 주요한 희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

3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36 시(豕)^{*}: 원래는 계성(雞腥)이었던 것이 나중에 시성(豕腥)으로 바뀐 경우이다.

37 『周禮』·「地官·牧人」: “掌牧六牲而阜蕃其物, 以共祭祀之牲牷.” 鄭玄: “六牲, 謂牛. 馬. 羊. 豕. 犬. 鷄.”

38 『左傳』昭公十一年: “五牲不相爲用.” 杜預: “五牲, 牛. 羊. 豕. 犬. 鷄.”

39 『禮記』·「曲禮下」: “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 豕曰剛鬣, 豚曰腍肥, 羊曰柔毛, 鷄曰翰音, ……”

등에서 희생으로 계성을 채택한 까닭 역시 서원의 위상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대안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서원의 향사례에서 계성을 올리는 것은 백운동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준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황이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서원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준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한동안 서원 향사례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정구의 고제인 동호(東湖) 이서(李筵, 1566~1651)도 “도산서원과 서계서원의 준례에 따라 계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⁰ 하지만 계생을 쓰는 것은 적어도 17세기 초반 이후에는 서원의 향사례로서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었고,⁴¹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서원에서 시생으로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본래 계성을 올리던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도 시생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폐(幣)는 비(篚)에 담아서 진설을 하게 된다.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 역시 향사의 위상과 규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국학과 향교의 석전인 경우 문선왕과 배위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향을 한 뒤에 이것을 올리라”[上香後奠此]고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종향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⁴² 서원 향사례의 경우에는 서원 별로 폐비를 진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도산서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폐비를 진설하다가 나중에 ‘무진국감(戊辰國減)’⁴³의 조치에 따라 진설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 각 서원 별로 폐비가 진설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40 『東湖集』卷1 「答金圓菴以謙」: “書院之不用鷄牲, 先生嘗言其非. …… 依陶山. 西溪例用鷄牲, 則正是先生之遺意也.”

41 『无悶堂集』別集卷1 「龍淵書院請額疏[周案]」: “春秋享祀, 亦多苟簡, 薄酒鷄牲, 未成儀式.” 참고로 무민당(无悶堂) 박인(朴綱, 1583~1640)은 17세기 초반에 활동했다.

42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43 무진국감(戊辰國減): 여기에서 말하는 무진년이 몇 년도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서원철폐령이 내려진 1868년(고종 5)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도표7】 9개 서원 진설: 폐(幣)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폐(幣)	◎ ⁴⁴	○	◎	×	○	○	×	○	○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는 향사의절에서 전폐례를 시행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망예(望瘞) 또는 망료(望療)를 할 때 축문과 폐를 함께 묻거나 불사르느냐 아니면 축문만 묻거나 불사르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폐를 할 경우에는 축문에도 이를 명시하므로 축문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수서원의 경우 진설도에는 폐비가 명시되어 있지만, 주세붕은 「의도제용잡물식」에서 “별제(別祭)가 아니면 폐를 사용하지 말라”⁴⁵고 하였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황이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할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 옥산서원 역시 현전하는 홀기의 진설도에는 폐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진설도에는 폐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현행 축식에는 “청작생폐(淸酌牲幣)”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축식에는 “청작결생(淸酌潔牲)”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폐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⁶ 따라서 현전하는 홀기에 전폐례가 있고 망료례를 행할 때도 축문과 폐를 함께 불사르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병산서원은 진설도에도 폐비가 없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례가 없으며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 서원들과 달리 나머지 서원들에서는 폐비를 대부분 진설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폐포(幣布)는 29척(정위: 18척, 배위: 11척)”이라고 폐의 종류와 규모까지 명시하고 있다.⁴⁷ 돈암서원에서도 “폐는 저포(苧布)를 사용하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1장8척이다. 저포가 없을 경우 백포(白布)나 백면포(白

44 ◎ : 처음에는 폐(幣)를 올리지 않다가 나중에 올린 서원을 뜻한다.

45 『竹溪志』·「依圖祭用雜物式」: “非別祭, 勿用幣.”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1993, 영남대학교출판부, 39쪽.

47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幣布二十九尺【正位十八尺, 配位十一尺.】”

綿布)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⁴⁸ 도산서원의 경우는 진설도에 폐가 명시되어 있어서 원래는 폐를 진설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좌우에 ‘무진국감(戊辰國減)’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처에 따라 더 이상 폐를 진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홀기에도 전폐례에 관한 글귀들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였고,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게 하였다.

IV. 행례(行禮)

이제 본격적으로 향사의 행례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향사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을 홀기에 반영하여 기술한 서원도 있고,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홀기 자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기술한 서원도 있다. 여기에서는 9개 서원의 홀기를 효과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본격적으로 향사를 진행하기 위해 헌관(獻官) 이하 참석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취위(就位)이다. 둘째는 초헌관(初獻官)이 신위(神位)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상향(上香)·전폐(奠幣)이다. 셋째는 초헌관이 신위에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初獻)이다. 넷째는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신위에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亞獻)·종헌(終獻)이다.(원래 아헌과 종헌은 별도의 절차이지만 행례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합쳐서 다루었다.) 다섯째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음복을 하는 음복(飲福)·수조(受胙)이다. 여섯째는 제기를 치우고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움으로써 향사 의식을 정리하는 철변두(撤籩豆)·망예(望瘞)이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여섯 단계 각각의 내용을 9개 서원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단계별로 비교·검토하였다.

48 遼巖書院, 『遼巖書院誌』: “幣【用苧布, 長一丈八尺, 用造禮器尺. 無則代以白布, 或白綿布.】”

1. 취위(就位)

서원 향사에서 헌관 이하 제관(祭官)들 및 학생 등 일반 참석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취위(就位)라고 하며, 입정(入定) 또는 입정(立定)이라고도 한다. 서원 향사의 본격적인 행례는 이 취위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서원에 따라서는 장찬(掌饌)이 제사음식을 진설하는 것부터 행례를 기록하는 홀기도 있고, 초헌관이 이미 진설된 것을 점시(點視)하는 것부터 기록하는 홀기도 있다.

취위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향사 의례를 진행하는 집사(執事)들이 먼저 외위(外位, 또는 門外位)에 이른다. 이어서 삼헌관(三獻官)이 외위에 이른다. 그런 다음 집사들이 먼저 절을 올리는 배위(拜位)로 가서 절을 올리고, 손을 씻는 관세위(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은 다음 각자의 위치로 간다. 다음으로 삼헌관이 배위로 가면, 알자나 찬자가 초헌관에게 와서 제사를 봉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삼헌관이 절을 올림으로써 본격적인 행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서원별 홀기에 따라 상세함의 정도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큰 줄거리는 위와 같다. 다만, 이 과정과 관련하여 서원 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신위의 독(櫝)을 여는 개독(開櫝)과 진설한 보·궤의 뚜껑을 여는 개개(開蓋)에 관한 절차이다.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아예 개독과 개개가 홀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고, 남계서원의 경우에는 개독만 기술되어 있고 개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행례를 하기 전에 미리 열어놓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두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의 홀기에는 개독과 개개가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개독과 개개 하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 도산서원·도동서원·무성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 다음에 개독·개개를 하도록 하였고, 필암서원·병산서원·돈암서원에서는 삼헌관이 배위로 가기 직전에 하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옥산서원의 경우에는 초

헌례에서 “축문을 읽기[讀祝]” 직전에 “보·궤의 뚜껑을 열도록[開簾簾蓋]” 하였다.

취위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8】 9개 서원 행례: 취위(就位)

소수	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복주를 모두 마신다[歛卒爵]]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④[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⑤[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⑥[복주를 모두 마신다[歛卒爵]]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
남계	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櫝]→③[초헌관]아래로 내려온다[降]/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門外位]→④[아헌관]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⑤[초헌관]이하뜰 중앙의 자리에 나아간다[就庭中位]→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⑦[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초헌관]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옥산	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④[대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櫝]→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⑦[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산	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③[집사]자신위의 독을 연다[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④[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⑦[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삼헌관·분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
필암	①[헌관]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②[집사·알자·찬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③[집사·알자·찬자·찬인]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④[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⑤[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⑥[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촛불을 켜는다[點燭]→⑦[헌관·학생]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동	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③[초헌관]내려간다[降]/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門外位]→④[아헌]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취위→⑦[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병산	①[찬자·알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②[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④[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⑤[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⑥[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

무성	①[헌관·제집사·학생]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대[就門外位]→②[장찬]손을 씻는대[盥洗]/진설→③[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④[축]신위의 독을 연대[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대[開蓋]/촛불을 켜대[點燭]→⑤[집례·축·찬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학생·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대[各就位]→⑧[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⑨[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⑩[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돈암	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제집사·학생]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대[就門外位]→③[집례·알자·찬인·찬자]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재배한다[再拜]/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대[各就位]→④[학생]자리로 나아간대[就位]→⑤[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대[就門外位]→⑥[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대[各就位]→⑧[축]신위의 독을 연대[開櫝]/보·궤의 뚜껑을 연대[開蓋]→⑨[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대[就拜位]→⑩[헌관·제집사]모두 재배한다[皆再拜]

2. 상향(上香)·전폐(奠幣)

상향(上香)·전폐(奠幣)는 초헌관에 신위 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모두 초헌관이 행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초헌관은 먼저 손을 씻는 자리[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고, 신위 전에 꿇어앉아 향을 피우고 이어서 폐백을 올린 다음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난다. 이때 사당에 정위(正位)와 배위(配位)가 함께 모셔져 있다면 정위에 먼저 상향·전폐를 행하고, 이어서 배위에 같은 방식으로 행한다. 만약에 정위와 종향위(從享位)가 모셔져 있다면 종향위에는 별도로 상향·전폐를 행하지 않는다.(도산서원·병산서원) 이 의식이 갖는 의미는 초헌관이 참석자를 대표하여 향을 피워 신의 강림을 청하고 폐백을 바침으로써 서원의 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향과 전폐는 서원별 홀기에 따라 상향·전폐례를 다른 의식과 구분하여 표제어로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무성서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취위의 과정 속에 포함시켜서 기술한 경우도 있고(도산서원·필암서원·병산서원), 상향례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전폐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소수서원), 반대로 전폐례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상향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옥산서원·돈암서원⁴⁹⁾. 어차피 이 의식을 모두 초헌관이 행하기 때

문에 초헌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남계서원·도동서원).

참고로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진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홀기에서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중에 춘추향(春秋享)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의식과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홀기(舊笏記)에서는 상향(上香)을 하지마자 초헌(初獻)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너무 검소한[太儉] 것이다.⁵⁰

상향·전폐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는 상향례만 행하고 전폐례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도산서원에서 전폐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진국감’ 이후의 일이며, 병산서원에서 전폐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마 도산서원의 전례에 따른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② 다른 서원들에서는 상향·전폐를 마치면 초헌관이 강(降)·복위(復位)를 하도록 하였는데,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강·복위를 하는 의식이 없다. 이는 이들 두 서원이 상향·전폐를 초헌례 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초헌관이 초헌을 하는 과정 안에서 상향과 전폐를 행하기 때문에 복위를 했다가 다시 초헌례를 위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③ 다른 서원에서는 상향·전폐를 행한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날 뿐 재배(再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계서원에서만 재배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남계서원에서만 재배를 하도록 한 이유는 자상치 않다.

49 참고로 돈암서원의 경우에는 홀기 전체가 모든 절차에 표제어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창홀(唱笏: 홀기의 내용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할 때 “이제 전폐례를 행하겠습니다[於是行奠幣禮]”라는 방식으로 행례 과정에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하 의식도 모두 동일하다.

50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香而旋初獻, 是爲太儉.

상향·전폐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9】 9개 서원 행례: 상향(上香)·전폐(奠幣)

소수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대[北向跪]→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남계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대[北向跪]→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초헌관]재배한대[再拜]→⑦(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
옥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예신위전/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도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예신위전/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 [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 →⑤삼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필암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삼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⑦(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도동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궐→③[초헌관]분향→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
병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예신위전/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⑤[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무성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배위전 상향·전폐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돈암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궐→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대[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대[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3. 초헌(初獻)

초헌관은 초헌례를 행하기 위해 제주(祭酒)가 담긴 술동이(樽)가 있는 준소(尊所 또는 樽所)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준(司尊 또는 司樽)이 술잔에 술을 따르

는 것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가서 꿇어앉는다. 봉작(奉爵)이 초헌관에게 술잔을 주면,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서 전작(奠爵)에게 주고, 전작은 술잔을 받아서 신위 앞에 올린다. 그런 다음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다시 꿇어앉는다. 그러면 축(祝)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초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초헌례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초헌관이 초헌례를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남계서원이나 도동서원에서는 준소에 가기 전에 술잔을 씻는 작세위(爵洗位)에 먼저 들어서 술잔을 씻는 것부터 지켜보도록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② 배위(配位)와 종향위(從享位)가 있는 서원에서 발견되는 향사례의 차이이다. 먼저 배위가 있는 서원에서는 모두 정위(正位)에 대한 헌작과 독축을 마친 다음 배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작을 한다. 하지만 독축 여부는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수서원·필암서원·무성서원처럼 배위에도 각각 독축을 하는 서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배위에 대한 독축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처럼 종향위가 있는 경우에는 종향위에 대해 삼헌을 다 행하지 않고 종헌례를 행할 때 분헌관(分獻官)이 한 잔만 올린다. ③ 초헌관이 초헌례를 마친 다음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의 서원 홀기에는 재배를 올리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남계서원 홀기에는 재배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앞서 상향·전폐례에서도 마찬가지로였으며, 아래 아헌례와 종헌례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옥산서원에서는 보·궤의 뚜껑을 여는 이른바 ‘개개(開蓋)’를 축이 독축을 하기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서원이 개개를 개독과 함께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절차이다.

초헌례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10】 9개 서원 행례: 초헌(初獻)

소수	①초헌관(술동이)가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대(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	--

	는대[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남계	①[초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②[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 [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초헌관엎드 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초 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재배한다[再拜]→⑧(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독축은 없 음)→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옥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집사보・계의 뚜껑을 연다開簾簾蓋]→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초헌관 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도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초헌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필암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도동	①[초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②[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 [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초헌관엎드 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축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대興・復位]→[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⑧(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독축은 없음)→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병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초헌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무성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돈암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 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 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단, 독축은 없음)→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

4. 아헌(亞獻)·종헌(終獻)

서원 향사례에서 헌관(獻官)은 초헌관·아헌관·종헌관 모두 세 명이다. 따라
서 초헌관이 행하는 초헌례와 아헌관과 종헌관이 각각 행하는 아헌례와 종헌례

는 모두 별개의 중요한 의식들이다. 하지만 아헌관과 종헌관의 의식절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로 합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헌관(종헌관도 동일함)은 먼저 손을 씻는 관세위로 가서 손을 씻고, 준소로 가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본다.(남계서원과 도동서원은 초헌례와 마찬가지로 준소로 가기 전에 작세위에 먼저 가서 술잔 씻는 것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신위 앞으로 가서 꿇어앉아 술잔으로 올린 다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만일 배위가 있다면, 정위에 대한 헌작을 마친 뒤 차례대로 배위에 헌작한다. 그리고 종향위가 있는 서원에서는 종헌관이 정위에 헌작할 때 분헌관이 종향위에 헌작을 한다. 아헌례와 종헌례는 서원별로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헌 · 종헌에 관한 9개 서원의 흘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11】 9개 서원 행례: 아헌(亞獻) · 종헌(終獻)

소수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남계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아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④[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⑤[아헌관]잔을 바친대[獻爵]→⑥[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 · 재배한다[再拜]→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종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④[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⑤[종헌관]잔을 바친대[獻爵]→⑥[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 · 재배한다[再拜]→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옥산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⑥[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데[盥洗]→②[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데[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 · 興]→⑥[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 · 復位]

도산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현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대[跪]→④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종헌관・분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대[跪]→④종헌관・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종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필암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현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④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종헌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⁵²</p>
도동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아현관예정위준소→④아현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⑤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⑥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종헌관예정위준소→④종헌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⑤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⑨삼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병산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현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대[跪]→④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종헌관・분헌관신위 앞에 이른대[詣神位前]/꿇어앉는대[跪]→④종헌관・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종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무성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④아현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⑤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⑥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대[詣爵洗位]→③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④종헌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⑤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⑨삼헌관재배</p>
돈암	<p>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③아현관정위 앞에 이른대[詣正位前]/꿇어앉는대[跪]→④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현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p> <p>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대[詣盥洗位]/손을 씻는대[盥洗]→②종헌관예정위준소→③종헌</p>

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꿰어앉는다[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5. 음복(飮福)·수조(受胙)

인간이 정성껏 제수를 장만한 뒤에 향을 피워 신을 청하고 폐백을 바친 다음 석 잔의 술을 올림으로써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향은 끝난 것이다. 이제는 신이 인간의 정성에 감격하여 복을 내릴 차례이다.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는 바로 인간이 신이 주시는 복주(福酒)를 받아 마시고 신이 드시고 남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향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음복·수조 역시 초헌관이 대표로 행하는데, 그 의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헌관은 음복하는 자리[飮福位]로 가서 꿰어앉아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는다. 그런 다음 신위에 감사의 재배를 올린다.

음복·수조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초헌관이 음복하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즉, 서원에 따라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간 뒤에 집사자(또는 축)가 복주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남계·옥산·도동·무성], 집사자(또는 축)가 복주를 따른 뒤에 초헌관이 음복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소수·도산·필암·병산·돈암]. ② 어떤 술을 복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정위의) 준소에 가서 복주로 사용할 술을 새로 따르는데, 남계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 각각에 초헌으로 올렸던 술을 복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동서원에서는 종헌관이 (정위에?) 올렸던 술을 복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③ 조육으로 어떤 고기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정위

51 분헌관은 종향위(從享位)에 잔을 올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향위를 모시는 곳에서는 종헌(終獻)을 할 때 종헌관은 정위에 헌작을 하고, 분헌관은 배향위에 헌작을 한다.

52 1975년 필암서원 홀기에서는 삼헌관이 재배하는 것이 없었으나, 2010년 홀기에는 삼헌관이 재배하도록 수정되었다.

한 분에게 올렸던 조육을 조금 떼내어 사용하는 데 비해, 남계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 각각에 올렸던 조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④ 복주를 마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복주가 담긴 잔을 받으면 모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복주가 담긴 잔을 받고는 입술만 대는 정도로 마시고, 조육을 받은 뒤에 복주가 담긴 잔을 비우도록 하였다. ⑤ 초헌관이 음복위에 가서 꿇어앉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는 데 비해,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서 있다가 집사자가 복주를 잔에 따른 다음 꿇어앉는다고 하였다. 특히 남계서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재배를 하고 꿇어앉도록 하였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색다른 것은 나머지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서쪽을 향해 꿇어앉도록 한 데 비해 도산서원에서만 북쪽을 향해 꿇어앉도록 했다는 점이다. ⑥ 음복·수조가 끝난 다음 올리는 재배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 음복·수조가 끝나고 다음 초헌관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다음 재배를 올리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소수서원처럼 삼헌관 이하 모두가 함께 재배를 올리는 경우와 옥산·필암·병산·무성·돈암 서원처럼 삼헌관만 함께 재배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음복·수조가 끝난 다음 초헌관 먼저 재배를 올리고 이 후에 아헌관 이하 모두가 재배를 올리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처럼 초헌관이 재배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와 도산서원처럼 자리로 돌아온 초헌관이 먼저 재배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음복·수조에 관한 9개 서원의 흘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12】 9개 서원 행례: 음복(飲福)·수조(受胙)

소수	①[집사]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대[詣尊所]→②[집사]복주를 따른대[酌福酒]→③[집사]조육을 떼낸대[減俎肉]→④[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대[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⑤[초헌관]복주를 마신대[飲福]→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대[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대[降·復位]→⑨[헌관 이하 제집사]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남계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대[詣飲福位]·서쪽을 향해 선대[西向立]→②[집사]각 위에 첫 번째 올린 잔의 술을 따른대[酌各位初獻之酒]→③[초헌관]재배하고 꿇어앉는다[再拜·跪]→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대[啐酒]→⑤[집사]각위 앞의 조육을 떼낸대[減各位前俎肉]→⑥[초헌관]

	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飮卒爵→⑧[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⑩[아헌관 이하 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옥산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②[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③[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飮卒爵→④[축]신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神位前胾肉→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산	①[집사]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집사]조육을 떼낸다減胾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④[초헌관]복주를 마신다飮福→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초헌관]재배한다再拜→⑨[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필압	①[봉작]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축]정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正位前胾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④[초헌관]복주를 마신다飮福→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동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서쪽을 향해 선다西向立→②[집사]마지막 올린 잔의 술을 따른다酌終獻酒 ⁵³ →③[초헌관]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다啐酒→⑤[집찬]재조육을 떼낸다減胾肉→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飮卒爵→⑧[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⑩[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초헌관은 절하지 않는다)
병산	①[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축]조육을 떼낸다減胾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④[초헌관]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⑤[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飮卒爵→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⑨[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무성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②[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③[장찬]신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神位前胾肉→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다啐爵→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돈암	①[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축]정위의 조육을 떼낸다減正位胾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飮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④[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飮卒爵→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난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6. 철변두(撤籩豆)·망예(望瘞)

이상의 절차를 통해 엄격한 의미의 향사례는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철변두와 망예는 의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절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53 도동서원에서는 종헌주를 음복주로 사용함

면 철변두는 제사음식을 진설했던 제기를 치우는 것이고, 망예는 신위에 고했던 축문과 신위에 바쳤던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절차이다. 9개 서원 가운데는 홀기에 철변두(撤籩豆)와 망예(望瘞)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검토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철변두는 표현 그대로라면 제기에 올려진 제사음식을 모두 치우고 제기도 정리해야 하겠으나 약식으로 대신한다. 즉, 축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변과 두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축이 이렇게 변과 두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 것으로 철변두를 행하고 나면 제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함께 재배를 올린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병산서원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재배를 올리고 나면 축이 신위의 독을 다시 닫는 폐독(閉櫝)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서원의 경우에는 망예까지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 폐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망예례이다. 초헌관은 사당의 서쪽에 마련된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축이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것을 바라본다. 물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처럼 폐백을 올리지 않는 서원에서는 축문만 묻게 되며,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문을 불에 태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알자(謁者) 또는 찬인(贊引) 등이 모든 예식이 끝났음을 초헌관에게 고하고, 삼헌관 이하 모든 참가자는 차례로 사당을 나가게 된다.

철변두·망예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도표13】 9개 서원 행례: 철변두(撤籩豆)·망예(望瘞)

소수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관을 취한다(取祝板)/내려간다(下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남계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축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③[초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축취폐·축-②[축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望瘞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찬인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옥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헌관·학생재배]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관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下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도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대[北向立]→②[축]축관을 취한다[取祝板]/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
필암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대[北向立]→②[축]축관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찬인]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도동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축]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③[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대[北向立]→②[축]축관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찬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병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재위자·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③[축]신위의 독을 닫는다[閉櫝]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②[축]축관을 취한다[取祝板]/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무성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대[北向立]→②[축]축관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축]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돈암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헌관·제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③[축]위관을 독에 넣는다[納櫝]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瘞位]/북쪽을 향해 선대[北向立]→②[축]정위의 축관과 배위의 폐비를 취한다[取正位祝·配位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

V. 나오는 말

중국 당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해 온 서원은 북송대에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송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향시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서원의 향시는 국학이나 주현의 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을 하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융쇄의 차등을 견지한다. 특히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른바 신유학의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가 하면, 의식절차에서는 훨씬 간소화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서원 향사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1543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며, 이 서원은 이황의 주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다. 이러한 서원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는 등 서원 향사례의 표준을 제공했다. 이후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이황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갔다.

본 연구는 한국의 9개 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의 향사례 홀기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서원 간에 존재하는 향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로써 한국 서원 향사례의 구조와 전승 현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한국의 서원은 향사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석전을 참고하면서도 용쇄의 차등을 견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향사의 기일은 향교의 춘추 석전이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거행되는 것을 감안해 서원의 향사는 대체로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진행했다. 제품 진설과 관련해서도 제기의 개수와 그에 연동하는 제수의 품목을 향교보다 간소한 형태로 조정하였고, 특히 생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폐를 진설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통적 기조 위에서도 한국의 9개 서원은 서원별로 그 의식절차에 다양한 차별성을 만들어 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경우 9개 서원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외의 서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원의 향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 향사례가 대동(大同)을 유지하면서도 소이(小異) 또한 존속케 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서원의 향사례를 넘어 조선시대의 서원문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갔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참 고 문 헌】

- 『禮記』
『周禮』
『左傳』
『後漢書』
『舊唐書』
『新唐書』
『大唐開元禮』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例』
朱熹, 『朱子語類』
朱熹, 『朱子全書』
李滉, 『退溪全書』
鄭述, 『寒岡集』
李籟, 『東湖集』
朴綱, 『无悶堂集』
李畬, 『睡谷集』
『竹溪志』
紹修書院所藏, 『紹修書院誌』, 2007.
玉山書院所藏, 『玉山書院笏記帖』
陶山書院所藏, 『陶山書院儀節』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2011);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2012); 『서원향사-둔암서원·노강서원』(2012); 『서원향사-남계서원·도동서원』(2013); 『서원향사-필암서원·무성서원』(2013).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I. 紹修書院資料, 199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영남문화연구소, 『紹修書院誌』, 2007.
한국국학진흥원,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文苑編刊會, 1975.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호, 2000.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 『역사교육논집』 54권, 2015.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柳肅,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발표문 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서원 제례 관련 문헌의 전승 양상
- III. 서원 제례 문헌의 유형별 활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제례(祭禮)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삶을 영위한 이래,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지향이 여러 제례 형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제례를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질서를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기념식과 의례를 통해 해당 조직과 단체의 위계 파악이 가능하다. 가깝게는 명절의 차례(茶禮)와 기제사(忌祭祀)에서 가정과 집안의 질서가 드러난다.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도 제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초기 국가 시절부터 지역의 권력 집단이 자기 구역 내에서 제천의식(祭天儀式)을 주도하고, 소도(蘇塗)와 같은 제례 영역을 점유하였다. 고대 국가의 중앙집권화 이후에는 여러 사유 체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가 지역에서 거행되는 각종 제례를 대신해 나갔다. 고대에는 호족(豪族), 고려 시대에는 향리(鄉吏) 집단이 향도(香徒)로 대표되는 결사체를 만들어 각종 불교 사업과 제례를 주도하

었다. 권력 집단은 제례를 주관함으로써, 조상·천신(天神), 그리고 부처의 권위를 빌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확보 할 수 있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이 도입되고 새 왕조의 국가 이념으로 정착함에 따라, 자연스레 지역의 권력 구조도 성리학적 체계 내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새 향리 세력이 주도하던 향도는 문묘(文廟)의 석전대제(釋奠大祭)로 대체되었다. 석전대제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과 새로운 지배 계층인 사대부가 주도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향촌 질서의 재편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대부 계층은 문묘 석전대제를 중심으로 확립된 향촌 질서에 만족하지 않았다. 문묘의 석전대제가 사대부 중심의 질서 체제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성리학의 확산과 향촌 개발은 많은 사대부를 재 생산하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례 체계가 필요해졌다. 사대부 세력은 향촌사회에서 학과·당색·혈연을 매개로 자신들 주도의 지배 질서를 확립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문묘 석전대제의 보완요법으로 서원 제례가 사대부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서원 제례는 제향인(祭享人)에 대한 ‘존현(尊賢)’을 넘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서원 제례를 거행함으로써, 해당 집단은 스스로 왕조의 이념 체계인 성리학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 서원은 사학(私學)이지만, 사액(賜額) 유무를 막론하고 관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운영되었다. 이는 곧 서원 제례 주체를 국가 권력 차원에서 공인함을 뜻한다. 따라서 향사(享祀)를 비롯한 서원 제례에도 당시 사대부 중심의 정치·사회적 질서가 함축되어 있다.¹ 향촌 개발과 향촌사회의 다양화를 한국사의 발전 양상으로 이해한다면, 서원 제례가 가지는 의미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원 제례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과 변천 과정뿐만

1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48~49쪽.

아니라, 여기에 얽힌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 제례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헌 자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원 제례 관련 문헌 검토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조선 시대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상 ‘존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 제례는 비교적 늦게 관심을 받았다.² 거기다 서원 제례는 국가 의례가 아닌 사적(私的) 제례로서 법제화 되지 않았고, 향촌의 사대부 계층의 관습에 따라 무형유산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9개소에³ 전승되고 있는 서원 제례 관련 자료의 전승과 유형별 검토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⁴ 기존의 서원 연구가 향촌사회사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만큼, 상대적으로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관심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정리를 통해 향후 서원 제례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정순우,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 진단학회, 2000;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한재훈, 「퇴계의 서원 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 -백운동서원 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추향례·치제례·사액례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3 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

4 당초 본 학술회의에 주어진 주제는 문헌 자료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발표자의 역량 상 제례 변천 과정을 문헌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관계로 현대적 의미는 발표문 마지막에 간략히 제언하고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관련 문헌 자료의 전승 양상과 활용’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II. 서원 제례 관련 문헌의 전승 양상⁵

조선 시대 서원 자료는 1980년대 이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향촌 지배 질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관찬 사료 및 문집 자료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 과정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수·발급한 고문서(古文書) 및 성책류(成冊類)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서원 관련 문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별로 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었다.⁶ 다만, 지금까지 서원 자료는 목록과 간단한 해제 위주로 진행되어 서원 제례와 같은 주제별 검토는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은 일찍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각 지역의 수원(首院)으로서, 향촌사회를 넘어 특정 당색과 학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조선 시대 향촌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지역 사대부와 중앙 정부의 많은 관심 속에 9개 서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적(文籍)이 전한다. 따라서 9개 서원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관찬 사료부터 문집, 고문서·성책류까지 다양한 편이다.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도 이 틀 속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관찬 사료에는 서원 장려책과 지방 교화의 목적으로 사액을 하거나 치제하는 기사가 짙막하게 수록되어 있다.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서원의 특수 의례와 관련된 기사로서 9개 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제향인의 문집 부록에는 서원 제향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치제문(致祭

5 본 발표문에서 활용한 9개 서원의 문헌 자료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기록 및 무형유산 지정가치 연구〉 팀에 참여 중인 김순한·박소희·백지국·이병훈·채광수 선생님과 함께 조사한 것임을 밝힌다.

6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434~435쪽.

文)·봉안문(奉安文)·고유문(告由文)·상량문(上樑文)·상향축문(常享祝文) 등 축문류(祝文類) 및 제문을 수록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당대 저명한 학자·관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연히 해당 인물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서원 문화가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대부의 문집에는 제례 규칙을 정하고 그 절차를 문의하는 글들이 서(書)와 잡저(雜著) 편 등에 산재해 있다. 이들 자료에는 서원 제례의 정립 과정과 서원을 통한 도통(道統) 의식이 드러난다.

고문서·성책류 자료는 서원 운영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것으로 홀기(笏記)·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알묘록류(謁廟錄類), 제례 관련 단자(單子)·통고류(通告類)·소지류(所志類) 및 각종 치부류(置簿類) 자료를 망라한다. 다만, 고문서·성책류의 전승 규모는 소장처에 따라 편차가 있다. 또한 DB 구축⁷⁾, 서원지(書院誌)·자료집⁸⁾ 발간 유무에 따라 자료 접근이 용이한 서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서원도 있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자료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문집류에 수록된 각종 축문류와 제문의 수량은 해당 서원의 제향인 규모, 이건·중수의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고문서·성책류는 대체로 영남 서원에 잘 전승되고 있는 반면, 필암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 서원지 발간을 통해 주요 제례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7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유교넷(<https://www.ugyo.net>);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8 본 발표문에서 활용한 서원지와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지』, 1931;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58; 필암서원, 『필암서원지』, 197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편-, 1994;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199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영남문화연구소,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무성서원지』, 2021; 영주시, 『소수서원 고문서 문화재 지정 신청 보고서』, 2023.

제례 관련 문헌 중에서도 주요 문집과 고문서·성책류 자료의 전승 양상을 9개 서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수서원(紹修書院)

영주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으로서 안향(安珦)·안축(安軸)·안보(安輔)·주세붕(周世鵬)을 제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원의 모범이 된 까닭에 사대부 층은 이른 시기부터 관련 문헌을 주목하였다. 특히 서원 제례의 일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훗날 여러 서원이 소수서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례를 정립해 나갔다.

먼저 소수서원 제례와 관련된 핵심 자료는 『죽계지(竹溪誌)』이다. 『죽계지』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건립을 주도한 주세붕(周世鵬)이 엮은 것으로 이후 몇 차례 중간이 이루어졌다. 제향 관련 기록은 『죽계지』 행록후(行錄後)와 잡록후(雜錄後)에 있는데, 여기에는 제향인 봉안 때 작성된 제문과 주세붕이 지은 경기체가(景幾體歌) 가사로서 향사 때 부르는 「도동곡(道東曲) 9장(九章)」, 진설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제물 쓰는 법식인 「의도제용잡물식(依圖祭用雜物式)」을 수록하였다. 또한 잡록후(雜錄後)의 「원규」에는 제례와 관련해 제향일, 헌관(獻官)과 집사(執事) 인원, 재계일(齋戒日)의 몸가짐을 규정해 놓았다. 특히 「원규」 첫 번째 조항에 근사(謹祀)·예현(禮賢)·수우(修字)·비름(備廩)·점서(點書)로 구성된 5대 강령을 제시해 놓았다.⁹ 이는 초창기 서원에서 ‘존현’, 즉 제례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건 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소수서원 관련 기사를 엮어 놓은 『운원잡록(雲院雜錄)』과 문집류 자료의 제례 관련 기록 대부분은 여러 명현이 남긴 제문·고유문·봉안문 등으로서, 소수서원의 제향 연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황(李滉)의 「안문성공도(安文成公享圖)【배

9 『竹溪誌』, 雜錄後, 「院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字 四曰備廩 五曰點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위동(配位同)】」¹⁰ 주세붕이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죽계지』 수록
홀기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서 16세기 서원 향사 제례가 정립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¹¹

고문서·성책류 자료로는 주세붕과 이황이 제정한 홀기가 전한다. 이황
의 「안문성공도」와 더불어 서원 향사의 정립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
다. 「알묘록(歲謁錄)」은 1730년(영조 6) 1월 5일 신필하(申弼夏)를 비
롯해 20명의 사대부가 소수서원 문성공묘(文成公廟)를 세알(歲謁)한 후,
그 성명과 이때 지어진 차운시를 엮어 놓은 것이다. 「영정처변시사적(影
幀處變時事蹟)」에는 1911년 10월 도난당한 안향 영정을 1912년 새롭게
봉안하게 된 경위와 이때 작성된 고유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수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竹溪誌』	「白雲洞文成公廟開基祭后土文」, 「奉安文成公祭文」 「祭告文成廟從祀文貞文敬文」, 「奉安文貞公祭文」, 「道東曲 九章」 「依圖祭用雜物式」, 「祭式」, 「院規」
『雲院雜錄』	「己未十月十八日告由祭文」(李滉), 「十一月初四日還安祭」(黃俊良) 「方伯安公玆行祭于文成公廟」(安玆), 「祭紹修廟祭文」(沈通源) 「己四月朔後孫榮川郡守祭文」(安瑞), 「告歸祭文」(安瑞) 「敬公位版改造移還安告由文」, 「安文成公位版奉安文」(李玄逸) 「壬寅十月初四日 影幀移安告由文」, 「丁酉春享 在三月上丁」 「辛丑秋事 退行告由文」, 「紹修書院周愼齋先生位牌改題時告由文」(權憲祖) 「愼齋先生位牌改題奉安文」(權憲祖)
文集類	「紹修書院追享時告安文成公文」(周世鵬), 「安文成公享圖 【配位圖】」(李滉) 「祭安文成公文」(李埈), 「祭文成公文」(李埈), 「祭周愼齋文」(李埈) 「祭安文成裕公文貞輔文敬軸文」(李埈), 「白雲洞文成公廟秋享序」(郭山+晉) 「修書院文成公畫像重修」(郭山+晉), 「紹修書院愼齋先生膳享告由」(朴墩) 「紹修書院愼齋周先生追享時告元位」(權滌), 「愼齋周先生奉安祝文」(權滌) 「文成公影幀還安祭文」(安喜), 「文成公影幀還安記」(安喜) 「己卯神道碑印告廟文」(安頊), 「辛巳修廟後告」(安頊) 「紹修書院祭安文貞公安公」(安應昌), 「謁紹修書院祭愼齋周先生」(安應昌) 「祭先祖晦軒夫子紹修書院像文」(安應昌), 「先祖晦軒夫子遺像描時告由文」(安應昌)

10 『退溪續集』 卷8, 雜著, 「安文成公享圖 【配位圖】」.

11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7~9쪽.

	「紹修書院周愼齋先生位牌改題後奉安文」(權憲祖) 「紹修書院周愼齋先生位牌改題時告辭」(權憲祖) 「修書院周愼齋先生位牌還奉時文成公位辭」(權憲祖) 「修書院愼齋周先生臚享告由文」(朴璐), 「修書院廟宇改蒼移安告文」(黃是) 「紹修書院廟宇修繕時告由文」(黃永祖), 「紹修書院影幀奉安文」(李德馨) 「眉叟先生畫像奉安文」(成彦根)
古文書·成冊類	「周愼齋先生手筆笏記」, 「退溪先生親筆笏記」, 「歲謁錄」, 「影幀處變時事蹟」

2. 남계서원(濫溪書院)

함양 남계서원은 정여창(鄭汝昌)을 필두로 정온(鄭蘊)·강익(姜翼)을 제향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서원이다. 그 밖에도 유호인(兪好仁)과 정홍서(鄭弘緒)를 별묘(別廟)에 제향하고 있다. 관찬 사료에는 청액 및 사액 기사와 더불어 1740년(영조 16) 위관 분실 사건이¹²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남계서원 관련 자료는 1935년과 1962년 발간된 『남계서원지』를 통해 정리되었다. 1935년 『남계서원지』에는 「진설도(陳設圖)」와 「춘추향축문(春秋享祝文)」, 「향례의절(享禮儀節)」, 「제기목록(祭器目錄)」 등 향사 제례와 관련된 자료가 엮여져 있으며, 고유문과 계문, 별묘와 관련된 기사, 정부의 포증(褒贈) 사실을 수록하였다.

문집류에는 남계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명현들의 상향문·봉안문 등이 있다. 특히 17세기 초반 남계서원 복구 과정에서 작성된 문적이 주목된다. 그 중 1617년(광해군 9) 문경호(文景虎)가 함양 사람에게 보낸 통문은 남계서원 제례 규칙이 조식(曹植) 제향의 용암서원(龍巖書院) 사례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것임을 언급해 놓았다.¹³ 현재 뚜렷이 전하는 것은 없

12 『書院謄錄』, 庚申二月二十八日.

13 『嶧陽集』 卷4, 雜著, 「通諭咸陽士林【丁巳】」, “故藍溪之院則每於春秋享祀 執事無形 無以成禮 此在吾士林中 實莫大可愧事 誠不忍使聞於他 不得已今與僉尊 更議處置 別立新規 略放此龍巖書院之例”.

으나, 남명학과(南溟學派) 계열 향사 제례의 전승 양상을 짐작 할 수 있다.

고문서·성책류 자료 중 「지알록(祇謁錄)」은 1902년 3월부터 1981년까지 남계서원 사당을 지알(祇謁)한 인사 99명의 성명·본관·거주지를 기록한 명부이다. 「참제록(參祭錄)」 6건에는 1911년부터 2001년까지 춘추향사 시 헌관과 여러 집사의 성명을 기록해 놓았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濔溪書院春秋享禮儀節)」, 「남계서원춘추향례홀기(濔溪書院春秋享禮笏記)」는 향사 절차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남계서원지』에 수록된 절차와 대동소이하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의 입재(入齋) 시기가 5일전인데 반해, 나머지 2종은 3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홀기의 선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제수기(祭需記)」는 향사 시 사용되는 제수 물품을 망라한 것이다.

〈남계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濔溪書院誌』 (1935)	「陳設圖」, 「春秋享祝文」, 「告先生文【介菴別廟奉安時】」 「告桐溪文【陞配時】」, 「告桐溪文【介庵陞配時】」 「告介菴文【陞配時】」, 「享禮儀節」, 「祭器目錄」, 「別廟事蹟」 「褒贈祀典」
文集類	「通諭咸陽士林【丁巳】」(文景虎), 「濔溪書院祭文」(鄭蘊) 「濔溪書院陞享文【丁巳八月十三日】」(鄭蘊), 「濔溪書院常享文」(미상) 「濔溪書院奉安文【壬午】」(미상), 「濔溪書院春秋享祝文」(盧禎)
古文書·成冊類	「祇謁錄」, 「參祭錄」 6건, 「濔溪書院春秋享禮儀節」 「濔溪書院春秋享禮笏記」, 「祭需記」

3.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주 옥산서원은 이언적(李彦迪)의 제향처로서,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해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많은 장서(藏書)를 보유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1993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소장 자료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문서·성책을 선별해서 『옥산서원

지』로 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찬 사료에는 사액과 치제 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조 연간 치제 기록이 주목된다. 정조는 왕권 강화와 남인 우대를 위해 1781년과 1792년 영남 양대 서원인 옥산·도산서원에 치제하였다. 특히 1792년(정조 16) 치제문은 천주교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남 지방만이 사학(邪學)에 물들지 않았으며, 이를 예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¹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남송(南宋) 시대 정학(正學) 수호와 이단(異端) 배척을 위해 서원 보급에 앞장섰던 주자의 취지가¹⁵ 제례를 통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옥산서원은 조선 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일 뿐만 아니라, 명승지였던 관계로 당색과 학파에 관계없이 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이들은 옥산서원 체인묘(體仁廟)를 배알하였고, 그 소회를 남긴 시문(詩文)을 자신의 문집에 남겼다. 그 외 정조의 치제문이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장현광(張顯光)의 문집에는 옥산서원 유생들이 제향 의식을 묻는 편지가 실렸다.¹⁶

방대한 전적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옥산서원에는 제례 과정에서 작성된 치부류 문서가 다수 남아 있다. 우선 향사 절차를 수록한 「홀기」와 향사 시 헌관 및 제 집사의 위치를 기재한 「향사시서위도(享祀時序位圖)」, 1585년부터 현대까지 역대 헌관 및 제 집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집사기(執事記)」가 전한다. 그 밖에도 향사 시 제수 물품과 경비 등을 기록한 「제수단자(祭需單子)」와 「식상도록(食床都錄)」, 향사 일자를 통보하는 「회문(回文)」 등이 전하여 16세기 이후 향사 의식과 더

14 『正祖實錄』 卷34, 16년 3月 2日(辛巳), “정학을 존송하려면 마땅히 선현을 존송해야 한다. 어제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는데,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고 도산 서원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지난번 사학(邪學)이 점차 번질 때에 오직 영남의 인사들이 선정(先正)의 학문을 지켜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부터 나의 앙모(仰慕)가 더해졌다”.

15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故力排異端 以扶正道”.

16 『旅軒續集』 卷2, 答問目, 「答玉山書院」; 書, 「答臨臯書院」.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불어 참여 인원의 변화, 재정적 기반 등 향사의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05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심원록(尋院錄)」을 통해서도 평상시 옥산서원을 방문하고 알묘(謁廟)를 거행한 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옥산서원 제례 관련 고문서·성책류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특수 의례 자료가 다수 전한다는 것이다. 1781년, 1792년, 1839년, 1840년 작성된 4건의 「치제문」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정리한 일기와 의절, 참석자 명단인 시도기(時到記), 집행 경비를 망라해 놓은 하기(下記) 등이 전한다. 그 중에서도 「치제시일기(致祭時日記)」는 1792년 3월의 치제 당시의 일정을 정리한 것이며, 1840년의 「구인당중건일기(求仁堂重建日記)」에는 재사액과 치제 때 활용한 사액례(賜額禮)와 치제례(致祭禮) 의절(儀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표제가 훼손된 「■■■■응행도절목(■■■■應行都節目)」에는 치제문 편액을 맞이하는 영액례와 이를 사당에 알리는 고유제, 강당에 편액을 거는 게액례 절차가 있으며, 「선액후원유급본손지수사은행례의(宣額後院儒及本孫祇受謝恩行禮儀)」는 1839년 옥산서원 재사액 편액이 내려왔을 때 원유와 본손들이 사은례를 행하는 의절이다.

〈옥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玉山書院致祭文」(正祖), 「答玉山書院」(張顯光), 「答臨臯書院」(張顯光)
古文書·成冊類	「笏記」, 「太宗陵笏記」, 「享祀時序位圖」, 「執事記」 15건 「祭需單子」 74건, 「食床都錄」, 「回文」 42건, 「尋院錄」 105건 「致祭文」 4건, 「致祭時日記」, 「求仁堂重建日記」, 「賜祭時到記」 2건 「到記」, 「玉山書院宣額時士林祇延到記」, 「賜祭時都廳下記」 「揭額時都廳下記」, 「額板祇延時下記」, 「賜祭時鄉執事」 「香祝祇迎節目」, 「祇迎節目」 2건, 「致祭時節目」 「■■■■應行都節目」, 「宣額後院儒及本孫祇受謝恩行禮儀」

4. 도산서원(陶山書院)

안동 도산서원은 이황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그의 문인 조목(趙穆)을 종향하는 서원이다. 이황은 16세기 중·후반 사림의 장수처(藏修處)로서 전국에 서원이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의 규칙을 정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소수서원 의절에 의문을 가지고, 이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영남 지역 서원 향사 규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산서원 역시 관찬 사료에 치제와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영·정조 연간 국왕은 옥산서원과 더불어 도산서원을 영남의 대표 서원으로 인식하고, 이황과 영남 남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거듭 치제하였다.

문집류에는 정조가 찬한 치제문을 비롯해 퇴계학과(退溪學派)의 도통 의식이 드러나는 봉안문·축문·고유문 등이 전한다. 정구(鄭逋)의 문집에는 조목(趙穆) 종향에 따른 제물 마련과 위판을 쓰는 것에 대한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¹⁷ 김도화(金道和)·허훈(許薰) 등의 상소는 19세기 후반 발생한 도산서원 위판 도난 사건과 관련해 복조(復造)를 청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¹⁸

도산서원 향사의 절차 전반을 명시해 둔 기록으로는 1916년에 엮은 것으로 알려진 「도산서원의절초(陶山書院儀節草)」가 전한다. 이 책자는 도산서원 운영과 의례 등을 간략히 정리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그 외의 제례 관련 자료는 고문서·성책류 형태로 전한다.¹⁹ 제례 규칙인 홀기 중 「향례홀기(享禮笏記)」는 향사 때 사용한 것이며, 「사제시홀기(賜祭時笏記)」는 1733년 사제례(賜祭禮) 때의 규칙이다. 각각 ‘병자(1756) 정월 18일 사제시예조의절(丙子正月十八日 賜祭時禮曹儀節)’과 ‘도산서원치

17 『寒岡集』 卷6, 問答, 「答金施普」; 「答鄭彥宏」.

18 『拓菴集』 卷3, 疏, 「陶山書院廟變後請復疏【代士林作】」; 『舫山集』 卷6, 疏,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 卷8, 祭文,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

19 2006년 간행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06, 201~302쪽’에는 2,128점의 고문서·성책류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놓았다.

제의(陶山書院致祭儀)’라고 명기되어 있는 「홀기」 2건은 치제 때 활용된 홀기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선생유묵(先生遺墨)」이란 표제의 자료는 이황이 소수서원 홀기를 고증한 「안문성공도【배위동】」의 초고로 확인된다.²⁰

정기 제례에 참석한 유림은 ‘시도기’란 성책 자료로 엮여져 있다. 도산서원에는 153건의 시도기가 전하는데 대부분 정기 제례인 향사와 정알례(正謁禮) 때 작성한 명부이다. 68건에 이르는 「심원록」에는 평상시 도산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을 기록해 놓았다.

도산서원은 치제례를 비롯해 특수 의례를 여러 차례 거행하였다. 그 당시 의례의 과정과 절차를 기록해 놓은 일기도 전한다. 「사제일기(賜祭日記)」는 1733년, 1756년, 1781년, 1785년, 1792년의 치제를 하나로 엮은 것이며, 「사제시일기(賜祭時日記)」는 1796년 치제 때의 일기이다. 「종사위개제일기(從祀位改題日記)」는 1809년 조목 위판에서 뱀이 발견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 위판을 쓰는 의절을 정하고 봉안례를 거행한 기록이다. 「도산서원묘변시일기(陶山書院廟變時日記)」는 1901년 괴한에 의해 이황의 위판이 도난당하고 조목 위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을 수습하고 새롭게 위판을 봉안하면서 고유제·위안제(慰安祭) 등을 거행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그 밖에도 환안례·이안례·봉안례 등 특수 의례 때 임명된 집사 명부가 여러 건 전한다.

〈도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陶山書院致祭文」(正祖), 「陶山書院奉安文」(趙穆) 「陶山書院尙德祠春秋常用祝文【丙子】」(趙穆) 「陶山書院從享賜祭文」, 「答金施普」(鄭述), 「答西溪書院儒生」(鄭述) 「答鄭彥宏」(鄭述), 「謁陶山書院記」(李瀾), 「陶山退溪書院致祭文」(吳瑗) 「陶山書院賜祭時告由文」(李堦), 「陶山書院致祭時告由文」(李頤淳) 「陶山書院致祭文【代知製教作】」(李源祚) 「陶山書院廟變後請復疏【代士林作】」(金道和)
-----	---

20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9~10쪽.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許薰)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許薰), 「陶山書院祭退溪先生文」(權鳳鉉)
古文書·成冊類	「陶山書院儀節草」, 「享禮笏記」, 「賜祭時笏記」, 「笏記」 2건 「先生遺墨」, 「乙未七月二十九日還安後行祀時儀節」, 「獻官執事案」 2건 「告由文」 51건, 「賜祭文」 8건, 「享禮時執事錄」 10건, 「尋院錄」 68건 「時到記」, 「賜祭日記」, 「賜祭時日記」, 「從祀位改題日記」 「陶山書院廟變時日記」, 「舊位版埋安擇日記」, 「辛丑尙德祠還安時執事錄」 「請陶山書院尙德祠復位版疏爬錄」, 「尙德祠復位版奉安時執事錄」 「己亥十月二十一日卯時移安時執事」, 「請陶山書院尙德祠復位版疏爬錄」 「尙德祠還安時執事錄」 2건, 「尙德祠復位版奉安時執事錄」 「尙德祠還安時執事錄」, 「尙德祠還安告由時爬錄」, 「尋院錄」 68건

5. 필암서원(筆巖書院)

장성 필암서원은 김인후(金麟厚)를 주향으로 하고, 그의 문인 양자징(梁子徵)을 종향하는 서원이다. 관찬 사료에는 1786년(정조 10) 양자징의 종향을 허락한 기사와 1796년 치제 이후 김인후의 위판을 고쳐 쓴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필암서원과 관련된 주요 문헌은 1949년과 1975년 간행된 『필암서원지』로 정리되었다. 우선 현종·정조·순조·철종의 「사제문(賜祭文)」을 수록하여, 필암서원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원의절(院儀節)」, 「구원규(舊院規)」, 「신원규(新院規)」는 필암서원 원규인데 제정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원의절」에는 삭망분향(朔望焚香) 때 원임, 향사 때 제관·집사·유림이 입재하는 시기, 제관 및 집사의 천망(薦望) 기준을 규정해 놓았다. 「구원규」와 「신원규」에는 분향과 향사 때 원임의 역할과 주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필암서원지』의 「사전(祀典)」에는 필암서원에서 거행되는 향사를 비롯해 사상견례(士相見禮)·향음주례(鄉飲酒禮)·향사례(鄉射禮)·향약례(鄉約禮) 등 각종 향례(鄉禮) 규식을 수록하였다. 이 중 서원 제례와 관련해서는 제관·제복·제기·제수·제관망첩(祭官望帖)·송제관망첩서식(送祭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望帖書式)·상향축(常享祝)·향례홀기(享祀笏記)·침알예홀(瞻謁禮笏)이 있어, 향사와 일상 제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암서원지』와 문집류에 수록된 봉안문·축문·예성제문 등은 주로 기호학과(畿湖學派) 계열의 여러 명현이 남긴 것으로서,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기호 사림의 도통 의식을 보여준다. 『필암서원지』의 「참제록(參祭錄)」은 1710~1714년, 1900~1944년, 1951~1975년 향사 때 참여한 제관 명단이다. 그 밖에도 필암서원에서 제례와 관련해 관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반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품목(稟目)」 및 「문보(文報)」 12건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필암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筆巖書院誌』 (1975)	「賜祭文」 4건, 「陳設圖」, 「祭器圖說」, 「禮服圖」, 「瞻謁禮圖」 「院儀節」, 「舊院規」, 「新院規」, 「祀典」, 「祠宇上梁文」(金友伋) 「廓然樓上梁文」(宋明欽), 「祠宇上梁文」(奇挺翼) 「祠宇重修上梁文」(閔丙承), 「祠宇重修上梁文」(金載石) 「春秋釋菜祝文」(徐台壽), 「書院移建奉安文」(宋時烈) 「鼓巖追配時告先生文」(鄭枋), 「鼓巖先生奉安文」(鄭枋) 「鼓巖各祝時告先生文」(宋達洙), 「告鼓巖先生文」(宋達洙) 「鼓巖先生禮成祭文」(金履鉉), 「祠宇重建後還安祝文」(金漢翼) 「純貞孝皇后因山前停春享告由文」(邊時淵), 「重修畢告由文」(미상) 「參祭錄」, 「稟目」 및 「文報」 12건
文集類	「長城筆巖書院移建告由文」(宋浚吉), 「移建後春秋享祀祝文【增】」(宋時烈)

6. 도동서원(道東書院)

달성 도동서원은 김광필(金宏弼)을 주향으로 하고, 훗날 정구(鄭述)를 추향한 서원이다. 또한 별묘에 향현(鄉賢)인 곽을(郭起)·곽승화(郭承華)·배신(裴紳)·원개(元凱)를 제향하였다.

관찬 사료에는 도동서원과 관련해서 사액·치제·추향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 중에서도 1609년(광해군 1) 8월 1일의 『광해군일기(光海君日

記』 기사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강침(姜籤)이 치계(馳啟)하여 중국 주자 서원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때 “조정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지낸다(恭承朝命)”라는 구절을 축문에 넣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이에 앞선 도동서원 사제 때의 축문에 별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건의하였는데, 당시 광해군은 이를 허락하였다.²¹ 도동서원 축식에는 해당 구절이 삭제되어 있지만, 흘기에는 그 흔적이 ‘경봉조명(敬奉朝命)’으로 남아 있다.²²

문집류 기록에서는 정구의 문적이 주목된다. 정구는 봉안문과 축문을 작성하였으며, 도동서원을 위해 직접 「원규」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동서원 「원규」는 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목이 향사와 관련된 ‘근향사(謹享祀)’이다. 이 조목에는 향사 일자와 불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²³ 서원 운영에서 향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상도관찰사 최관(崔瓘)에게 보낸 편지에는 복색(服色)과 정부에서 내린 축문 규칙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²⁴ 축문 규칙은 앞서 살펴 본 강침의 치계와 관련된 것이다.

도동서원에 소장된 고문서·성책류는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도동서원지』에 선별되어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 가운데 「제문」은 1605년부터 1720년까지 작성된 각종 축문·고유문, 그리고 묘제 시 축문을 엮어 놓은 것이다. 흘기로는 2건의 「제의(祭儀)」와 「흘기(笏記)【묘제(墓祭)】」가 있다. 「제의(祭儀)」중 1건은 김굉필 향사 흘기와 묘제 흘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나머지 1건에는 흘기 외에도 ‘이환안절목(移還安節目)’, ‘묘사축사(墓祀祝詞)’ 등이 부기되어 있다. 「흘기」는 묘제(墓祭) 때 흘기이다. 도동서원 제례의 가장 큰 특징은 향사 때 묘제를 지내는 것이다. 『도동서원지』에 수록된

21 『光海君日記』 卷19, 1年 8月 1日(己酉).

22 최순권, 앞의 논문, 2013, 189~190쪽.

23 『寒岡續集』 卷4, 雜著, 「院規【爲道東作】」.

24 『寒岡集』 卷5, 書, 「答崔監司【瓘】」.

「도동서원창건사적(道東書院創建事蹟)」에 따르면 도동서원 뒷 편에 김
굉필 묘소가 있는데, 정구가 중국 무이고사(武夷故事)에 의거하여 향사
때 묘사를 지내게 했으니, 이것이 도동서원 향사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홀기」는 묘제 홀기이지만 훼손이 심하고, 대신
「제의」 2건에 묘제 홀기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봉안시제집사분정기(奉安時諸執事分定記)」는 1610~1803년까지의
헌관과 집사 명부이다. 도동서원 제례 관련 기록 중 명부 자료가 가장 많
이 전한다. 「참제록」 8건은 1611~1682년의 향사와 묘제, 「알사록(謁
祠錄)」 24건은 1692~1870년의 향사·묘제·삭망분향례 참여자 명부이다.
그 밖에도 1791~1848년의 「돈사록(敦祠錄)」과 「사우중수시돈사록
(祠宇重修時敦祠錄)」, 1905~1915년의 「분향록(焚香錄)」, 1606년부터
평상시 도동서원 방문자들의 알묘 기록인 「심원록」 25건 등이 전한다.

〈도동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答崔監司【瓊】」, 「院規【爲道東作】」(鄭述) 「道東書院奉安寒暄堂金先生文」(鄭述), 「道東春秋享祀文」(鄭述) 「道東書院傍祠常享祝」(鄭宗魯), 「道東書院謁寒暄金先生」(安鼎呂)
古文書·成冊類	「祭文」, 「祭儀」 2건, 「笏記」, 「道東書院奠物單子」 「奉安時諸執事分定記」, 「道東書院重修還安紀念詩帖」, 「抄請回文」 「招請狀」, 「奉安時諸執事分定記」,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參祭錄」 8건, 「謁祠錄」 24건, 「焚香錄」, 「敦祠錄」 「祠宇重修時敦祠錄」, 「尋院錄」 25건, 「時到記」, 「墓享時【時到記】」

7. 병산서원(屏山書院)

안동 병산서원은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아들 류진(柳軫)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9개 서원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863년(철종 14)
사액을 받았다. 이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병산서원 사액을

25 최순권, 앞의 논문, 2013, 198~199쪽.

청원하는 사람들의 상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집류의 병산서원 관련 제례 기록은 주로 축문·봉안문·치제문이다. ‘이황-류성룡’을 계승한 서액학과(西厓學派)의 주요 인사들이 제문을 찬하며, 도통 의식을 드러내었다.

병산서원은 안동 지역을 대표하던 서원으로서 많은 전적 자료를 소장하였다. 1965년 충효당(忠孝堂) 영모각(永慕閣)으로 이전되어 문중 자료와 함께 전해진다. 서책과 달리 고문서·성책류는 문중 자료와 구분이 용이하지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병산서원 소장 고문서·성책류 중 「제문」 2건은 각각 1629년 류성룡 복향과 1689년 류진 종향 때 쓴 것을 베껴 놓았다. 「제기」는 1615년과 1617년 병산서원 소장 제기의 인수인계이며, 「제수물목(祭需物目)」은 정위(正位) 류성룡과 종사위(從祀位) 류진의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서원과 달리 초창기 홀기·진설도와 같이 제례 규식을 기록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나머지 제례 관련 기록은 명부이다. 「봉안록(奉安錄)」에는 류성룡의 병산서원 봉안과 관련해 1610~1614년의 제 집사 및 유사(有司) 명단과 각종 제문을 엮어 놓았다. 「춘추향사집사분정기(春秋享祀執事分定記)」 4건은 1614~1639년, 1658~1664년, 1666~1698년, 1723~1735년 동안 거행된 향사의 헌관 및 제 집사 명단이다. 「분향록(焚香錄)」은 1823~1826년 삭망례(朔望禮) 때의 것이다.

〈병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屏山尊德祠復享」(李埈), 「屏山常享祝文」(李埈) 「屏山書院享祀祝文」(鄭經世), 「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鄭經世)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鄭經世), 「屏山書院修巖奉安文」(洪汝河) 「屏山書院從享文」(洪汝河), 「屏山書院謁西崖柳先生祠文」(安鼎呂) 「屏山書院賜額時致祭文」(李種祥)
古文書·成冊類	「祭文」 2건, 「祭器」, 「祭需物目」, 「奉安錄」 「春秋享祀執事分定記」 4건, 「焚香錄」

8. 무성서원(武城書院)

정읍 무성서원은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신잠(申潛)·정극인(丁克仁)·송세림(宋世琳)·정언충(鄭彦忠)·김약묵(金若默)·김관(金寬)의 위판도 함께 봉안하였다. 무성서원 관련 자료는 1931년 간행된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무성서원지』에 수록된 「홀기」, 「제수물목」, 「진설도」는 향사 때 규식이다. 「연액의절(延額儀節)」은 특수 의례인 사액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치제문도 함께 수록하였다. 「문창후최선생영정봉안사적(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을 비롯해 「봉안일기(奉安日記)」, 「봉안축문(奉安祝文)」 등은 1784년(정조 8) 최치원 영정 봉안 경위와 관련 축문을 엮어 놓은 것이다. 「원규」는 1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목이 향사 관련 규정이다.

고문서·성책류로는 「연액기사(延額記事)」, 「심원록」 5건, 「봉심록(奉審錄)」 3건이 전한다. 「연액기사」는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의 사액 경위와 관련 의절, 축문 및 이후 전개되는 여러 제례의 헌관 및 제집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심원록」은 1607~1658년, 1780~1831년, 1813~1829년, 1831~1876년, 1858~1879년의 것이 전한다. 평상시 또는 향사 때 특별히 알묘한 인사를 기재해 놓았다. 이후에는 표제를 「봉심록」으로 엮어 놓았는데, 1875~1915년, 1933~1967년, 1962~1974년 것이 전한다.

〈무성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武城書院院誌』 (1931)	「延額儀節」, 「祭文」, 「祝文記」, 「笏記」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奉安日記」, 「奉安祝文」 「移安祝文」, 「還安祝文」, 「奉安祭祝文」, 「院規」 「祭物目錄」, 「陳設圖」
古文書·成冊類	「延額記事」, 「尋院錄」 5건, 「奉審錄」 3건

9. 돈암서원(遯巖書院)

논산 돈암서원은 김장생(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을 추향하였다. 제향인 모두가 기호학파의 도통을 잇는 명현이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만큼, 기호 사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돈암서원 제례 관련 자료는 1958년 간행된 『돈암서원지』에 정리되어 있다.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돈암서원원규(遯巖書院院規)」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이 ‘선현경모(先賢敬慕)’, 제3장이 ‘조두필근(俎豆必謹)’으로서 제례의 중요성을 부각해 놓았다. 그 밖에도 각종 제례 때 작성된 축문류와 제문을 비롯해 향사 때 규칙인 「춘추향사의절(春秋享祀儀節)」, 「홀기」, 「진설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송준길과 송시열의 추향 때 활용한 「봉안시행례의절(奉安時行禮儀節)」이 주목된다. 또한 김장생·김집·송준길·송시열의 위패 봉안 때 작성된 시도기를 모두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돈암서원지』와 여러 문집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봉안문과 제문 등은 기호학파 명현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계열의 도통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돈암서원의 고문서·성책류는 2014~2015년 조사되었다.²⁶ 이 중 제례 관련 자료로는 「홀기」를 비롯해 헌관 및 제 집사, 「시도기」와 같은 제례 참여자 명부인데, 대부분 근래에 작성된 것이다.

〈돈암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遯巖書院誌』 (1958)	「特殊物品及祭用器具」, 「上樑文」(金尙憲), 「奉安文」, 「祝文」 「文元公沙溪金先生奉安時儒生到記」, 「賜額書院祭文」(顯宗) 「春秋享祀儀節」, 「笏記」, 「陳設圖」, 「春秋享祀祝文」 「中丁國忌相值季丁退行告由文」, 「國恤中停焚香告由」, 「停享祀告由」
-------------------	--

26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앞의 책, 2015, 37~47쪽.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廟宇修利葺告由」, 「愼獨齋從享奉安文」, 「文敬公愼獨齋金先生奉安時儒生到記」 「遯巖書院文敬公奉安時告文元公沙溪老先生文」(李惟泰), 「同春堂從享奉安文」 「文正公同春堂宋先生奉安時儒生到記」, 「奉安時行禮儀節【同春先生】」 「文正公尤菴宋先生奉安時儒生到記」, 「奉安時行禮儀節【尤菴先生】」
文集類	「賜額遯巖書院祭文」(顯宗), 「遯巖書院奉安文」(鄭弘溟) 「遯巖書院請額疏略」(宋時烈), 「連山遯巖書院從享祭文」(俞榮) 「遯巖書院祭清陰金先生文」(宋浚吉) 「遯巖書院文敬公奉安時 告文元公沙溪老先生文」(李惟泰) 「遯巖書院賜祭文」(趙復陽), 「遯巖書院合享同春先生祭文」(李翔) 「連山遯巖書院尤齋宋先生奉安祭文」(李奮), 「遯巖書院移建後奉安文」(宋秉善)
古文書·成冊類	「笏記」, 「獻官錄」 2건, 「本院祭官錄庚申春享時」 「遯巖書院奉審錄」 2건, 「貿易記」, 「時到記」 28건

Ⅲ. 서원 제례 문헌의 유형별 활용

1. 홀기류

홀기는 집회나 각종 제례 때 의식을 기록한 후 그 순서를 낭독하는 문서로서,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종교·풍속·교육·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유교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거행되는 각종 의례 때도 홀기를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 민간에서 거행하는 가장 대규모 의례는 단연 서원 제례였다. 따라서 홀기류 분석을 통해 서원 제례가 가지는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서원 제례 연구 대부분은 홀기류를 활용한 것이다.

서원 홀기에는 제례 때 집례자가 낭독하는 의례 순서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진설도와 축문, 기본적인 규식을 수록한 것도 있다. 서원에 따라서는 남계서원의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 도산서원의 「도산서원의절초」, 필암서원의 「원의절」, 돈암서원의 「춘추향사의절」처럼 ‘의절’이라는 제목으로 향례 또는 관련 제례 전반의 규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

기도 한다.

다만, 서원 제례와 관련된 홀기 및 의절 검토는 향사에 집중되었다. 서원 제례는 크게 정기 제례와 부정기 제례로 구분된다. 정기 제례는 삭망 분향례와 정알례가 있지만, 가장 큰 규모는 향사이다. 부정기 제례는 이안례·환안례·치제례·사액례 등이 있으나,²⁷ 검토된 사례는 별로 없다. 제례 규칙이 향사 위주로 전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원 제례는 법제화되지 않은 채 사적 영역에서 거행되었다. 중국에서도 서원 제례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서원은 명(明)·청(淸)기를 거치면서 관료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존현’의 성격이 강화되던 우리나라 서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일정한 규칙이 없었기에²⁸ 우리나라 명현들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주자의 「창주정사석채의(滄洲精舍釋菜儀)」를 참고하여, 서원에 적용할 규칙을 제각기 만들었다.

그런 관계로 백운동서원의 주세붕 홀기와 이를 수정한 이황의 홀기는 우리나라 서원 향사의 규칙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에 소수서원의 주세붕·이황 홀기와 이황의 「안문성공춘추대향도【정배위】」, 그리고 도산서원 소장 「선생유묵」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황이 주세붕의 규칙에서 진설, 수조(受胙)와 음복(飮福) 순서, 향사 때 부르는 「도동곡」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였고, 그에 의해 홀기가 새롭게

27 윤희면, 앞의 논문, 2000, 58~59쪽.

28 『正祖實錄』 卷47, 21年 7月 14日(辛巳), “장령(掌令) 박도상(朴道翔)이 상소를 올려 … ‘둘째는 서원의 폐단입니다. 국조(國朝)의 전례(典禮)에는 애당초 서원에 관한 정제(定制)가 없습니다. 대개 순흥(順興) 백운동서원이 서원 창설의 시초인데 그 일은 『오례의(五禮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례의』에는 본디 서원 향사(享祠)에 관한 예절이 언급되지 않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 안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常變通攷』 卷27, 學校禮, 「獻爵拜」, “공적인 제례나 사적인 제례나 모두 헌작(獻爵)한 뒤에 절하는 절차가 있는데, 유독 본 서원의 홀기에는 이 한 가지 절차가 미흡하여, 지난날 참 의심했었다. 다른 데는 논할 게 없고 창주정사(滄洲精舍)의 석채의절(釋菜儀節)을 준거로 삼음이 합당한데, 바라건대 입재(入齋)한 여러 현자들과 논의해서 실추된 의식을 거행함이 어떠한가?”.

정립되는 모습을 규명하였다.²⁹ 이를 바탕으로 9개 서원의 향사 기일, 성생(省牲), 진설(陳設)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고,³⁰ 폭을 넓혀 남인·서인계 서원의 향사일, 제관, 제물, 의식 절차를 비교하기도 했다.³¹ 「도산서원의절초」를 중심으로 현대 서원 향사의 변화 양상과³² 도산서원·병산서원을 비롯해 안동 지역 21개 서원의 진설도를 바탕으로 제례 음식을 비교한 연구도 주목된다.³³

그러나 9개 서원 중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의 홀기 작성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비교·검토도 현대의 향사 규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조선 시대 사대부 계층의 다양성을 투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번 정해진 홀기·진설·축문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³⁴ 그것이 정리되기까지는 분명히 여러 논의를 거쳤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9개 서원의 홀기류 자료와 관련 인사의 의견을 담은 단편적인 문답으로는 이를 규명하기 어렵다. 9개 서원에 한정하지 않고, 학파나 지역별로 원규나 규칙의 모범이 된 서원의 사례와 개별 사대부가 남긴 예서(禮書) 등을 검토함으로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서원의 특수 의례 관련 자료

서원의 부정기 제례로는 이안례·환안례·치제례·사액례 등의 특수 의례가 있다. 이들 제례는 서원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거행된다. 정부의 치제와 사액, 추향, 대규모 공사, 피치 못할 일로 인한 위패 이동이 원인이 되어 치러졌다.

29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9~15쪽.

30 한재훈, 앞의 논문, 2017, 335~347쪽.

31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참조.

32 ‘김미영, 앞의 논문, 2013’ 참조.

33 윤숙경, 앞의 논문, 255~259쪽.

34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민속연구』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184쪽.

특수 의례는 해당 서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시점에 거행되었다. 그렇지만 특수 의례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원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논고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이었다. 근래, 일기 자료를 활용하여 도산서원 치제례의 실체가 규명되기도 했지만,³⁵ 9개 서원에 관련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일기와 규식 등 특수 의례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개 서원의 특수 의례 관련 문헌〉

	사액·치제·사제	추향·봉안
紹修書院	-	「影幀處變時事蹟」
玉山書院	「求仁堂重建日記」 「宣額後院儒及本孫祇受謝恩行禮儀」 「■■■■應行都節目」 「致祭時日記」, 「香祝祇迎節目」 「祇迎節目」, 「致祭時節目」	-
陶山書院	「賜祭時笏記」, 「賜祭日記」 「賜祭時日記」	「乙未七月二十九日還安後行祀時儀節」 「從祀位改題日記」 「陶山書院廟變時日記」
道東書院	-	「道東書院重修還安紀念詩帖」
遯巖書院	-	「奉安時行禮儀節【同春先生】」 「奉安時行禮儀節【尤庵先生】」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말과 관련 자료를 일기와 사적으로 엮어 둠으로써,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옥산서원·도산서원에는 사액 및 치제와 관련된 일기를 기록하였으며, 소수서원·도산서원에는 사당에서 발생한 변고와 그것의 처리 과정을 일기에 정리해 놓았다. 자료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례의 경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용한 규식이나 당시 참여자 명부도 수록되어 있다.

35 채광수, 앞의 논문, 2020, 209~216쪽.

특수 의례 때 사용되는 홀기와 의절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도산서원에는 사제 때 홀기, 돈암서원에는 추향 때 사용한 의절이 전한다. 옥산서원에는 치제 때 규식을 절목으로 상세히 남겨 놓았다. 그 밖에도 「선액후원유급본손지수사은행례의」는 옥산서원 재사액 후 후손들이 펼친 일종의 사은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 의례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정기 제례보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대목은 함께 전하는 당시의 하기(下記)와 집사록·시도기를 통해 확인된다. 특수 의례는 서원 제례의 검토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던 사대부 집단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축문류와 제문

남송 시대 주자는 창주정사(滄洲精舍)에 공자와 사성(四聖)을 봉안하였고, 남강군지사(南康軍知事) 재임 중에는 염계사(廉溪祠)를 짓고 주돈이(周敦頤)와 이정(二程)을 제향하였다. 여기에는 서원 보급을 통해 성리학 도통을 확고히 하려는 주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³⁶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다.

16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이 확산되는데, 이른바 학파의 분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각 학파는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경쟁적으로 특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서원에 제향해 나갔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도통의 계승자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서원과 관련된 여러 문헌 자료 중 도통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상향축문·봉안문·환안문·이안문·상량문 등의 축문류와 제문일 것이다. 대체로 축문류는 해당 서원과 연고가 있는 명현들이 썼다. 이러한 글은 곧

36 方彦寿, 「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完善与传承」,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130~134쪽.

서원의 권위와 직결된다. 그런 관계로 축문류는 제향인과 찬자의 문집 및 서원지에 수록되거나, 현판으로 제작하여 서원에 게판(揭板)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축문류 자료에 드러나는 의식과 지향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경세(鄭經世)는 병산서원에 스승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며 쓴 제문에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빼어났네, 선생[이황] 문하에 가서 종사했나니 만나 뵈매 그 자리서 인정받았고 계합되어 의심하는 맘 없었나니”³⁷라며, ‘이황-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홍여하(洪汝河)는 류진(柳珍)의 병산서원 제향 때 쓴 봉안문에서 “공경히 생각건대 문충공(文忠公)[류성룡]은 … 우뚝이 유림의 종장이 되었네. 아! 우리 선생은 가학(家學)을 잘 이어 받아서”³⁸라는 구절로 ‘이황-류성룡-류진’으로 이어지는 서애학파의 가학 전통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드러나는 제향인의 학문적 계보는 서원 운영 집단의 도통 의식을 상징한다. 현재 축문류 및 제문은 9개 서원뿐만 아니라, 서원 관련 문헌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제향인과 찬자, 찬자와 서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활용되었다. 따라서 축문류 및 제문에 드러난 도통 의식과 정치·사회적 함의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명부류

서원에서는 다양한 명부류를 작성하였다. 원임안(院任案)과 원생안(院生案)은 서원 운영 주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명부 자료를 통해 해당 서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구성원의 지위

37 『愚伏集』 卷16, 祭文, 「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甲寅】」, “迺粹髫年 往從于師 見而知之 有契無疑”.

38 『木齋集』 卷7, 「屏山書院修巖奉安文」, “恭惟文忠 … 蔚爲儒宗 繫我先生 克紹家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서원에는 임원 및 구성원 명부 외에도 다양한 명부가 전승되고 있다. 제례와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역할을 분담한 일종의 분정기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평상시 방문자들의 성명도 심원록·알묘록 등과 같은 방명록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원임안·원생안을 제외한 제례 명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이다. 원임안·원생안과 비교해 서원의 운영 주체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제례 관련 명부는 여러 가지 표제로 작성되었다. 9개 서원에 소장된 자료를 성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명부〉

제관 분정	執事分定記, 參祭錄, 執事錄, 執事記, 獻官執事案, 爬錄, 奉安錄
정알례·삭망분향례	歲謁錄, 焚香錄
일반 알묘	謁祠錄, 敦詞錄, 祇謁錄, 奉審錄, 尋院錄
행사 참석	時到記, 到記

이 중 향사와 각종 제례 때 제관을 분정해 놓은 명부는 서원 내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 서원의 제관 분정이 일종의 정치·사회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평가처럼,³⁹ 제례 때 각기 맡은 역할을 통해 구성원 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제관은 서원 제례의 전승 주체임을 유념해야 한다. 각 서원의 제례는 집사분정기·참제록·집사록 등에 기재된 헌관 및 집사들에 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서원 방문자 중 사대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면, 사당을 찾아 알묘를 한다. 그리고 알사록·돈사록·봉심록 등의 명부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일반 방명록인 심원록에도 알묘 여부를 기재하였다. 9개 서원에는 다양한 표제의 일반 알묘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심원록을⁴⁰ 제외하고 이러한 명부

39 권삼문, 앞의 논문, 2001, 58쪽.

40 김명자, 「『심원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방문과 그 의미」, 『퇴

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서원에서 거행되는 가장 일상적인 제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알묘의 의미는 그간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시도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정기 향사와 특수 의례 및 행사가 있을 때 서원에서는 방문자 명부인 시도기를 작성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특수 의례일 것이다. 치제례나 봉안례 때는 많은 사대부가 참석한다. 제례의 또 다른 목적은 대외적으로 조직의 위상을 과시하는데 있다. 반대로 본다면 시도기에 기재된 참석자 범위는 서원의 대외적 영향력 또는 일종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 9개 서원과 관련된 문헌 자료의 전승과 그것이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서원의 운영 목적은 교육보다 ‘존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원에서의 ‘존현’은 제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한편으로 서원 제례는 주도 세력의 정체성 및 지위를 반영한다. 그런 관계로 서원 보급 이래 사대부 세력은 제례와 관련된 규칙, 목적과 취지, 참석자, 운영 실태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원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원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된 외래 문물이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의 서원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일정한 형식이 없거나 조선의

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이병훈, 「19세기 한중서원 자료를 통해 본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경주 옥산서원과 광주 광아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한종수, 「18~19세기 영광 정씨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25,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면, 여러 문헌과 사례를 고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서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도 서원 문화의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중국에서 유래한 서원 문화가 조선 시기를 거쳐 자연스레 우리의 것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거가 된다. 우리의 선현들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서원 제례 규칙을 정비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 전하는 제례 관련 문헌 자료에는 중국과 달리 ‘존현’의 가치를 내세운 한국 서원의 기록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서원 제례는 사대부가 주축이 된 지역 공동체가 오랜 기간 공유해 왔던 문화이다. 이를 통해 전통 사회의 구조와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사회는 급변하였고, 서원 제례는 하나의 전통문화로만 계승되고 있다. 예전처럼 서원 제례는 지역 공동체의 권력 구조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는 곧 서원 제례의 변형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제례 계승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례의 간소화는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서원 제례의 원형을 확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처음 서원 제례가 보급된 이래, 명현들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나갔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에는 계승의 어려움 때문에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형되고 있다. 실제 현재 거행되는 9개 서원의 향사는 홀기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변형되었는지 고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형 이전의 제례가 문자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원형 복원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옛 전승 양식을 재구성하는데 사실상 유일한 근거이다. 따라서 9개 서원뿐만 아니라 여러 서원에 전해지는 문헌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제 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서원 제례의 전통가치를 확립하고, 체계적 전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朝鮮王朝實錄』

『書院謄錄』

『常變通攷』

『退溪續集』

『嶧陽集』

『寒岡集』

『寒岡涑集』

『旅軒續集』

『愚伏集』

『木齋集』

『拓菴集』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95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58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지』, 193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영남문헌연구소,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영주시, 『소수서원 고문서 문화재 지정 신청 보고서』, 202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무성서원지』, 2021

필암서원, 『필암서원지』, 1975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판-,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판-, 1995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민속연구』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김명자, 「『심원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 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方彦寿, 「朱熹书院祭祀制度的建构 `完善与传承」,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윤숙경, 「향교와 서원의 제례에 따른 제수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 진단학회, 2000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병훈, 「19세기 한중서원 자료를 통해 본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경주 옥산서원과 광주 광아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정순우,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추향례·치제례·사액례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한재훈, 「퇴계의 서원 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 -백운동서원 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 -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한중수, 「18~19세기 영광 정씨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25,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유교넷(<https://www.ugyo.net>)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로런 1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토론문

석 대 권 (사)대구경북향토문화연구소

이번 학술회의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가치와 무형유산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무형유산지정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주었고,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성, 전승계보의 명확성, 전승내용의 수월성, 학습과 계승의 보장성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의 무형유산으로 지정·전승가치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토론자 또한 무형유산으로서 가치에 대한 발표자의 논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원제향을 국가 무형유산으로서 지정이라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경북지역의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대구의 도동서원, 경남의 남계서원, 전남의 필암서원, 충남의 돈암서원, 전북의 무성성원)의 제향의 지정 문제에 대한 논의로 다음과 내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1. 제향에서 지정대상을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즉 춘추제향만 지정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외에 기타 다른 제향들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9개 서원의 제향을 일괄하여 “서원제향”으로 지정받아야 할 것인지, 서원마다 향사의 특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서원 단위로 지정받아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대상인 제향을 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조건의 하나인 '전형(典型)'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제향의 전형으로 삼는 시점을 언제로 기준할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각 서원은 서원 제향의례의 흘기笏記를 작성하고 「춘추향례의절春秋享禮儀節」, 「진설도陳設圖」 등 각종 의례에 관한 기록물을 생성하여 보존함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현재 서원 춘추향사의 내용을 보면 일부 변형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례를 수정하듯이 일정 시기까지 의례는 수정되었다고 한다. 서원들은 먼저 만든 의례를 전범으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공유와 그것의 공고화 그리고 지식의 외연과 내용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발표자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도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 제복의 문제, 제향시설의 현존 여부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원향사가 무형유산 지정의 요소에서 말하는 전승가치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나, 전승환경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 가능성 등은 충족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 발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연구팀에도 과제를 수행함에 참고될 것으로 보여 의견을 피력해 본 것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 9개 서원 홀기 비교 · 검토를 중심으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토론문

채 광 수 (영남대학교)

본 발표문은 한국의 서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향사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이미 서원 향사와 의례 등에 관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학계에 발표한 바 있는 이 분야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번 발표문도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9개 서원 흥기를 정치(精緻)하게 분석하여 서원 제향의 전승 구조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여기에 9개 서원의 흥기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논지 전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맡았기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지역적 연고가 있는 향현(鄉賢)을 제향하는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공자를 제향하는 중국의 서원과 대별되는 한국 서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점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소수서원에서는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계 주도하의 초창기 서원은 집권 훈구파의 견제 속에서도 어

디까지나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세붕을 비롯한 훈구파 입장에서 이 시기 피폐된 향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를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즉 부진한 지방교육 진흥을 위한 대안으로 서원을 용인했고, 관학의 연장선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소수서원의 가장 큰 특징으로 관권과의 깊은 밀착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9개 서원에서 성생례(省牲禮), 진설[보(簋)·궤(簠), 변(簋)·두(豆), 폐(幣)], 홀기 순서 등 다소 간 차이가 있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개 서원 이외 이를테면 사액과 미사액서원, 당색별, 지역별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서원의 남설, 재정 등의 문제로 17세기 후반부터 서원 본래의 강학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향사 위주로 변모했고, 18세기 이후에는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 그 성격이 변하면서 문중서원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부 서원을 예외로 하면 강학이나 교화를 통한 향촌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문중 내부의 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한정됩니다.

반면에 서원의 향사는 더욱 강화 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서원이 향사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그리고 대원군 휘철에도 이것이 작용이 되었는지 예학(禮學) 전공자로서 의견을 주시면 합니다.

5. 끝으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한국 서원의 향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 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문헌고증을 통해 본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과 현대적 의미 해석” 토론문

이 병 훈 (한국국학진흥원)

오늘 발표하는 주제에 대하여 잘 모르기에 좋은 토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표문과 오늘 전체 주제에 대하여 생각한 저의 의견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서원이 건립되었던 이유이자, 서원의 가장 근본적 기능에 대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됩니다. 제향과 의례라는 절차는 조선시대 유생들의 위기지학(爲己之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관계의 질서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점은 현대의 학교에서 무너져버린 교권과 사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주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제향 의례에서 9개 서원,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광우 선생님의 발표는 이러한 서원 제향 의례와 여타 의례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전해지지 않고, 남은 자료도 단편적이고 분절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이 살피보려는 서원 제례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좀 더 조사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서 적절한 주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 저는 서원 의례가 정형화되어가는 초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례는 비

숫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송논쟁과 같이 학파별, 정파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9개 서원의 의례 자료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보시기에 이들 서원의 제향 의례 문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되는 비슷한 의례[정기·부정기(특수의례)]의 경우 절차와 음식, 축문의 내용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2가지 사례를 비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발표문을 보면 의례 절차와 목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를 조합하여 현재에는 사라진 서원의 각종 의례에 대한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천편일률적인 오늘날 서원 의례에 다양성을 제고하여 서원 활용도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며, 만약 제향 의례뿐만 아니라 다른 의례들도 복원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본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조사된 자료를 보면 명부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명부류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Yeungnam University